

2020년도 문화재위원회

제4차 순계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자료

■ 일 시 : 2020. 5. 26.(화) 14: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문 화 재 위 원 회

□ 고지사항

1.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법인의 상근·비상근 임직원 포함)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 위원께서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합니다.
 -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2조 제5호에 따라 해촉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4.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근대문화재분과 제4차 회의 안건 목록

【심의사항】

- | | | |
|---|--------------------------------------|--|
| 1 | 사적 제252호 「서울 약현성당」 주변 단지형 다세대주택 신축 | |
| 2 | 사적 제520호 「서울 용산신학교」 주변 다세대주택 및 근생 신축 | |

【검토사항】

- | | | |
|---|---|--|
| 3 | 「영주 부석교회 구 본당」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 |
| 4 | 「구 천도교 임실교당」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 |
| 5 | 「천도교 서산교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 |
| 6 | 「연세대학교 4월혁명연구반 수집자료」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 |
| 7 | 「고려대학교 4·19혁명 자료」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 |
| 8 | 「이준열사 유묵」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 |
| 9 | 「군산 둔율동 성당 성전신축기·신축공사설계도」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 |

【보고사항】

- | | | |
|----|--|--|
| 10 | <근대문화재분과 제3차 소위원회 결과보고>
- 국가등록 제707호 「조선내화주식회사 구 목포공장」 현상변경 | |
| 11 | <근대문화재분과 제4차 소위원회 결과보고>
- 국가등록 제292호 「경주 우안 양수장」 현상변경 | |
| 12 | 국가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 |

1. 사적 제252호 「서울 약현성당」 주변 단지형 다세대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사적 제252호 「서울 약현성당」 주변에서 단지형 다세대 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현상변경 허가 신청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약현성당」 주변에서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계획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약현성당 (사적 제252호, '77.11.22 지정)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149-2
- (3) 신청내용
 - 대상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149-50
 - ※ 현상변경 허용기준 : 3구역(평지붕 14m이하, 경사지붕 18m이하)
 - ※ 문화재로부터 이격거리 : 36.7m
 - 세부내용 : 단지형 다세대주택 신축
 - 대지면적 : 284㎡
 - 건축면적 / 연면적 : 163.95㎡ / 566.21㎡
 - 건축규모 / 건축구조 : 지상 6층 / 철근콘크리트조
 - 최고높이 : 21.05m(평지붕)

라. 전문가 현지조사 의견("20.5.8.)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약현성당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3구역(최고높이 허용기준 평지붕 14m, 경사지붕 18m)에 속한 대지로 계획건물은 평지붕 최고높이 21.05m로 허용기준을 7.05m 초과하여 계획
- 계획건물은 최고높이 허용기준을 지나치게 초과함으로써 문화재 주변의 기존 건물들보다 높아져 문화재 보존 및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문화재 및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최고높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 결

- 계획건물은 최고높이 허용기준을 지나치게 초과하였고, 문화재 주변의 기존 건물들보다 높아 문화재 보존 및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음

○ 출석 11명 / 부결 11명

2. 사적 제520호 「서울 용산신학교」 주변 다세대 주택 및 근생 신축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 사적 제520호 「서울 용산신학교」 주변에 다세대 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용산신학교」 주변에 다세대 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계획이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외 1인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용산신학교 (사적 제520호, '12.6.20. 지정)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19길 49(원효로 4가)
- (3) 신청내용
 - 대상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19가길 13-2(원효로 3가 232-2번지)
 - ※ 현상변경 허용기준 : 2구역(지붕 14m이하, 경사지붕 18m이하)
 - ※ 문화재로부터 이격거리 : 약 83m
 - 세부내용 : 건축물 용도 : 다세대 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
 - 대지면적 : 264.16㎡
 - 건축면적 / 연면적 : 147.31㎡ / 447.54㎡
 - 건축규모 / 건축구조 : 지상 5층 / 철근콘크리트조
 - 최고높이 : 17.3m(평지붕)

라. 전문가 현지조사 의견('20.5.8.)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경계부에 걸쳐 있는 대지로 2구역(최고높이 허용기준 평지 14m, 경사지붕 18m)에 포함되어 있으며, 2020년 경사지붕 16.6m로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없이 건축허가를 취득함

- 기존 경사지붕에서 금회 평지붕으로 변경하고 최고높이를 0.7m 높게 계획하였으며, 금회 계획된 평지붕 최고높이 17.3m는 2구역 평지붕 최고높이 허용기준 14m를 3.3m초과함
- 지형상 문화재보다 낮은 대지에 위치하여 문화재보다 높지 않고 최고높이 허용기준 초과부분이 주로 옥탑층에 집중되어 있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경계부에 걸쳐있어 현재 주변 건물 다수가 계획건물과 유사한 높이로 건축되어 있으므로, 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 결
 - 계획건물은 최고높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였고, 신축 시 문화재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음
- 출석 11명 / 부결 11명

3. 「영주 부석교회 구 본당」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영주시 소재 「영주 부석교회 구 본당」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영주 부석교회 구 본당」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19.1.8.)에 따라 관계 전문가 현지조사('20.2.4.)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재)대한예수교장로회 영주노회유지재단
- (2) 대상문화재명 : 부석교회 구 본당
 - 소재지 :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소천로 27-1(소천리 382-28번지)
 - 소유자 : (재)대한예수교장로회 영주노회유지재단(주소: 경상북도 영주시 광복로 36)
 - 수량 : 1동(1층)
 - 면적 : 238.84㎡(건축물대장)
 - 건립시기 : 1955년(착공) / 1964년(완공)
 - 구조 : 조적식(흙벽돌) 및 목조트러스
-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4) 추진경과
 - ('19.1.8.) : 문화재 등록 신청(경상북도→문화재청)
 - ('20.2.4.) :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실시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문화재위원 ○○○('20.2.4.)

- 영주 부석교회는 1929년 현재 위치에서 최초 설립된 이후 지역 사회 및 공동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구 본당은 교회의 상징적 건물로 지역의 대표적 구성요소이자 근대역사문화유산으로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역사성, 상징성을 지니고 있음.

- 구 본당은 전통적 민간 건축기법인 흙벽돌 조적식으로 건축되었고 정면 종탑이 목구조를 바탕으로 독특한 장식적 형태로 구성되었다는 측면에서 기존 국가등록문화재 교회 사례들과 비교되는 건축적 특징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으며 기본적 건축형식의 보존상태도 양호하므로, 등록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 ○○○(‘20.2.4.)

- 부석교회 구 본당은 1950년대 제한된 자원과 물자로 지어진 소규모 교회의 전형으로서 의미를 가짐. 전체적인 형태를 비롯하여, 원형이 남아있는 창틀과 포치부의 모든 외장, 특히 부석교회라는 글씨 부조, 다락 및 지붕구조, 예배당 내부의 목재 바닥 등은 모두 원형으로 생각되므로 반드시 보존할 필요가 있음.
- 관련 담당자들의 보존 의지가 있으며 비교적 자료를 충실하게 확보하고 있어, 향후 부석교회 교육관으로 계속 활용하면서 지역 교회사를 보여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해보이며, 부석면의 근대경관 보존에 있어 거점 시설로 활용하는 것 역시 적절하다고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 ○○○(‘20.2.4.)

- 최초 건립 당시와 비교해 큰 변화 없이 보존 및 관리에 따른 노후화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며 원형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음. 과거 기록사진 등을 통해 건립 당시 건축적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어 문화유산으로서의 진정성 및 완전성 등을 비교적 잘 파악할 수 있고, 지역의 교회사와 관련된 역사 교육의 시설로서 폭 넓게 활용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임.
- 흙벽돌, 목조 침탑구조 등이 희소성 측면에서 보존 가치가 있으며, 한국전쟁 직후의 지역사회에서의 건축 활동의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산물로서 국가등록문화재로서의 보존 가치가 재고된다고 할 수 있음.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1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영주 부석교회 구 본당 (구) 영주 부석교회 본당(예배당)
2. 용 도 : (현) 종교시설(교회 예배당, 교육관) (원) 종교시설(교회 예배당)
3. 소재지 : 경상북도 영주시 소천로 27-1(소천리 382-28)
4. 소유자 :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영주노회유지재단
(주소 : 경상북도 영주시 광복로 36)

5. 건축물 개요

- 건축구조 : 조적식(흙벽돌조) 및 목조트러스
- 준공일 : 1955년 착공, 1964년 12월 5일 완공
- 수량 및 면적 : 1동, 238.84㎡(연면적), 238.84㎡(건축면적)
- 층수(높이) : 지상 1층

6. 조사자 의견('20.2.4.)

<문화재위원 ○○○>

1) 개요

- 부석교회는 영주시 부석면 소천리 현재 위치에서 1929년 8월 6칸 규모의 초가를 세우고 소천교회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며, 일제강점기 당시 종교탄압으로 교세가 점차 위축되며 어려운 시기를 경험.
- 광복 이후 교세를 점차 회복하던 중 1955년 예배당(현재 구 본당)을 신축하면서 교회명을 부석교회로 개명하였으며, 이후 신도가 증가하여 1978년 5월 예배당을 12평 증축.
- 1991년 예배당 맞은편에 3층 규모의 새로운 예배당(현 본당)이 신축된 이후, 본래의 예배당은 구 본당으로 지칭되었고 소규모 예배, 집회, 교육 등이 행해지며 교육관으로서 역할.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부석교회 구 본당은 교회측 기록에 의하면 1955년 착공되어 1964년 12월 5일 최종 완공되었으며, 착공년도는 '부석교회성전건축상양'(1955년 5월 4일 촬영) 사진을 통해 확인 가능.
- 위의 상량 당시 사진을 통해 구 본당은 본래 흙벽돌을 주재료로 건축되었고 정면 종탑 및 주출입구는 목조 구조로 건축되었고 교회 신도들이 건축에 직접 참여했었다는 사실도 확인 가능.
- 구 본당은 신도가 점차 증가하자 1978년 제단부를 장축 방향으로 확장하여 12평 정도 증축하였으며, 촬영당시 사진을 통해 역시 신도들이 흙벽돌을 제작하여 건축하였다는 사실도 확인 가능.

- 정면에 돌출된 종탑 및 주출입구가 가장 특징적 부분으로 전체적으로 목조 구조체를 형성하고 외부는 시멘트 모르타르로 마감하였으며, 외관은 고전적 기둥, 코니스, 처마 장식, 돌출형 아치 개구부 등에 의해 장식적 형태로 구성.
- 또한 종탑 및 주출입구는 1층은 대형 아치 개구부를 지닌 포치(Porch) 형태로 구성하고 그 위에 2개 층 규모의 종탑부를 후퇴(Setback)시켜 올리고 그 위에 함석으로 마감된 사각뿔 형태의 종탑을 가설한 독특한 형식으로 구성.
- 단축 11m, 장축 23m 규모의 장방형 평면의 한쪽 단변 중앙부에 종탑 및 주출입구를 돌출시켜 덧붙인 단순한 평면을 구성하였으며, 내부는 기둥이 없는 통칸 형식으로 바닥은 목조마루이고 천장은 합판 마감.
- 벽체는 흙벽돌로 쌓은 후 외부를 시멘트 모르타르로 마감하고 아치형 목재 창 내부에 오르내리 창문을 형성하였으며, 지붕은 박공지붕 형식으로 목조트러스 위 슬레이트로 마감.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지붕 마감재 변경, 주출입구 아치 보강, 외벽 모르타르 균열 등 부분적으로 노후화되고 변형되었지만, 흙벽돌과 목조 구조체, 목재 창호, 내부 합판 천장 등 전체적으로 건축원형의 기본적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
- 목조 구조체로 형성된 정면 종탑 및 주출입구 부분이 근본적으로 구조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대형 아치로 구성된 개구부는 상부 종탑 하중이 집중되어 현재 철제 기둥으로 받치고 있는 상태.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교회 측에서는 구 본당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인식하고 계속 보존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전반적 노후화와 부분적 훼손으로 인해 지속적 보존과 관리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새로운 본당이 1991년 신축된 이후 구 본당으로 역할하며 소규모 예배, 집회, 교육 등 부속시설로 활용되고 있으며, 교회 측에서는 이와 같은 활용 상황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현재 다수의 교회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지만, 부석교회 구 본당은 흙벽돌을 주재료로 건축되었고 정면 종탑이 목구조를 바탕으로 독특한 형태로 구성되었다는 측면에서 기존 국가등록문화재 교회 사례들과 비교되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음.

7) 등록가치의견

- 영주 부석교회는 1929년 현재 위치에서 최초 설립된 이후 지역 사회 및 공동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구 본당은 교회의 상징적 건물로 지역의 대표적 구성요소이자 근대역사문화유산으로 역할.
- 영주 부석교회 구 본당은 1955년 착공되어 1964년 최종 완공된 건물로 전통적 민간 건축기법인 흙벽돌 조적식으로 건설되었고 정면 종탑 및 주출입구는 목조 구조체를 바탕으로 장식적 형태로 구성된 점이 특징.

- 영주 부석교회 구 본당은 이상과 같이 역사성, 상징성을 지니고 있고 일반적 교회들과 구분되는 건축적 특징을 지니고 있고 현재 기본적 건축형식의 보존상태도 양호하므로, 국가등록문화재로서 등록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시 명칭은 영주 부석교회 구 본당
- 1978년 증축되어 현재 제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50년이 경과되지 않았지만, 제단은 교회의 기능 및 공간의 기본적 구성요소이므로 등록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1929년 영주시 소천리의 초가 6칸 예배당에서 설립된 소천교회가 1955년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여 부석교회로 개칭하며 신축한 예배당으로, 1955년 착공하였으나 재정부족으로 천정공사를 마무리 못하다 1960년에 천정공사를 마무리하고 1964년 12월 5일 예배당을 준공하였다. 1966년에는 예배당 서측에 철제종각을 신축하고, 목사관을 개축 수리하였으며, 교회를 감싸는 담장과 화장실을 신축하였다. 남북으로 긴 본당에 돌출된 포치공간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구조의 건물로, 본당은 단층의 경사지붕이지만 포치는 다락이 있는 탑으로 이루어진 형태이다. 1978년 본당 제단부의 증축 당시 양옆으로 당회실과 성가대실을 증축하였으나, 성가대실은 2004년 봉사관을 건립하며 철거되었다. 비교적 단순한 구조와 형태의 교회 건축으로, 한국전쟁 직후 목골+벽돌벽체구조로 건축된 1950년대 중후반 소규모 교회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출입구 상부의 뽕족탑은 종탑의 형태이나 실제 종은 1966년 건축된 외부의 철제 종탑에 있었으며, 출입구 상부의 뽕족탑에는 다락이 있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장방형의 평면에 중앙에 돌출된 포치공간이 부착된 단순한 형태의 교회로 출입구 부분의 아치 처리 및 상부가 아치로 처리된 오르내리창이 있는 서양식 외양을 가지고 있다. 전면 포치에서는 목조로 된 선형 부재가 돌출되어 있으며, 벽체는 흙벽돌 혹은 시멘트벽돌을 쌓은 후 시멘트 모르타르를 발라 마감하였다. 건물의 측면에는 상부가 아치로 처리된 오르내리창이 양옆에 7개씩 설치되어 있는 단순한 구조이나, 정면 포치부는 전체적으로 3개의 부분(아치형 포치 - 사각형 탑신 - 뽕족탑)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사각형 탑신은 신축 당시 설치된 浮石敎會이라는 부조가 있는 하단부와 쌍으로 된 아치창이 있는 중간부와 그 위 하나의 아치창이 있는 상층부로 나누어진다. 포치공간에서 사각형 탑신, 뽕족탑은 점점 그 면적이 좁아지며 전체적으로 하늘을 향하는 듯한 양천성을 보인다. 종탑은 외부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포치 부분의 탑은 최상부의 십자가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부석교회 구 본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내부는 무주공간으로 처리되어 아일-네이브-아일로 되어 있는 서양식 교회의 평면구성을 살펴볼 수는 없으나, 중앙 포치공간의 강조로 단순화되긴 하였지만, 전체적으로는 서양식 교회의 외형적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제단부분의 한 칸이 증축되긴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 상황이다. 현재는 예배당 내부를 입식으로 이용하지만 신축 당시에는 마룻바닥에 방석을 두고 앉아 예배드리는 좌식 예배당이었으며, 현재도 원형의 마룻바닥이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증축된 부분을 제외한 창호의 목재 창살은 모두 원형인 것으로 추정되며, 포치부분 탑신의 다락방과 천정 구조 등도 잘 남아 있다. 포치부분은 원래는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공간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이후 유리문을 설치하여 내부화시킨 것을 알 수 있으며, 지붕은 1984년 슬레이트 지붕을 덧대어 개량한 상태이다. 비교적 원형이 잘 보존되고 있으며 변형된 부분이 명확하여 원형 파악이 용이한 상황이다. 노후화가 진행되긴 하였으나 건물 관리 상태가 양호하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부석교회 및 영주시청 등 관련 담당자들의 보존 의지가 있으며 비교적 자료를 충실하게 확보하고 있어, 향후 문화재를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주변에 일제강점기에 건축된 부석면사무소 및 근대건축자산이 다수 분포하여 부석교회와 함께 도시재생이나 역사문화공간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부석교회 교육관으로 계속 활용하면서 지역 교회사를 보여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해보이며, 부석면의 근대경관 보존에 있어 거점 시설로 활용하는 것 역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부석교회 구분당 자체의 보존 및 활용은 충분히 실현가능할 것이나 인근 근대건축 자산들과 더불어 부석면의 근대경관을 보존하여 활용하기 위한 거점 시설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추후 영주시 차원에서의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부석교회 구분당은 한국전쟁 이후 건립된 1950년대 중반 소규모 교회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건축으로, 목구조에 흙벽돌(혹은 시멘트벽돌)을 사용하여 만든 것으로 교회사에 따르면 교인들이 직접 건축에 참여한, 작지만 의미있는 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 구조나 형태, 내부 공간의 사용 등에 있어 1953년 건립된 부평 화랑교회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나 부평 화랑교회 등 1950년대 중반 건설된 소규모 목조 교회들은 현재 대부분 멸실된 것으로 판단되어, 비교적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는 부석교회의 문화재적 가치는 높다고 판단된다. 현재 국가등록문화재인 1950년대 교회 건축은 국가등록문화재 제288호 영덕 송천예배당(목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석조(국가등록문화재 제720-6호 영주 제일교회, 국가등록문화재 제38호 남제주 강병대교회)이며, 1950년대 건축된 대표적인 교회건축인 영락교회, 남대문교회 등도 대규모 석조 교회로 부석교회 구분당과는 다른 유형이다.



그림 2. 국가등록문화재 제288호
영덕 송천예배당



그림 3. 1953년 건축된 부평 화랑교회 (현재
멸실)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부석교회 구 본당은 그 자체로 건축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은 아니라 할 수 있지만, 1950년대 제한된 재원과 물자로 지어진 소규모 교회의 전형으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포치부의 뽕죽탑은 이후 한국의 소규모 교회들에 십자가탑으로 부착되는 전형적인 형태로 볼 수 있다. 부석교회는 전체적인 형태를 비롯하여, 원형이 남아있는 창틀과 포치부의 모든 외장, 특히 부석교회라는 글씨 부조, 다락 및 지붕 구조, 예배당 내부의 목재 바닥 등은 모두 원형으로 생각되므로 반드시 보존할 필요가 있다.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부석교회는 국가등록문화재 혹은 시·도 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며, 명칭은 부석교회 구 본당이라는 명칭이 적절하다.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동 시설은 오늘날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에 위치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 ‘부석교회 구 본당’임. 이곳 부석면에는 1929년에 인접지역인 봉화군 물아면에 위치한 압동교회로부터 복음이 전파되었으며, 당시 교회 건물은 초가집 6칸 규모였다고 하나 확인할 수는 없음.
- 광복 후, 교세가 확장됨에 따라 교인들의 도움으로 본래 교회의 위치에 규모를 늘여 ‘부석교회 예배당’을 신축하였음. 관계자 증언 및 관련 자료에 의하면, 기본적인 건축공사는 1955년에 완료되었지만, 내부 천정 마감공사 등은 예산상의 이유로 1960년이 돼서야 진행되어 최종 준공은 1964년 12월 5일에 이루어짐.
- 이후, 1966년 예배당을 중심으로 주변에 철제종각 및 토석담장 등이 설치되었고, 또한 초가집 형태의 목사관(사택)이 있었으나, 담장과 종각은 철거되었고 목사관은 1968년에 새롭게 신축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음.
- 이밖에, 1978년에 이르러 예배당 북쪽(배면)으로 한 차례의 증축 공사가 있었고, 이와 함께 증축 공간 좌·우측에 근접하여 성가대실과 당회실을 신축하였으나, 2004년 봉사관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성가대실은 철거되었음.
- 1991년에는 새로운 예배당 건물을 신축함에 따라 예전 예배당은 ‘부석교회 구 본당’으로서 교육관으로 사용 중에 있음.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전반적인 건물 형태는 소위, 일(一)자형의 바실리카식 예배당으로 내부는 네이브, 아일 구분 없이 하나의 통칸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붕 가구는 목조트러스로 구축하였음. 정면에는 포치 형태의 출입구를 두고 그 상부에 종탑이 위치하고 있음.
- 신축 공사 당시의 기록 사진을 통해 전반적인 건물의 구조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예배당 벽체를 흙벽돌로 쌓아 올려 구축한 것과 정면 포치 및 그 위의 종탑을 모두 목조로 결구한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음. 종탑 구조체는 예배당 내부 출입문 상부에 마련한 점검구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함.
- 예배당의 개구부 및 포치 상부, 종탑에는 모두 아치(반원아치, 첨두아치)형태의 창호를 설치하였으며, 포치 바깥쪽에 새로 달아낸 샷시문을 제외하고 예배당 정면 출입문 및 좌우측면의 오르내리창 모두는 목재창틀 창호로, 최초 건립 당시의 것으로 보임.
- 내부 천정은 원형으로 추정되는 반자들이 있는 나무반자 천정으로 마감되어 있으며, 바닥은 기존 장마루판 위에 별도의 가설 바닥판을 덧대어 설치하였고, 외부 좌우벽체 하단부에는 기존 마룻바닥판 환기구가 그대로 남아 있음.
- 벽체는 비교적 규모가 큰 흙벽돌을 쌓아 올려 구축하였고, 그 위에 시멘트 몰탈과 수성페인트로 마감처리 하였으며, 벽돌의 규모와 형태 등은 예배당 북쪽(배면부) 벽체 중 마감재가 벗겨진 곳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음.
- 지붕가구는 목조트러스로 결구하였으며, 예배당 내부 출입문 상부에 있는 점검구를 통해서 결구형태를 살펴볼 수 있는데, 과거 기록사진에 따르면 상술한 흙벽돌과 지붕 목조트러스는 건립 당시의 것으로 판단됨.
- 지붕마감재는 골합석으로 보이며, 그 아래층에는 강판이 깔려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교회 측에서 제출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1958년 4월에 검은색 유지 지붕을 합석으로 개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자료의 한계로 인해 원형보존 상태 및 변형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최초 건립 당시와 비교해 일부 공간이 증축되거나 철거된 것을 제외한 구조체 등에서의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 현재에도 교육관의 기능으로 계속해서 사용 중에 있어, 보존 및 관리에 따른 노후화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현재 정면 포치 중앙부에 원형 단면의 철제 기둥을 세워 상부를 지지하고 있는데, 과거 기록사진에 의하면 최초 건립 후 오래되지 않아 아치 상부의 구조보강 등을 위해 설치하였던 것으로 보임.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관할 지자체에서는 시대적·지역적 산물로 보존,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며, 또한 교회 측에서도 교회사적인 측면에서 역사적 공간으로 폭 넓게 활용하고자 함.
- 현재, 부석교회 교당을 새롭게 신축하는 등 향후 교세확장 및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훼손 및 멸실에 대한 우려는 적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될 경우,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는 판단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현재, 교당이 아닌 교육관의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역의 교회사 및 근대 문화유산적인 측면에서 전시, 홍보의 공간으로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임.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지역의 교회사와 관련된 역사 교육의 시설로서 폭 넓게 활용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임.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근대기 기독교 예배당 시설이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사례는 전국에 걸쳐 다수 있으며, 특히 영주지역 내에도 ‘영주 제일교회(국가등록문화재 제720-6호)’가 있음. 이들 시설과 비교할 때, ‘부석교회 구 본당’에서 살펴볼 수 있는 목구조의 침탑 등은 기타 시설에서 보기 드문 사례이며, 게다가 원형의 형태를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어 희소성 측면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과거 기록사진 등을 통해 건립 당시 및 공사 과정 등에 대한 건축적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어 문화유산으로서의 진정성 및 완전성 등을 비교적 잘 파악됨.
- 흙벽돌 이라는 건축 재료와 함께 목조 침탑구조 등은 최초 건립 당시의 시대적 상황 즉, 한국전쟁 직후의 지역사회에서의 건축 활동의 모습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역사적 산물로서 국가등록문화재로서의 보존 가치가 재고된다고 할 수 있음.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영주 부석교회 구 본당」

4. 「구 천도교 임실교당」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전라북도 임실군 소재 「구 천도교 임실교당」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구 천도교 임실교당」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18.7.19.)에 따라 관계 전문가 현지 조사('19.11.4. / '20.5.12.)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천도교 임실교구장
- (2) 대상문화재명 : 구 천도교 임실교당
 - 소재지 :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성가리 367(봉황로 105)
 - 소유자 : 천도교 임실교구(전라북도 임실군 운암면 선거리 713-7)
 - 수량 : 3동(본채, 바깥채, 문간채)
 - 면적 : 본채 106.7㎡, 바깥채 66.8㎡, 문간채 44㎡(건축물 대장)
 - 건립시기 : 1930년(본채), 1936년(바깥채, 문간채)
 - 구조 : 목구조/목조와(문간채와 바깥채는 골슬레이트)
-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4) 추진경과
 - ('18.7.19.) : 문화재 등록 신청(임실군→문화재청)
 - ('19.11.4.) :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실시(1차)
 - ('20.4.21.) :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보류'(추가 현지조사 후 재검토)
 - ('20.5.12., '20.5.22.) : 문화재 등록 검토 추가조사 실시(2차)

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차) 의견

○ 문화재위원 ○○○, 문화재위원 ○○○ (‘20.5.12.)

- 근대기 건축된 한옥형식 교당으로 생활공간과 종교공간이 상호 공존하면서 독특한 평면과 공간을 구성하였고 오랜 기간 지역의 대표적 근대역사문화자원으로서 역할하였다는 시대적, 건축적, 종교적, 지역적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현재 건물의 전체적 보존 상태는 양호하지 못하지만 기본적 건축형식은 원형의 확인이 가능한 상태이며, 향후 임실군은 균유화하고 원형복원을 통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지역공공 문화시설로 조성,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태임.
- 이상과 같이 보존의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고 공공문화시설로 활용계획이 제시되었으므로, 국가등록문화재로서 보존 및 활용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위원 ○○○(‘20.5.22.)

- 문간채와 중간채 그리고 안채로 구성된 천도교 임실교당은 지역 건축으로는 드물게 전면도로에 면한 부분보다 길 후면으로 길게 부지가 형성되어 있음. 이는 1930년대 당시 이 도로가 지역의 중심가로의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줌.
- 임실교당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본채의 공간구성임. 본채는 가운데 꺾임부를 기준으로 좌우에 3칸 반씩 위치하며, 전면에는 툇마루가 형성되어 있음. 초기에는 꺾임부 동측 2칸은 마루가 존재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상부에는 상량문이 위치해 있음.
- 꺾임부 주변의 실배치와 본채의 양단 부에 각각 부속실이 위치한 것은 일반적인 주거의 공간구성과 다름. 이는 이 건물이 처음부터 종교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지어졌기 때문으로 보임. 다만 1930년에 본채가 신축된 이후 중간채가 지어지면서 본채의 기능에서 변화가 생기고 공간 구성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는 후에 정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임.
- 본채 양단부의 부속실은 본채의 규모로 보아 주방보다는 교당의 기능을 지원하는 실의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1930년에 본채가 신축되었을 당시에는 여러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용해야했으나, 1936년에 중간채가 건설되면서 본채에서 수행했던 부속 기능은 중간채에서 담당했을 것으로 판단됨.
- 기와는 해방 전에 사용된 왜식 개량기와가 부분적으로 현존하며, 때를 알 수 없는 시점에 시멘트 개량기와로 많은 부분이 수리되어, 현재는 신축 당시의 왜식 개량기와와 시멘트개량기와가 동시에 존재함.

- 천도교 임실교당은 동시대 서양에서 전래된 종교건축의 예를 참고하면서도, 민족종교의 가치를 담아내는 지역 종교건축은 매우 희소함. 특히 서양뿐 아니라 이 땅에서 발생한 여타 신흥종교와도 다른 모습을 갖고 있어 종교사적 측면 뿐 아니라 사회사적 측면에서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천도교는 민족종교임에도 불구하고, 교당을 짓는데 있어서 반드시 전통건축만을 고집하지 않는 입장을 유지했음. 대표적인 사례가 천주교중앙교당과 봉황각의 존재라고 할 수 있음.
- 교세가 빠르게 성장했고, 어려운 여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교당도 지역적으로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온 것으로 보임. 본 교당의 공간구성과 배치는 지역에 위치한 민족종교 시설의 건축적 특징과 삶의 모습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본 건물의 보존은 지역의 민족종교의 활동을 증거하고 복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마.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문화재전문위원 ○○○(‘19.11.4.)

- 1930년대에 한옥 형식으로 지어진 근대 종교시설(천도교, 본채 묵서명 布德七十一年, 1930)로서 보존 상태가 양호하지는 않으나 지역에서 천도교의 역사와 독립운동 등에 대한 기억과 교육의 측면에서 국가등록문화재로서 등록할 만한 가치가 있음.
- 건물의 전체 배치 및 공간 구성의 보존이 필요하고 일부 공간의 복원이 필요함.

○ 문화재전문위원 ○○○(‘19.11.4.)

- 신청대상 건축물은 임실의 일제강점기 민족종교로서 역할과 종교사적 측면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 건축적 측면에서 기존 근대시기 건립된 대다수에 한옥의 교회나 성당건축과 비교하면 전통한옥의 평면이나 배치, 기술, 형태와 같은 시대성의 반영과 희소성에 가치가 있어 문화재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그러나 건립 당시 건축적 특징(목부재의 공급이나 사용 등)과 이후 건축물의 보수 등, 변형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와 고증 자료가 미흡함.
- 따라서 본 신청 건에 대해서 국가등록문화재로 역사적 가치와 희소성에 대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나 건축적 측면에서 지속적인 고증과 자료 발굴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신청 건에 대한 의견을 토대로 위원회에서 논의 후 결정될 필요가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19.11.4.)

- 한옥을 이용한 천도교 교당 시설이라는 측면과 함께, 여러 채의 한옥을 기능별 (집회, 숙박 등)로 사용한 것은 희소성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자료의 한계로 인해, 안채 및 바깥채, 대문간채의 정확한 기능 및 공간 활용 등을 알 수 없으며, 또한 처음부터 한옥 교당으로 건립된 것인지, 아니면 주거용 한옥을 매입하여 교당으로 사용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파악 할 수 없음.
- 교당 측 및 관할 지자체 관계자에 따르면, 향후 추가적인 자료 보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등록문화재로의 등록 여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1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천도교 임실교당 (구) 천도교 임실교당
2. 용 도 : (현) 종교시설 (원) 종교시설
3. 소재지 : 전북 임실군 임실읍 성가리 367(봉황로 105)
4. 소유자 : 천도교 임실교구 교구장 김창식 (주소 : 전북 임실군 선거리 713-7)
5. 시설물 개요
 - 구조 : 목구조/목조와(문간채와 바깥채는 골슬레이트)
 - 제작년도 : 1930년(본채), 1936년(바깥채, 문간채)
 - 수량 및 면적 : 3동, 본채 106㎡, 바깥채 66.8㎡, 문간채 44㎡
 - 층수(높이) : 1층

6. 조사자 의견('19.11.4.)

< 문화재전문위원 ○○○ >

1) 개요

- 1873년 임실 지역에 동학이 전래된 이후 1905년 천도교로 개칭되었고, 1906년 임실 제1교구, 1908년 임실 제2교구가 설립되었으며, 이후 2개 교구를 합한 임실교구를 1916년 임실 성가리 현재 위치로 이전함.
- 1919년 임실교구를 중심으로 임실지역 3.1만세운동을 주도하였음. 당시 만세운동을 주도한 교구장 다수는 독립유공자로 추서되었고, 임실 출신 박준승은 민족대표 33인으로 활동함.
- 현 천도교 임실교당은 1930년에 신축되었음.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천도교 임실교당은 문간채, 바깥채, 본채의 3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동은 모두 'ㄱ'자 형태의 평면임. 문간채는 전면 도로인 봉황로에 면하여 남동향하여 배치되어 있고, 바깥채는 문간채에 비해 좀 더 남향하여 배치됨. 본채는 더욱 남향에 가깝게 배치되었고 안마당을 중심으로 바깥채와 뜰 口자 형태로 배치됨.
- 문간채는 정면 3칸의 우진각 기와 지붕 건물로 중앙에 대문이 있고 우측에 방을 두었고, 좌측은 방과 부엌으로 구성함. 목서명에 丙子年(1936)으로 기록됨.
- 바깥채는 정면 5칸의 우진각 슬레이트 지붕 건물로 중문의 우측으로 수장 공간과 방 2칸을 배치하고 좌측은 방과 수장 공간으로 구성함. 丙子年으로 기록됨.

- 본채는 정면 7칸의 우진각 기와지붕 건물로 남향하고 있는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 측에 방을 배치하고 좌측에서 ‘ㄱ’자로 꺾어 방과 부엌을 연속시켜 공간을 구성하고 대청과 방의 앞뒤로 틈간을 두었음. 목서명에 布德 七十一年(1930)으로 기록됨.
- ‘ㄱ’자형 전통 한옥과 유사한 공간 구성이나, 이 지역에서 흔하지 않은 ‘ㄱ’자 평면, 넓은 툇마루와 방의 구성 등에서 여러 사람이 모이는 종교시설의 특징이 나타남.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본채의 부엌 부분이 입식 형태로 변형되면서 바닥, 벽체, 창호 등이 변형되었음. 그 외에도 바깥채와 문간채를 포함하여 벽체와 바닥 마감 등에서 변형이 확인됨.
- 본채의 회침 부분 추녀와 서가래, 개관, 평고대 등의 부후가 심각함. 마루널이 부분적으로 파손되었고, 벽체 마감재 탈락 등의 노후화가 많은 부분에서 확인됨.
- 2017년 문화재아우리치연구소 문화재돌봄사업단에서 본채 지붕부에 임시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였음.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천도교의 교세가 위축된 이후 일반 주택 등으로 사용되면서 변형되었고, 이후 방치되어 많은 부분에서 노후화가 진행됨. 주변의 개발압력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는 지자체 및 천도교 측의 보존 의지가 중요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지역에서 동학 및 천도교, 3.1운동의 역사를 교육, 홍보하는 공간과 천도교 임실교구의 종교 활동 공간으로의 활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활용계획의 전체적인 방향 및 목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도시재생이나 문화마을조성사업 등과의 연계를 언급하고 있으나 계획의 구체성이 높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등록문화재 중 종교시설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천도교의 건축물은 사례가 없고, 전라남도 기념물로서 천도교 장흥교당의 사례가 있음.
- 등록문화재 중 한옥 형식의 근대 종교시설로서 성당 및 교회와는 구별되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어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있는 것으로 판단됨.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1930년대에 한옥 형식으로 지어진 근대 종교시설(천도교, 본채 목서명 布德 七十一年, 1930)로서 보존 상태가 양호하지는 않으나 지역에서 천도교의 역사와 독립운동 등에 대한 기억과 교육의 측면에서 국가등록문화재로서 등록할만한 가치가 있음.
- 건물의 전체 배치 및 공간 구성의 보존이 필요하고 일부 공간의 복원이 필요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시 명칭은 ‘천도교 임실교당’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 ○○○ >

1) 개요

- 현재 ‘천도교 임실교당’은 지난 1930년에서 1936년 사이에 임실읍 성가리 367에 건립되었으며 본채, 문간채, 바깥채로 구성되어 있음.
- 임실읍 내 주도로로 임실역에서 호국로를 연결하는 봉황로에 인접하고 있어 접근성이 좋으며, 주변은 주거지와 임야 등이 분포되어 있음.
- 1906년과 1908년 각각 임실 1교구와 2교구가 설립되었고, 1908년 두교구를 합하여 1916년 성가리 현재의 장소로 임실교구를 이전하였으며, 천도교 임실교구는 임실 지역에서 일제강점기 멸왜기도¹⁾ 운동 이후 전라도에서 가장 많은 고문 휴유증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한 교구였음.(9명중 3명이 임실군)
- 종교인과 보통학교 수준의 교육을 통해 근대인 육성을 목표로 하는 교리강습소가 1908년대 시작하여, 1912년 전라도에 17개의 강습소가 설치되었으며, 임실군에 2개의 강습소가 설치됨.
- 일제강점기 천도교 지방교구 및 천도교 청년회 지회의 설립 현황²⁾에서 1939년 당시 임실에 1개 교구가 설치되었고, 청년회 지회가 설치되었음.
- 1990년 이후 교세 축소로 현재 20여명의 신도가 활동하고 있음.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대지가 남북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으며, 남쪽으로 봉황로와 접하고 있음.
- 본채 평면형태는 ‘ㄱ’자 형의 평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쪽으로 ㄴ자형 평면은 문간채로 형성되면서 전체적으로 튼‘口’자 형의 배치를 이루고 있으며, 바깥채는 봉황로에 접해서 상가와 대문으로 구성.
- 본채 상량문에 “경오년(庚午年) 3월 25일 기둥을 세우고 동년 4월 17일 상량”한 기록을 통해 1930년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고, 바깥채와 문간채는 상량문에 “병자년(丙子年)에 상량”을 했다는 기록을 통해 1936년 건립하였음을 알 수 있음.
- 본채는 정면 5칸 측면 2칸의 몸채로 구성, 동쪽(우측)으로부터 뒷마루(퇴칸), 방, 대청(2칸), 큰방, 뒷마루로 구성되어 있고 큰방 앞으로 방 2칸과 부엌이 연결되어 있음. (각실에 구성과 용도는 교당으로 사용되어지면서 한칸반으로 구성된 부엌의 기능과 여기에 현재의 화장실 증축 등으로 변형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당초 살림집의 건립 목적이 아니면 부엌이 없이 방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 대청마루와 쪽마루가 연결되어 출입이 용이하고, 좌측 방 배면에 쪽마루가 설치되어 있어 부분적으로 채광 및 환기가 유리한 형태임.
- 대청마루의 특징은 정면과 배면에 창호가 설치되어져 있으며, 당초 연등천장으로 노출되어졌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현재는 기성무늬합판으로 마감되어져 있음.
- 본채 각 실에 외부 입면이 서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데 우측에 방은 머름하방위에 띠살무늬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방과 창방 사이에 소로가 설치되어 있음. 대청부분은 머름하방이 없이 하인방위에 정자살무늬의 3단으로 구성된 문이 설치가 되어있고, 그 위에 인방과 상인방, 그리고 상인방과 평방 사이에 유리창이 설치

1)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민족말살정책을 강행했던 시기였다. 천도교인은 이를 극복하고 일제를 패망하게 하기 위해 가장 종교인다운 독립운동을 계획하였다. 예산 출신으로 당시 제4대 교주였던 박인호를 중심으로 구과와 교인들은 왜적을 멸해달라는 기도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였다. 이는 천도교단이 꾸준히 전개하던 독립운동의 맥을 잇는 과정이었다.(정을경, 「일제강점기 충남지역 천도교단의 민족운동」, 충남대 박사논문, 2019.

2) 정을경, 「일제강점기 충남지역 천도교단의 민족운동」, 충남대 박사논문, 2019, p97쪽 재인용.

- 되어있으며 대청의 배면은 블록을 쌓아 이질적이고, 문의 크기와 배열이 일정하지 않아 사용되어 오면서 변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좌측에 위치한 방의 입면은 우측과 마찬가지로 같은 형태이지만 인방과 창방 사이에 소로는 없음.
- 지붕은 우진각 지붕에 홑처마로 구성되어져 있고 본래 기와마감에서 처마부분을 목부채를 덧대어 골슬레이트로 씌워 내달아놓음.
 - 바깥채는 정면 5칸의 몸체에 2칸이 돌출되어 날개부를 이루고 있으며, 건물 사이에 중문을 설치하여 문간채와 본채를 연결하고 있음
 - 평면은 방과 광 1칸, 부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엌은 벽체를 판벽으로 구성하였는데 방을 확장하면서 부엌이 줄어들음.
 - 지붕은 우진각 지붕의 목구조에 현재는 골슬레이트지붕으로 씌워져 있음.
 - 문간채는 민도리집으로 도로에 면한 1칸능 상가로 사용하고 있으며, 상가 안쪽에는 방과 부엌을 설치하고, 가운데 칸은 대문으로 옆 1칸은 문이 설치되어 있고 문간에서 출입이 이루어짐.
 - 지붕은 우진각 지붕의 목구조에 기와로 마감되어짐.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회침부분에 누수가 심해서 철제각관을 덧대어 칼라강판으로 덧 씌워진 상태이며, 그 외 서까래 부분도 누수로 인한 썩음 등 훼손이 확인됨.
본채의 대청부분은 방의 용도로 변용되면서 벽체가 시멘트 블록으로 교체되고, 당초 천정에 목조틀 위에 무늬합판으로 마감되어있음.
- 우물마루의 청판이 훼손되어 내려앉은 부분이 조사됨.
- 토벽의 회벽마감 등이 훼손되어진 부분이 조사됨.
- 북동쪽 모서리 기둥의 이탈과 좌굴현상이 확인됨.
- 1930년 건립 당시 본채와 문간채, 바깥채 등의 도면 등이 남아있지 않고, 사용되어지면서 증·개축이나 보수에 대한 이력이 남아 있지 않고, 입면의 구성이 다양한 마감 형태 등을 볼때 원형에 대한 변형과 훼손의 정도를 확인하기 어려움.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대상건축물은 임실군청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양호하고, 주변에 역사와 문화 공간이 인접하고 있어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여건이 양호함.
- 건립이후 건축물의 보수이력과 고증 자료가 부족하여 원형과 변형의 정도에 대한 확인이 어려우나, 구술 및 일부 옛 사진자료가 남아 있어 추후 지속적인 연구 및 자료 확보를 통해 보존관리 여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음.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건립이후 사용 연한의 경과 년수가 90여년으로, 건물의 내·외부와 주변 시설이 소유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가 양호하지 않음.
- 원형에 대한 수리 등에 이력이 없고, 배치 형태 외에 가옥에 건립 당시에 형태나 부채의 사용 및 변형 정도를 확인할 수 없음.
- 동학 및 천도교 순례지, 임실지역 3.1운동의 역사를 교육하고, 홍보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신청자료를 근거로 활용계획의 실현 가능성은 확인할 수 있으나, 향후 보존과 활용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음.

다. 기타사항

- 역사에 대한 학술적 자료가 제시되었으나, 신청대상 건축물의 보존과 수리 및 보수 등과 관련된 고증 자료의 발굴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논산에 위치한 국가등록문화재 제42호 구 강경성결교회예배당은 한옥교회의 희소성과 남녀가 분리된 예배공간을 갖고 있는 특징이 있으며, 장방형의 평면으로 구성되어 있음. 구 강경성결교회예배당의 경우 일제강점기 신사참배거부사건 등으로 종교와 민족적 박해를 받았던 장소로 그 역사적 사건을 통해 일제강점기 민족정신에 대한 역사적 의의가 있으며, 울진에 국가등록문화재 제286호로 등록된 울진 행곡교회는 울진 지역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로 울진 지역의 초기 한옥형 교회 건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음.
- 기 등록문화재와 비교·검토해 볼 때 천도교의 종교사적 의미와 역사적 사건이나 사실에 대한 기록을 위해 남겨질 가치가 있음.

7) 등록가치 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신청대상 건축물은 임실의 일제강점기 민족종교로서 역할과 종교사적 측면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 건축적 측면에서 기존 근대시기 건립된 대다수에 한옥의 교회나 성당건축과 비교하면 전통한옥의 평면이나 배치, 기술, 형태와 같은 시대성의 반영과 희소성에 가치가 있어 문화재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나, 건립 당시 건축적 특징(목부재의 공급이나 사용 등)과 이후 건축물의 보수 등, 변형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와 고증 자료가 미흡함.
- 따라서 본 신청 건에 대해서 등록문화재로 역사적 가치와 희소성에 대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나 건축적 측면에서 지속적인 고증과 자료 발굴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신청건에 대한 의견을 토대로 위원회에서 논의 후 결정될 필요가 있음.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 시 명칭은 천도교당으로 사용을 전제로 ‘천도교 임실교당’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 됨.

< 문화재전문위원 ○○○ >

1) 개요

- 동 시설은 전라북도 임실군에 위치한 ‘천도교’ 예배당 시설로서, 한옥 건물의 안채와 바깥채, 문간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상량문 기록에 의하면 안채는 1930년, 나머지 바깥채와 문간채는 1936년에 건립된 것으로 보임.
- 관련 기록 및 전언(傳言) 등에 따르면, 1873년 최시형으로부터 임실지역에 동학이 전래되었고 1905년 천도교로 명칭이 개칭된 이후, ‘천도교 임실교구’를 건립하여 포교활동을 이어 왔으며, 1930년에 현재의 위치에 교당(안채)을 최초 건립한 이후, 1936년 시설(바깥채와 문간채)을 증축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음.

- 천도교 임실교구는 1919년 3월12일 임실장터의 만세운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하였고, 이로 인해 당시 교구장을 지냈던 김영원과 한영태 등이 독립유공자로 추서되었다고 함. 이밖에, 해방 후 한때 서울에 위치하였던 ‘천도교 중앙교회’가 임실교구로 옮겨지게 되어 잠시 동안 중앙교회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음.
- 동 시설은 1996년까지 교당의 기능으로만 이용되었으나, 1987년경에 교당의 기능과 함께 교당 관리인이 살림집으로 임대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변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또한 당시 교세의 축소와 무관심 속에 한동안 방치되어 현재 노후화 및 퇴락화 등이 상당수 진행된 상태임.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교당 시설은 한옥 건물로 안채와 바깥채, 문간채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채와 바깥채는 가운데 마당을 두고 소위, 툇자형의 배치 형태를 보이고, 문간채는 바깥채 남쪽으로 대로변에 면해 위치하고 있음.
- 각각의 채는 모두 ㄱ자형의 평면을 취하고 있는데,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이들 중 안채는 교인들의 집회 장소, 바깥채는 숙식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나, 이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는 없음.
- 먼저, 안채의 경우에는 부엌-방1-방2-방3(본래 대청마루에서 방으로 개조)-상방 등이 ㄱ자형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지붕가구는 2고주5량의 우진각지붕으로 짜여져 있음. 각 실의 전면과 배면쪽에는 뒷마루를 설치하였는데, 관계자 증언에 의하면 방과 대청 공간에서는 교리 강습의 장소, 뒷마루에는 교리 연습의 공간으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실 관계 역시 확인 할 수 없음.
- 특히, ㄱ자형의 평면구성을 통해 남·녀의 공간을 구분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 역시 구체적인 자료는 없음. 다만, 이와 유사한 평면구성은 1908년 한옥 교회로 건립된 ‘김제 금산교회(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136호)’에서 살펴볼 수 있음.
- 창호는 전반적으로 띠살 창호를 설치하였으나, 방3의 경우에는 정자살 창호를 사용하고 상부에 한해 卍자 형태의 창살로 구획한 것이 특징인데, 이와 같은 창호 패턴이 천도교의 의식과 관련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음.
- 또한, 방3의 창호 상부에는 인방을 설치하고 주심도리(납도리)와의 사이에는 회벽이 아닌 미서기 유리 창호를 설치하여 개·폐가 가능하도록 하였는데, 과거 대청마루로 사용될 당시 환기, 통풍 등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근대기 한옥에서 보여지는 시대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음.
- 바깥채는 교인들의 숙박 장소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방1-방2-광-대문-방3-방4-부엌 등의 각 실이 ㄱ자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간에 판문이 달려 있는 것이 흔히, 고택에서 볼 수 있는 사랑채와 연결된 중문채의 모습을 취하고 있음.
- 대문간채는 바깥채 남쪽으로 대로에 면해 위치하고 있으며, 대문을 중심으로 좌우에 상가와 방, 그리고 상가 뒤편으로 2칸의 방이 달려 있어 전체적으로는 ㄱ자형의 형태를 보이고 있음.
- 자료의 한계로 인해, 안채 및 바깥채, 대문간채의 정확한 기능 및 공간 활용 등을 알 수 없어 처음부터 한옥 교당으로 건립된 것인지, 아니면 주거용 한옥을 매입하여 교당으로 사용한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 할 수 없음.

- 다만, 각 채의 형태(ㄱ자형) 및 배치 양상 등으로 보아서는 임실지역의 일반적인 민가의 형태와는 다르며, 또한 안채의 상량 목서를 ‘布德 七十一年’ 즉, 천도교 연호로 기록한 것으로 보아, 최소한 안채는 최초 천도교 교당으로 건립되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과거 기록사진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원형보존 상태 및 변형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음. 다만,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1987년경에 교당 관리인이 살림집으로 임대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변형(대청마루→방, 뒷마루 철거 등)이 있었다고 함.
- 1996년까지 교당의 기능으로 이용되었으나, 이후 교세의 축소와 무관심 속에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어 노후화 및 퇴락화 등이 상당수 진행된 상태임.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교당 측과 관할 지자체에서는 시대적·지역적 산물로 보존,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며, 또한 천도교 임실교구사를 알리는 역사적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함.
-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훼손 및 멸실에 대한 우려가 적어 보이며, 등록문화재로 등록될 경우,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는 판단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관할 지자체에서는 동학순례 및 향후, 임실읍 상성마을 문화마을 조성과의 연계하여 문화유산으로서 활용, 교육 및 역사현장으로 보호해 나갈 계획임.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임실지역의 3·1만세운동을 기념하고 동학 및 천도교와 관련된 역사 교육의 시설로서 폭 넓게 활용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임.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천도교와 관련된 시설이 문화유산으로 보존, 관리되는 곳으로는 ‘천도교 중앙대교당(서울시유형문화재 제36호)’, ‘장흥 천도교당(전라남도기념물 제218호)’, ‘우이동 봉황각(서울시유형문화재 제2호)’ 등이 있으나, 근대문화유산으로서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사례는 없음.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한옥을 이용한 천도교 교당 시설이라는 측면과 함께, 여러 채의 한옥을 기능별(집회, 숙박 등)로 사용한 점과 안채의 상량 목서를 천도교 연호(‘布德 七十一年’)로 기록한 것 등은 희소성 측면에서 국가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공간 활용 및 건축 의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사료가 부족하다는 것이 한계라 할 수 있음.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구 임실 천도교당」

5. 「천도교 서산교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서산시 소재 「천도교 서산교구」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천도교 서산교구」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18.10.16.)에 따라 관계 전문가 현지조사('20.4.9.)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천도교 서산교구장
- (2) 대상문화재명 : 천도교 서산교구 (구 천도교 서산종리원)
 - 소재지 : 충청남도 서산시 명륜2길 21(읍내동 360)
 - 소유자 : (재)천도교유지재단(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57)
 - 수량 : 1동
 - 면적 : 153.79㎡(건축물대장)
 - 건립시기 : 1907년(신청) / 1921년(추정)
 - 구조 : 목조, 함석지붕
-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4) 추진경과
 - ('18.10.16.) : 문화재 등록 신청(충청남도→문화재청)
 - ('20.4.9.) :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실시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문화재전문위원 ○○○('20.4.9.)
 - 1920년대 목조 건축 형식의 근대 종교시설로서 천도교의 역사와 독립운동 등에 대한 지역의 기억과 교육측면에서 의미는 있음
 - 화재로 인한 리모델링 등으로 원형의 많은 부분이 변형되어 국가등록문화재로서 등록가치는 낮은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 ○○○(‘20.4.9.)

- 2012년 방화로 인해 크게 훼손되었으며, 이후 보수공사를 거쳐 현재 외부와 내부가 본래의 구조와 공간 구분, 마감, 창문 등 원형과 보존 상태의 비교와 확인이 어렵고, 훼손 정도와 복구 내용에 대해 고증자료가 없음.
- 보존 대상의 진정성과 건축적 가치에 대한 판단 근거가 미흡하여 문화재 등록가치가 낮아 문화재 등록이 불가하다고 생각됨.

○ 문화재전문위원 ○○○(‘20.4.9.)

- 현재 교당 건물 상태로는 건축 당시의 건축적 상황을 파악할 수 없고, 문화유산으로서의 진정성을 파악할 수 없어 국가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움
- 장소성 측면에서의 역사적 가치는 국가보훈처에서 지정한 현충시설로서 충분히 보존, 관리될 수 있다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2012년 화재로 지붕, 내외벽, 마감재 등 많은 부분 원형이 변형되어 문화재 등록 가치가 미흡함

○ 출석 11명 / 부결 11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천도교 서산교구 (구) 천도교 서산종리원
2. 용 도 : (현) 종교시설 (원) 종교시설
3. 소재지 : 충청남도 서산시 명륜2길 21(읍내동 360)
4. 소유자 : 천도교 유지재단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57)
5. 시설물 개요
 - 구조 : 목조, 함석지붕
 - 제작년도 : 1921년(추정)
 - 수량 및 면적 : 1동, 면적 153.79㎡(건축물 대장), (대지면적 588㎡)
 - 층수(높이) : 지상 1층

6. 조사자 의견('20.4.9.)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1907년 5월 19일 서산에 천도교구가 설치되었고 초대 교구장으로 장세화가 취임함. 1921년 이종만 교구장이 교인들의 성금을 모아 현재의 위치에 약 37평 규모의 건물을 지어 교당을 마련함.
- 일제강점기 동안 서산지방에서의 신간회 활동이 주로 천도교 서산교구인 종리원(宗理院)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1921년 신축된 천도교 서산교구는 장방형의 목조 건축물로서 과거 사진을 통해 정면 7칸으로 구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됨.
- 우진각 지붕 건물로 함석으로 마감됨. 건물 중앙에 미서기문의 주출입구를 두었고 주출입구 좌우 각 2칸에는 미서기창을 두었고, 좌우 끝 부분은 여단이 문을 두어 방을 꾸몄던 것으로 추정됨.
- 주출입구를 중심으로 한 내부 공간은 집회를 위한 넓은 공간과 사무실로 구성하였던 것으로 추정됨.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2012년 화재로 인한 리모델링으로 지붕이 교체되었고, 건축물의 내외벽 마감재, 바닥 마감재 등이 변형된 것으로 판단됨.
- 건축물의 목구조 및 지붕 구조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원형의 보존 및 변형 현황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움.
- 내부 공간 구성도 변형되어 원형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움.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주변의 개발압력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상태에서의 보존관리는 지자체 및 천도교 측의 보존 의지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지역에서 동학 및 천도교, 3.1운동의 역사를 교육, 홍보하는 공간과 천도교 서산교구의 종교 활동 공간으로의 활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활용계획의 전체적인 방향 및 목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지역의 근대사에서 중요한 거점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교육하고 홍보하는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있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목조 건축물 형식의 근대 종교시설이나 변형이 많고 그 특징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워 국가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1920년대에 목조 건축 형식으로 지어진 근대 종교시설로서 지역에서 천도교의 역사와 독립운동 등에 대한 기억과 교육의 측면에서 의미를 갖고 있으나 많은 부분 변형되어 국가등록문화재로서 등록할만한 가치는 낮은 것으로 판단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시 명칭은 '천도교 서산종리원'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서산지역의 천도교 전파는 1880년 말경 지곡면 장형2리에 거주하던 최형순이 종학 제2대교주 최시형으로부터 교화를 받고 이로부터 전수됨
- 지속적으로 교세가 늘어나면서 1894년 동학농민운동을 계기로 신도수가 증가하고 동학농민운동을 주도함
- 1907년 5월 서산 읍내도 360번지(명륜2길 21) 현재에 위치에 37평의 합석지붕의 건물을 지어 교당을 마련하고 서산지방의 포덕에 힘씀
- 천도교 서산교구 회관은 '종리원(宗理院)'으로 불려졌으며, 당신의 언론자료에 의하면 본연의 종교 기능만 한 것이 아니라 서산지방의 신문화운동의 산실 역할을 해왔으며 무엇보다도 일제강점기에 많은 회원의 항일단체라 하는 신간회 서산지방의 활동이 종리원을 통해서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음.
- 2017년 신간회 창립 90주년을 맞아 서산교구 대지 내 신간회 표지석을 세우는 등 동학운동과 항일운동에 중요한 유적지로 자리매김 함.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신청대상 건물은 서산시청과 서산관아문에서 약 4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명륜2길에 접하고 있음.
- 건물은 정방형에 가까운 부정형의 대지에 위치하고 있고, 남북방향으로 긴 장방형 평면에 근대한옥 건물로, 대지 출입은 북쪽에 면하는 명륜2길을 통해 진입함.
- 대지의 동쪽으로 마당이 위치하고 있으나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고, 마당을 통 지나서 대지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의 전면 중앙에 미닫이문(PVC유리문)을 통해 실내로 진입함.
- 출입구를 통해서 건물 중앙에 강당으로 바로 진입하며, 강당의 좌우측에 방이 위치하고 좌측편으로 주방이 설치되어 있음
- 도로에서 진입하는 진입부에는 천도교 서산종리원(서산교구)에 대한 현충시설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마당에서 건물로 진입하는 진입부 좌측으로 국기계양대와 신간회 활동에 대한 표지석이 설치되어 있음
- 2012년 화재 이전 사진자료(정면)에 참고하면 전면 7칸, 측면 2칸(추정) 규모의 근대한옥 건물로 중앙에 미닫이문과 좌우측 마지막 칸에 세살 분합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사이 칸에는 격자유리창으로 구성된 미닫이창문이 설치되어 있고, 창문의 위·아래 인방을 두고 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2012년 2월 24일 방화로 인해 건물의 일부가 크게 훼손되었으며, 이후 보수공사(2012년 10월)를 거쳐 현재에 모습을 갖추.
- 현재 종리원은 외부와 내부가 모두 리모델링공사로 원형에 보존 정도와 형태를 확인할 수 없으며, 외벽은 비닐사이딩으로 변형되어 있고, 창호는 전체가 PVC창호로 변경됨.
- 내부는 인테리어공사로 벽지와 몰딩 마감으로 처리되어 있고, 본래의 내부구조와 공간 구분, 마감 등 원형의 모습을 확인하기 어려움.
- 창호 등 현재의 외형은 화재 이전에 형태와 많은 변형이 있고, 창문의 크기도 내부 공간과 용도 변화에 따라 사진자료에서 확인되는 원형의 모습과는 확연하게 변형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음.(내부 구조체가 화재 후 보수 과정에서 변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관계자 구술에 의하면 목구조 부의 일부는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대부분 화재 이후 많은 변형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 현재 내부 공간은 강당과 방, 주방으로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본래의 공간 구조를 추정하기 어려운 상태임.
- 건축물대장에 작성된 준공년도가 1953년으로 기재되어 있어 확인이 필요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천도교 서산교구는 서산지역에서 동학농민운동과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을 이끌어온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임
- 천도교 서산교구는 교구차원에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보존·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함.
- 그러나 신청대상 건물에 원형과 보존 상태의 비교와 확인이 어렵고, 2012년 화재 이후 훼손 정도와 복구 내용에 대해 고증자료가 없으며, 건립과 이후 종리원 건물에 대한 이력이나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음.
- 따라서 신청대상 건물을 대상으로 보존관리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신청대상 건물에 대한 원형보존과 변형에 정도가 크며, 보존 대상의 진정성과 건축적 가치에 대한 판단 근거가 미흡하여 문화재 등록을 통해서 보존관리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음.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문화재적 가치에 대한 고증이 어렵고, 현황조사를 토대로 원형 보존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여 문화재로서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함.

다. 기타사항

- 천도교 서산교구(종리원)은 서산지역에 신앙적 전파와 민족정신을 함양과 교육, 항일독립운동 등과 관련하여 역사적 의미를 갖는 장소성에 의미를 부여하고 지역 차원에 활용계획이 필요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통영황리공소(국가등록문화재 제734호)

- 2018년 10월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근대한옥 공소로 규모는 1개동으로 연면적 196㎡이며 1934년 건립됨.
- 황리공소는 지역사회에 천주교 토착화와 한옥의 변화과정을 살펴볼 수 있으며,
- 당초 종교시설로 건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원형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 통영지역의 종교사적 의미와 함께 근대한옥 건축의 특징이 잘 남아 있어 건축사적 가치가 있음.

- 신청대상 건물은 종교의 지역토착화와 전파에 있어서 초기 거점공간으로서 장소성에 대한 가치의 비교·검토가 가능하지만, 건축적 차원에서 신청건물은 원형의 훼손이나 변형 부분이 많고, 원형에 대한 고증이 미흡하여 건축적 가치 평가가 어려움.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문화재 신청대상 건물의 건립이후 화재 등으로 인해 구조와 재료의 변형이 많고, 현재 남아 있는 대상 건물에 대한 조사 결과 건축사적 의미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신청대상인 천도교 서산교구 회관은 문화재 등록가치가 낮아 문화재 등록이 불가하다 사료됨.

8) 기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시 명칭은 ‘천도교 서산교구(종리원)’가 적절함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동 시설은 충청남도 서산시에 위치한 천도교 중앙총부 유지재단 소속 ‘천도교 서산교구’의 교당으로 현재도 동일한 기능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임.
- 서산지방에 천도교가 전래된 것은 1880년경 최형순이라는 인물이 동학 제2대 교주인 최시형을 만나 교화를 받게 되면서부터이며, 이후 1907년 5월에 천도교 서산교구가 설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1918년에 교구의 명칭을 ‘서산종리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맞춰 제8대 교구장인 이종만이 1921년 8월 현재의 위치에 당시 교인들의 성금을 모아서 교당을 증축 및 보수하였다고 함. 이후 1928년 4월에는 이곳에서 ‘신간회 서산지회’를 창립하기도 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08년 독립기념관(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에서 실시한 ‘항일 독립운동 및 국가수호사적지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는 동 교당에 대해 “당시 천도교 서산종리원은 신간회 서산지회 창립지로 역사적 의미가 크고 현재 원형이 보존되어 있으며, 천도교 서산교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다만, 현재의 교당 건물은 2012년 원인 불명의 화재가 있었고, 그 후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건물의 외부 형태 및 내부 공간구성 등에 적지 않은 변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2017년에는 신간회 창립 90주년을 맞아 ‘신간회기념사업회’에서 천도교 서산교구에 신간회 표지석을 현재의 교당 정면에 세웠으며, 국가보훈처에서 현충시설로 지정하기도 하였음.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교당은 부정형의 대지 안에 一자형으로 길게 배치되어 있으며, 건물의 외관 및 형태는 2012년 화재 이후, 리모델링 과정에서 현재와 같이 샌드위치사이딩판넬의 외벽면과 성글 지붕로 교체되었고, 내부공간 역시 현대식으로 개조되어 원형이라고 판단할 수 구조체는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임.
- 관계자 증언에 의하면, 화재로 건물 일부만 피해가 있었으나 경관 개선 차원에서 본래의 목조 건물 외벽에 현재와 같은 마감재를 덧붙였다고 하나, 현장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음. 다만, 과거 기록사진에 의하면, 정면7칸 규모의 우진각 함석지붕을 올린 목조건축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1921년 제8대 교구장 이종만이 증축, 보수한 이후의 것으로 판단됨.
- 이와 달리, 교구측에서 소장하고 있는 수기(手記)로 작성된 자료에는 ‘五間○棟’ 및 ‘朝鮮建平家’, ‘木造草葺’ 등이 기록되어 있고, 또한 교당으로 보이는 단순하게 작도한 一자형 건물 평면에 ‘談教堂’ 및 ‘事務室’, ‘宿直室’, ‘廚’ 등의 실명을 기입하고 있음. 또한, 건물의 소재지가 ‘瑞山郡 瑞寧面’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1917년에 오늘날의 서산면으로 변경된 것을 감안하면, 동 건물은 최소 이 시점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또한,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동 자료는 일종의 토지 매매계약서로서 1907년 현재의 교당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함. 따라서 상술한 내용의 선·후 관계로 볼 때, 제8대 교구장 이종만이 1921년 현재의 위치에 교당을 세우기 이전에 이미 초창(初創)으로 추정되는 교당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파악할 수 없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화재 이후, 리모델링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어 내·외부의 형태 및 공간구성 등에 대한 원형보존 상태 및 변형 여부를 전혀 파악할 수 없음. 다만,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내·외부 마감재 및 실내 일부 공간 증축 등을 제외한 구조체 등에서의 큰 변화는 없었다고 하나, 현 상태에서 확인은 어려워 보임.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관할 지자체에서는 시대적·지역적 산물로 보존,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며, 또한 교구측에서도 교회사적 이외에 신간회 등의 역사적 장소로서 보존하고자 함.
- 국가보훈처에서 현충시설로 지정된 만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훼손 및 멸실에 대한 우려는 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신간회 등 항일독립운동 사적지로서 그 장소가 분명하므로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임.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지역의 천도교 역사와 함께 항일독립운동 교육의 시설로서 폭 넓게 활용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임.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천도교와 관련된 시설이 문화유산으로 보존, 관리되는 곳으로는 ‘천도교 중앙대교당(서울시유형문화재 제36호)’, ‘장흥 천도교당(전라남도기념물 제218호)’, ‘우이동 봉황각(서울시유형문화재 제2호)’ 등이 있으나, 근대문화유산으로서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사례는 없음.
- 다만, 동 교당의 경우 화재 이후 새롭게 리모델링되는 과정에서 원형이 심하게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가치를 평가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음.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현재의 교당 건물 상태로는 전반적인 건축적 상황 등을 이해할 수 없고 또한, 문화유산으로서의 진정성 등을 전혀 파악할 수 없어 국가등록문화재로서의 문화재적 가치를 판단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다만, 장소성 측면에서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는 국가보훈처에서 지정한 현충시설로서 그 역사성과 의미가 충분히 보존, 관리될 수 있다고 판단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천도교 서산교당」

6. 「연세대학교 4월혁명연구반 수집자료」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 「연세대학교 4월혁명연구반 수집자료」의 국가등록 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연세대학교 4월혁명연구반 수집자료」는 4·19혁명 분야 문화재 관련 지자체 및 유관기관 유물 추천(‘20.1월), 등록 추진 자문회의(‘20.1.20.) 등을 통하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3.11.)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연세대학교 총장
- (2) 대상문화재

문화재명	수량	규격	제작년대	소유자	소재지
4·19혁명 구술 조사 설문지	9건 195점	36.7cm × 26.5cm 등	1960년	연세대학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박물관
4·19혁명 계엄 사령부 포고문 및 공고문, 훈시문, 담화문	19건 20점	270cm × 403cm 등	1960년		

-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문화재 등록 명칭, 가지번호 부여 검토의견 】

- 2가지 가지번호 부여하되, 명칭은 다음과 같음
 - 연세대학교 4월혁명연구반 수집 자료(4·19혁명 참여자 구술조사서)
 - 연세대학교 4월혁명연구반 수집 자료(4·19혁명 계엄 포고문)

- (4) 추진경과

- (‘20.1월) : 관련 지자체 및 유관기관을 통한 유물 추천(179건)
- (‘20.1.20.) : 4·19혁명 분야 문화재 등록 추진 자문회의(7건)
- (‘20.3.11.)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문화재위원 ○○○(‘20.3.11.)

- 4·19혁명 참여자 구술 조사서 및 계엄 포고문’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이 4·19혁명이 일어나자 이를 후세를 위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하여 ‘4월혁명연구반’을 결성하고 수집한 자료임.
- 4·19혁명 참여자 구술 조사서는 2.28~4.26까지의 데모 사항, 부상자 실태, 목격자, 사후 수습 사항 등을 조사한 조사서임. 해당 유물은 4·19 당시의 상황을 참여한 개인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귀중한 기록자료임.
- 4·19혁명 계엄 포고문은 ‘4월혁명연구반’에서 4.19~5.10까지 계엄사령부에서 나온 포고문·공고문·훈시문·담화문을 수집한 자료로, 4·19 당시의 상황을 계엄사령부의 포고문을 통해 알 수 있도록 하는 귀중한 자료임.

○ ○○○○○○ ○○ ○○○(‘20.3.11.)

- 4·19혁명 구술조사서는 연세대학교 ‘4월혁명연구반’에서 부상자·데모자·교수단·현장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4월 혁명에 대한 구술조사를 실시한 기록임. 시위 참여자들의 구체성·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조사 대상별로 설문내용이 구체적·사실적이므로 계층별 정치의식과 사회의식을 범주화 할 수 있어 사료적 가치가 높음.
- 4·19혁명 계엄포고문은 연세대학교 ‘4월혁명연구반’에서 관련 기관에 의뢰하여 수집한 당시 비상계엄, 포고문, 훈시문 등을 포함하는 자료임. 4월 혁명기 사회상과 국가의 대국민 통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역사적 가치가 있음

○ ○○○○○○ ○○ ○○○(‘20.3.11.)

- 구술조사서 및 계엄포고문은 4·19혁명 직후 연세대학교 ‘4월혁명연구반’이 수집한 계엄포고문 원자료들과 서울과 주요 지방을 대상으로 한 조사서 등으로 구성된 자료임. 4·19혁명에 참여한 주체들과 목격자 등을 포함한 대상들의 직접 진술을 기초로 하여 그들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1차 자료라는 점에서 문화재 등록 가치가 있는 자료임. 또한 현재 포고문이 거의 완벽한 상태로 보관되어 있다는 점, 조사 기록은 당사자들이 직접 조사에 응하여 작성한 당대의 생생한 기록이라는 점 등에서도 문화재 등록 가치가 있음.

마.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4.19혁명 구술 조사 설문지는 문화재등록을 추진하고 4.19혁명 계엄 사령부 포고문 및 공고문, 훈시문, 담화문은 추가조사 후 재검토

○ 출석 11명 / 조건부가결 11명

<붙임>

「연세대학교 4월혁명연구반 수집자료」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연세대학교 4월혁명연구반 수집자료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박물관
3. 소유자 : 연세대학교
4. 조사자 의견('20.3.11.)

<문화재위원 ○○○>

1) 현상

가) 4·19혁명 참여자 구술 조사서

- 4.19 혁명 당시 시위에 관한 내용을 조사한 조사서로, 당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인 김달중, 안병준 등이 중심이 되어 '4월 혁명 연구반'을 결성하고 2.28~4.26.까지의 상황을 서울, 대구, 마산, 부산에서 조사한 조사서임. 조사 내용은 데모 사항, 부상자 실태, 연행자, 사후 수습 사항, 목격자, 교수 데모 실태 등이며, 각각 주제에 맞추어 설문 조사지를 만들어 직접 기록하게 하거나 면담을 하면서 기록한 것임.
- 조사서 작성 이후 연세대학교 도서관 귀중본실에 보존되어 오다가, 2010년 연세대학교 박물관으로 이관되어 현재에 이름.
- 보존상태는 매우 양호하며 잘 분류되어 있으며 2010년 이후 연구 등을 위한 활용에 제공되어 왔으나 나 아직 그 내용이 상세히 밝혀지지 않았음.

나) 4·19혁명 계엄 포고문

- 4.19 혁명 당시 4월 19일부터 5월 10일까지 계엄사령부에서 나온 포고문 13점, 훈시문 1점, 공고문 3점, 담화문 2점임. 당시 계엄의 변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임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조직한 '4월 혁명 연구반'에서 당시에 배포된 포고문을 수집한 것으로 현재 연세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음.
- 모두 인쇄물로 보존 상태는 매우 양호함.

2) 내용 및 특징

가) 4·19혁명 참여자 구술 조사서

(1) 자료의 배경

- 1960년 4월 혁명이 진행 중일 때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시위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한 것임. 이후 ‘4월 혁명 연구반’, ‘대학원 4.18-4.26 사태 조사위원회’ 등의 명의로 활동을 하여 모은 자료임. 당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4학년이던 김달중과 안병준이 4.19가 일어나자 이를 후세를 위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하여 4월 혁명에 대한 자료와 기록 전반을 수집하고 정리한 것임.
- 그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4.19 시위가 일어난 뒤이자 이승만 대통령이 해야 하기 이전의 계엄상태인 1960년 4월 23일경 ‘4월혁명 연구반’을 만들. 4월 혁명 연구반의 활동은 당시 한미재단 단장이자 호러스 언더우드의 친동생인 리처드 언더우드의 제의로 시작되었음. 그는 4.19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김달중에게 4월 혁명 관련 자료의 수집을 제안하였고, 이에 김달중과 안병준이 자료를 수집하게 됨.
- 초기에는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4.18과 4.19 관련 자료를 모았으며, 연세대학교 기독교학생회(SCA) 회장직에 있던 김달중이 YMCA 나 기독교학생회 조직, 연세대와 서울대, 고려대 3개 대학 정외과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을 조사하여 작성함. 나중에는 범위를 확대해서 관계 기관을 포함하고, 대구와 마산 등 지방에 가서 2·28, 3·15 등에 관련된 인물들을 인터뷰하여 자료를 수집함. 학생뿐 아니라 시위 주동자, 부상자, 일반인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 및 면담을 실시함.
- 이 활동에 필요한 자금은 처음에는 한미재단의 지원으로 이루어짐. 그러나 이것이 한미재단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시작된 것이어서 중간에 문제가 되고 지원이 끊기게 됨. 이에 김하태 연세대 대학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대학원 4.18-4.26 사태 조사위원회’ 이름으로 프로젝트 작업을 계속했으며, 김하태 원장과 홍이섭 교수, 조승순 박사가 4월혁명연구반의 지도교수를 맡아 진행함.
- 자료 수집 작업은 김달중·안병준 두 사람이 진행했으나, 나중에 김달중이 7월과 8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그와 가나의 수도 아크라에서 각각 열린 세계기독교 학생연맹[WSCF] 세계대회와 세계청년회[WAY] 제8차 이사회 등의 국제회의에 한국 학생 대표로 참석하게 되자, 마지막 정리 단계에서 정외과 동급생인 박충석이 가세하여 정리를 도움.
- 이 자료는 대외에 유출될 것을 염려하여 가능한 적은 인원이 참여하였으며, 후세의 학자들에게 자료가 될 수 있도록 10년 동안 비공개로 하고 김달중 안병준 두 사람은 자신들의 연구 자료로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 2010년까지 이 자료를 이용한 연구, 강연, 자문, 토론 등에 일체 응하지 않았다고 함. 당시 미국 대사관의 문정관인 그레고리 헨더슨이 자료를 한국에 두는 것보다 미국에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집요하게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연세대 도서관 희귀자료실에 봉인해서 보관해 옴.

- 연세대학교 도서관 귀중본실에 보관되던 이 자료를 1998년 연세대학교 기록 보존소가 설립되자 이관되었으며, 2010년 박물관과 통합 후 현재 박물관 학예팀에서 관리하고 있음.
- 김달중, 안병준 두 사람은 2010년 11월 11일 연세대학교 박물관에서 진행한 4.19 혁명 관련 구술 아카이브에서 이러한 내용을 구술함. 이 내용은 현재 오픈 아카이브 4.19 구술 아카이브 서울 편에서 볼 수 있음.
(<https://archives.kdemo.or.kr/oral-archives/view/81>)
- 2010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출간한 『4월혁명 사료총집』에 수록됨.

(2) 자료의 내용

- 4월혁명연구반 수집 자료 중 ‘4.19 혁명 참여자 구술 조사서’ 자료의 내용은 4.19 데모 목격자 및 인근 주민의 조사서(서울 지방), 교수 데모 실태 조사서(서울 지방), 사후 수습 사항 조사서(서울 지방), 연행자 및 사후 수습 사항 조사서(대구, 부산, 마산), 연행자 조사서(서울 지방), 부상자 실태 조사서(서울 지방), 부상자 실태 조사서(대구, 부산, 마산), 데모 사항 조사서(서울 지방), 데모 사항 조사서(대구, 부산, 마산) 등 9건으로 구성되어 있음. 각 문건의 명칭 및 수량은 아래 표와 같으며, 조사서는 총 186점임.

연번	유물 명칭	제작 년도	수량(건,점)
1	데모사항 조사서(서울 지방)	1960	18
2	데모사항 조사서(대구 부산 마산)	1960	10
3	부상자 실태 조사서(서울 지방)	1960	101
4	부상자 실태 조사서(대구 부산 마산)	1960	13
5	연행자 조사서(서울 지방)	1960	6
6	사후 수습 사항 조사서(서울 지방)	1960	5
7	연행자 및 사후 수습 사항 조사서(대구 부산 마산)	1960	5
8	4.19 데모 목격자 및 인근주민의 조사서(서울 지방)	1960	26
9	교수 데모 실태 조사서(서울 지방)	1960	2
계			186

- 조사서는 문건별로 편철되어 있으며, 각 문건마다 표지를 작성함. 조사서 형식은 내용에 따라 상이함.

(가) 데모사항 조사서 : 14쪽으로 가장 자세하며, 서울 지방에 18명, 대구·부산·마산에 10명의 조사서를 받음. 서울은 주요 대학의 대표자들이, 지방은 고등학교 대표자가 주로 작성함. 항목은 다음과 같음.

- ① 기본 인적 사항(성명, 나이, 직업),

- ② 계획 발설 시기, 장소, 발설 인물, 데모를 하게 된 동기 및 태도, 이유, 계획 시기, 참가자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항목을 설정함. 참가자들의 발언 내용도 기록함.
- ③ 데모 시작 시간 및 장소, 출발하는 방법과 모양, 준비물(프랑카드, 구호, 결의문, 호소문, 기타 등 상세 항목 설정 및 내용 적시), 데모대의 구성, 학교 측과의 관계, 계획 코스 및 행사, 구호, 행렬 구성, 저지에 대한 대비.
- ④ 진행코스는 시간과 장소, 사건, 구호 및 노래, 뼈라의 종류 등 내용을 표로 구성하여 상세히 기재하도록 함. 오래 머문 곳의 장소와 시간, 사건과 주동 인물 등도 기록하도록 하고 타 데모대와의 관계도 만난 장소, 시간, 단체나 인물, 규모, 잔류 여부, 헤어질 장소와 시기 항목으로 구성함. 돌아올 때의 코스를 표로 기록하도록 함.
- ⑤ 해산시 도착 시간과 장소, 지시자 성명 및 발언 내용 등 항목을 설정했고 해산 방법과 그 모양 항목을 설정함.
- ⑥ 집에 돌아올 때의 코스, 사건 및 집에서 일어난 일과, 추후 연락 및 동향도 기록하도록 함. 해산 시간과 장소 등 데모의 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함. 해산 이후에도 집에 올 때까지의 코스와 중도에 벌어진 사건, 연락 및 동향 항목이 있음.
- ⑦ 결과로는 희생자 및 부상자, 연행자, 행방불명자 등을 기록하도록 함. 각 인물당 성명, 소속, 데모대에서의 위치, 평소 성격, 가정환경 등 항목이 있음.

(나) 부상자 실태 조사서 : 부상자들의 상황을 파악하는 조사서임. 서울 101명, 지방 13명으로 대상 인원이 가장 많음. 조사서는 2쪽으로 항목은 다음과 같음.

- ① 기본 인적 사항 : 성명, 연령, 성별, 현주소, 본적, 입원 장소, 직업, 군대 복무 경험
- ② 가정 환경, 가족 상황, 약혼 및 결혼 여부, 학교 환경
- ③ 정치에 대한 관심, 선거 경험 유무 등
- ④ 부상 경로 : 장소, 시간, 당시의 목격한 모습, 부상 직전까지의 경로, 부상당한 물건, 당시의 심정, 병원에서의 심정, 현재의 심정
- ⑤ 데모 이전의 모습, 다른 이익 단체와의 관계 여부 등
- ⑥ 데모할 때 본인의 주장, 구호, 데모 당시 위치
- ⑦ 부상 실태, 위문객의 실태, 간호자
- ⑧ 사태에 대한 본인의 소감
- ⑨ 자료 : 구호, 프랑카드, 뼈라, 자료 소지 경위
- ⑩ 데모 당일 만난 경찰관에 대한 진술
- ⑪ 기타, 참고 자료

(다) 연행자 조사서 : 연행되었던 사람들의 상황에 대한 조사서임. 서울 6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조사지는 2쪽으로 항목은 다음과 같음.

- ① 인적 사항 : 성명, 연령, 성별, 현주소, 본적, 직업, 군대 복무 상황, 종교
- ② 연행 시일, 장소, 당시의 행위, 경찰이 요구한 행위, 붙잡혀간 코스
- ③ 연행 뒤 유치된 장소, 2차로 옮겨진 장소, 연행한 사람의 신분, 문초 사항, 고문 사항, 고문에 대한 대답
- ④ 연행된 후의 일지
- ⑤ 석방 이유, 경로, 이후 문의객, 손해 사항
- ⑥ 연행도중과 고문시의 감정, 현재의 감정
- ⑦ 손해배상 청구 여부
- ⑧ 연행 도중 경찰서 광경, 같이 연행된 사람
- ⑨ 기타 중요 사항, 참고 자료

(라) 사후 수습사항 조사서 : 4.19와 4.26 이후 어떤 방식으로 사태를 수습했는가에 관한 조사서임. 서울에서 5건, 지방에서 5건 조사함. 조사서는 5쪽으로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음.

- ① 기본 사항 : 성명, 신분, 생년월일, 학생운동경력, 자기의 임무, 희망, 해당 일자
- ② 당일 수습 개요 : 시간, 항목, 결과, 소망을 약시
- ③ 집회 사항 : 시작과 장소, 참석자의 성명과 소속, 발언 내용, 토의 사항, 결의 사항, 조직 및 연락 보고
- ④ 중요 행사 : 시간, 면담자 명단, 면담자 직위, 면담 내용, 타협 및 결의 사항
- ⑤ 자기의 임무 : 임무, 발언 내용, 수습
- ⑥ 연락, 보고, 차기 계획
- ⑦ 소감 및 기타
- ⑧ 이 밖의 중요 기사
- ⑨ 참고물 : 결의사항, 뼈라, 결의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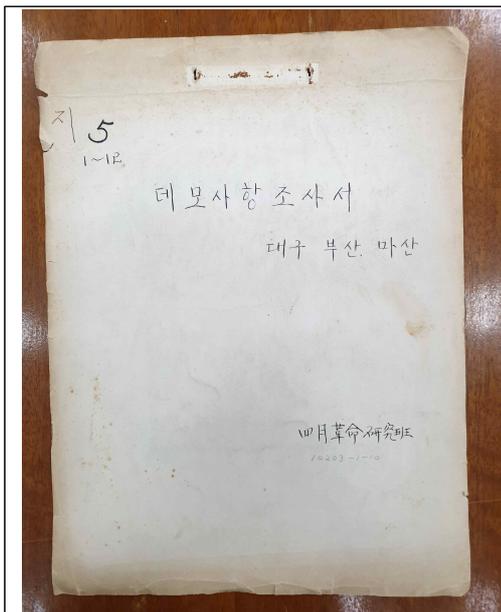
(마) 4.19 데모 목격자 및 인근 주민의 조사서 : 4쪽으로 참여 학생과 주민들에게 조사한 것임. 데모 당시 목격자 26명의 진술을 확보했으며 목격자의 생생한 증언으로 4.19의 여러 양상 및 그들의 생각과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중요한 문건임. 총 40개의 항목으로 다음 내용을 담고 있음.

- ① 성명, 성별, 연령, 현주소, 직업 외에 정치문제의 관여 여부를 기본 사항으로 설정함.
- ② 데모대를 지켜본 시간 및 장소, 데모대의 수와 모습, 느낀 기분, 구호, 데모 대원이 요구한 것이나 데모대원을 도와준 것, 시민들의 반응을 물음.
- ③ 데모 상황에 관해서는 경찰과 데모대의 충돌 양상, 무기 사용 등 경찰의 상황에 관한 사항, 외국인 목격에 관한 내용, 군인에 관한 사항, 데모에 관해 목격자가 아들이나 타인에게 보인 태도 등 외에 ‘데모대중에 구두담이 소년을 보았는가’ 등 특정한 상황에 관한 항목도 있음. 공공기관 건물의 화재에 관한 목격이 있었는지를 물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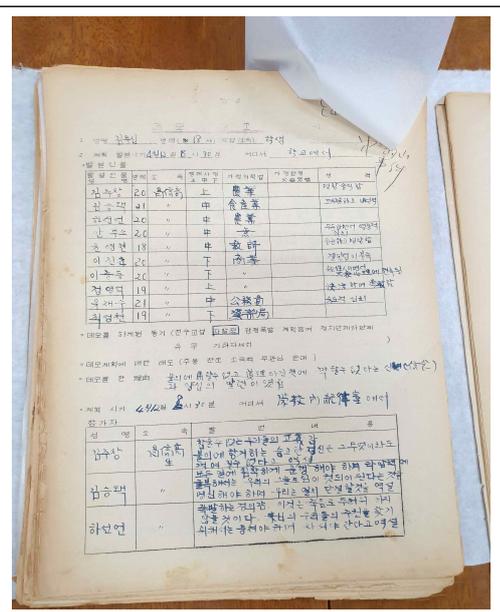
- ④ 4.19 이후 4.26 사이에 가정에서 이루어진 화제(話題), 4.26 이후의 화제
- ⑤ 학생에게 하고 싶은 말, 희생자 및 고문받은 자의 느낌
- ⑥ 경험한 것 중 가장 중요한 사건, 그밖에 기억에 남는 것
- ⑦ 4.19의 동기에 대한 생각, 사태의 의의, 대통령 하야, 자유당, 허정, 변영태, 깡패에 대한 생각 등을 묻고
- ⑧ 과도내각에 원하는 바와 바람직한 정치가 상, 기타 하고 싶은 말을 적도록 함.

(바) 교수 데모실태 조사서 : 인적사항을 적지 않은 1건과 덕성여자대학 교수인 차면호, 길봉기가 함께 작성한 2건이 조사됨. 조사서는 4쪽으로 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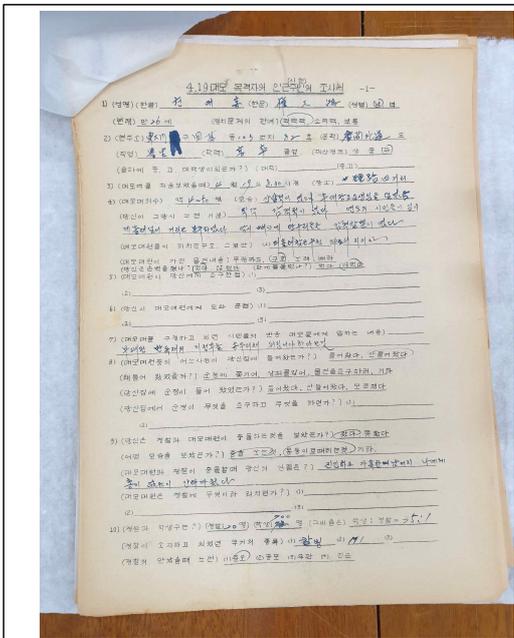
- ① 기본 사항 : 성명 연령 소속 전공, 가정환경
- ② 데모 발안 교수명, 발안 시일 및 장소, 신분과 경력, 가정환경, 평소 주장, 성격, 학생들에 대한 인기를 적도록 했으며 조력자 교수 명단을 설정함.
- ③ 연락 상황 : 연락 책임자, 방법, 반응 등
- ④ 집회 경위 : 결정 방식, 참가 방법, 학생들과의 관계 유무 등
- ⑤ 회의의 구성과 주최 교수, 회의 진행 내용, 토의 및 결의 사항, 연락과 조직 계획 등.
- ⑥ 데모의 준비물, 출발시 주의사항, 코스, 중요기사, 의사당 앞에서 한 일, 해산
- ⑦ 데모 이후의 내용에 관해서는 교수단 데모와 25일 데모 유발과의 관계, 데모 후 동향, 교수단의 동향을 물음.
- ⑧ 참가 교수의 태도를 묻는 질문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데모할 때의 심정, 데모의 동기, 4.19 사태의 의의 및 동기에 대한 인식, 학생, 군인의 역할에 대한 생각 등을 문의함. 생각을 묻는 항목은 목격자등 조사서와 유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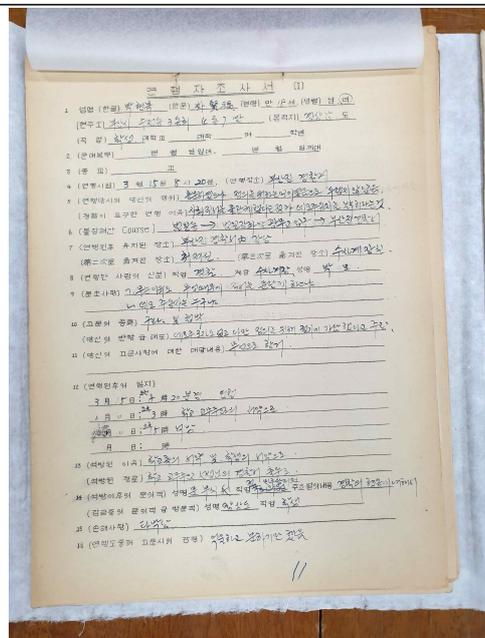
데모사항 조사서 표지(대구 부산 마산)



데모사항 조사서 1면



4.19 데모 목격자의 인근주민 조사서 1면



연행자 조사서 1면

○ 정리된 문건 외에, 당시 사용되었던 영수증 및 일정계획표 등 정리되지 않은 관련 서류 및 문건들이 있는데, 일정 계획표 및 설문지 우송 날짜 등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하는 증빙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3장으로 되어 있는 등사본 「4월혁명 연구에 관한 건」에서는 이 조사의 취지 및 방법론, 연구 조직을 밝히고 있으며, 4월 28일로 조사 착수 일자를 적시하고 있음. 문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조사의 취지 : 첫째, 사실을 사실대로 밝혀서 후대에 사료와 연구자료로 남기며, 둘째, 실증적 자료로서 4월 혁명의 생생한 진상을 밝혀 그 의의와 정신과 역사적 위치 등을 이해하게 하며, 셋째, 한국의 사회 인문과학에 실증적인 방법론의 시도를 제시함.

- 방법론 : 주동적 사실의 진상을 파악하며, 그에 대한 반응을 조사하고, 이 양면에서 발생하는 제 현상을 구체적인 자료로서 증명할 수 있도록, 조사 내용은 첫째, 데모의 동기, 현상과 결과적 영향에 대해 설문하고, 둘째, 대내적으로는 시민, 정부, 경찰, 군, 정당, 언론 등의 동향을 조사하고 대외적으로는 외교사절, 외국군, 외국정부, 외신, 국제기구 등의 동향을 조사하며, 자료는 사진, 신문, 잡지, 발표문이나 성명서 등 공식적 문서 외에도 선언문, 구호, 삐라 등 비공식적 문서와 명단, 통계, 수기, 프랑카드 등도 수집한다고 함.

- 연구반의 조직 : 명칭 - 연세대학교 4월혁명 연구반

지도교수(3명) - 김하태 박사, 홍이섭 교수, 조순승 박사

연구반원(4명) - 김달중 안병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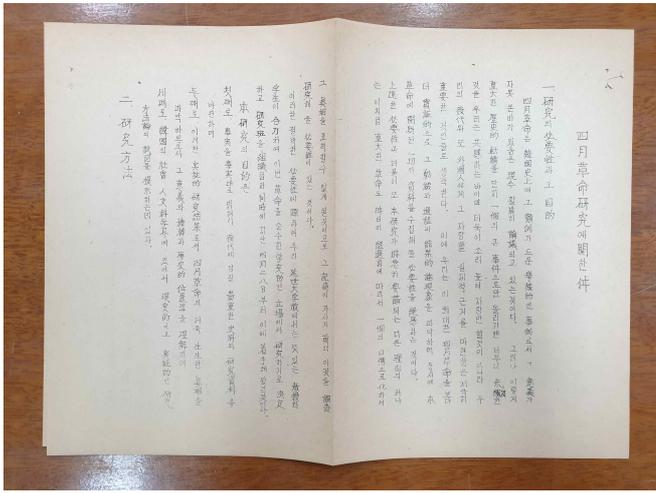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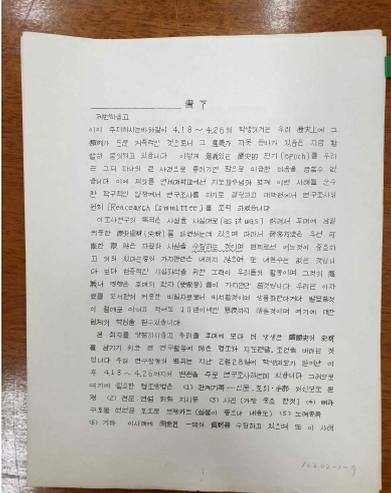
(조수) 자료정리 담당, 섭외 및 연락 담당

- 연구의 기본 계획 : 연구 대상 시기 - 2월 28일부터 국회 해산시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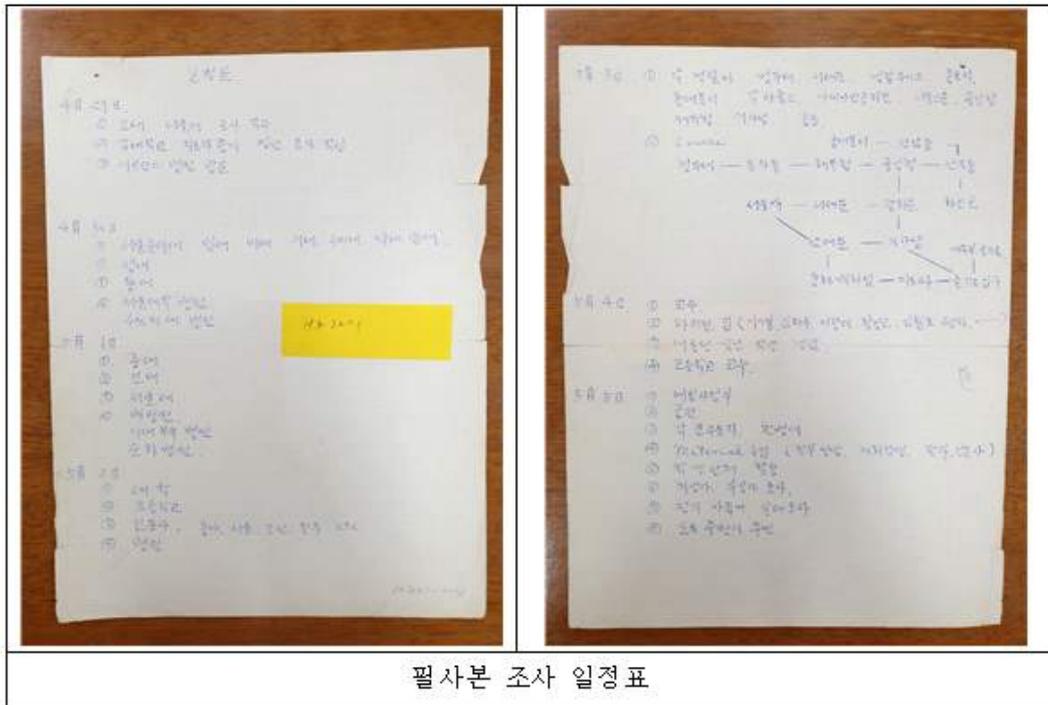
연구 대상 지역 - 서울 마산 대구 부산 기타 지역(대전 수원 전주 충주 등지)

- 연구비 예산 : 제1차 예산(지방 조사) - 507,000환
제2차 예산(서울 지구 조사) - 300,000환
제3차 예산(자료 정리와 보고서 작성) - 200,000환
- 연구 기간 : 조사 기간 - 1960년 6월 1일~7월 14일
자료 정리 및 보고서 작성 - 7월 17일~8월 17일

○ 이러한 취지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자에게 의뢰서를 작성한 등사본도 있음. 의뢰서에는 조사 내용을 관계자들이 직접 또는 우송해 주며, 관계인사는 생생한 수기를 써보내거나 직접 와주기를 요청함. 각 학교에서 2명 이상의 대표자를 보내주면 매일 5시 이후에 면접할 수 있다고 함. 작성자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4.18-4.26 사태 조사위원회 김달중 안병준’으로 되어 있음.

	
<p>'4월 혁명 연구에 관한 건'을 밝힌 등사본 1면(총 3장)</p>	<p>의뢰서 1면(총 2장)</p>

- 다른 필사본 자료로는 수첩 용지에 한 메모가 있는데, 주요 개념을 영어로 쓴 것으로 보아 제안자인 리처드 언더우드가 대략의 계획을 메모한 것으로 보임. 또 신문사 편집국장에게 보내는 자료 조사 의뢰서의 필사 원본도 있음.
- 필사본으로 남은 일정표는 구체적인 조사 작업의 일정 계획을 추정할 수 있음.
 - 4월 29일 : 고대 서울대 조사 착수, 지도자층의 명단 작성, 세브란스 병원 방문
 - 4월 30일 : 서울대의 각 단과대, 성대, 동대, 서울대학 병원, 수도의대 병원
 - 5월 1일 : 중대, 건대, 서울대, 백병원, 이대부속병원, 순화병원
 - 5월 2일 : 대학, 고등학교, 신문사, 병원
 - 5월 3일 : 각 경찰서 경무대 서대문 경찰 무기고 종로서 동대문서 각 파출소 아세아 반공회관 서울신문 중앙청 해무청 의사당 등등
 - 5월 4일 : 교수, 파괴된 집(이기봉, 임화수 등), 대통령 만난 학생 면담, 고등학교 교수
 - 5월 5일 : 계엄사령부, 공관, 각 주둔지, 헌병대, 성명문 등 수집, 학생단체 활동, 희생자, 부상자, 정객 가족의 실태, 도로 주변의 주민 등 일정으로서 서울 지역의 조사를 계획했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서울 지역의 경우 조사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방문은 4월 말~5월 초에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필사본 조사 일정표

- 부산 마산 대구 등 지방의 자료 수집은 5월 말에서 6월 말 사이에 이루어졌음. 설문지를 작성해서 보내거나 직접 가지고 가서 조사함. 조사지 외에 5월 23일자 영수증, 6월 17일에 김달중이 대구에서 보낸 특수우편물 수령증, 6월 18일 부산에서 김달중이 김하태에게 보낸 특수우편물 수령증, 6월 22일에 안병준이 이대우에게 보낸 특수 우편물 수령증, 6월 26일 마산 각지로 보낸 우편물 수령증 등이 있음.

나) 4·19혁명 계엄 포고문

(1) 자료의 배경

- 1960년 4월 혁명이 진행 중일 때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시위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한 것임. 이후 ‘4월 혁명 연구반’, ‘대학원 4.18-4.26 사태 조사위원회’ 등의 명의로 활동을 하여 모은 자료임. 당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4학년이던 김달중과 안병준이 4.19가 일어나자 이를 후세를 위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하여 4월 혁명에 대한 자료와 기록 전반을 수집하고 정리한 것임.
- 그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4.19 시위가 일어난 뒤이자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기 이전의 계엄상태인 1960년 4월 23일경 ‘4월혁명 연구반’을 만들. 4월 혁명 연구반의 활동은 당시 한미재단 단장이자 호러스 언더우드의 친동생인 리처드 언더우드의 제의로 시작되었음. 그는 4.19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김달중에게 4월 혁명 관련 자료의 수집을 제안하였고, 이에 김달중과 안병준이 자료를 수집하게 됨.

- 초기에는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4.18과 4.19 관련 자료를 모았으며, 연세대학교 기독교학생회(SCA) 회장직에 있던 김달중이 YMCA 나 기독교학생회 조직, 연세대와 서울대, 고려대 3개 대학 정외과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을 조사하여 작성함. 나중에는 범위를 확대해서 관계 기관을 포함하고, 대구와 마산 등 지방에 가서 2·28, 3·15 등에 관련된 인물들을 인터뷰하여 자료를 수집함. 학생뿐 아니라 시위 주동자, 부상자, 일반인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 및 면담을 실시함.
- 이 활동에 필요한 자금은 처음에는 한미재단의 지원으로 이루어짐. 그러나 이것이 한미재단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시작된 것이어서 중간에 문제가 되고 지원이 끊기게 됨. 이에 김하태 연세대 대학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대학원 4.18-4.26 사태 조사위원회’ 이름으로 프로젝트 작업을 계속했으며, 김하태 원장과 홍이섭 교수, 조승순 박사가 4월혁명연구반의 지도교수를 맡아 진행함.
- 자료 수집 작업은 김달중·안병준 두 사람이 진행했으나, 나중에 김달중이 7월과 8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그와 가나의 수도 아크라에서 각각 열린 세계기독교학생연맹[WSCF] 세계대회와 세계청년회[WAY] 제8차 이사회 등의 국제회의에 한국 학생 대표로 참석하게 되자, 마지막 정리 단계에서 정외과 동급생인 박충석이 가세하여 정리를 도움.
- 이 자료는 대외에 유출될 것을 염려하여 가능한 적은 인원이 참여하였으며, 후세의 학자들에게 자료가 될 수 있도록 10년 동안 비공개로 하고 김달중 안병준 두 사람은 자신들의 연구 자료로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 2010년까지 이 자료를 이용한 연구, 강연, 자문, 토론 등에 일체 응하지 않았다고 함. 당시 미국 대사관의 문정관인 그레고리 핸더슨이 자료를 한국에 두는 것보다 미국에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집요하게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연세대 도서관 희귀자료실에 봉인해서 보관해 옴.
- 연세대학교 도서관 귀중본실에 보관되던 이 자료를 1998년 연세대학교 기록보존소가 설립되자 이관되었으며, 2010년 박물관과 통합 후 현재 박물관 학예팀에서 관리하고 있음.
- 김달중 안병준 두 사람은 2010년 11월 11일 연세대학교 박물관에서 진행한 4.19 혁명 관련 구술 아카이브에서 이러한 내용을 구술함. 이 내용은 현재 오픈 아카이브 4.19 구술 아카이브 서울 편에서 볼 수 있음.
(<https://archives.kdemo.or.kr/oral-archives/view/81>)

(2) 자료의 내용

- 이 자료는 4월혁명연구반이 수집한 자료 가운데 계엄사령부에서 4월 19일에 내린 계엄선포로부터 시작하여 계엄사령부의 포고문 13점, 훈시문 1점, 공고문 3점, 담화문 2점을 수집한 것이다. 4월 혁명 연구반은 자료를 수집하면서 관계 기관에도 자료를 의뢰했는데, 육군 본부 인쇄반에 연락해서 받은 자료라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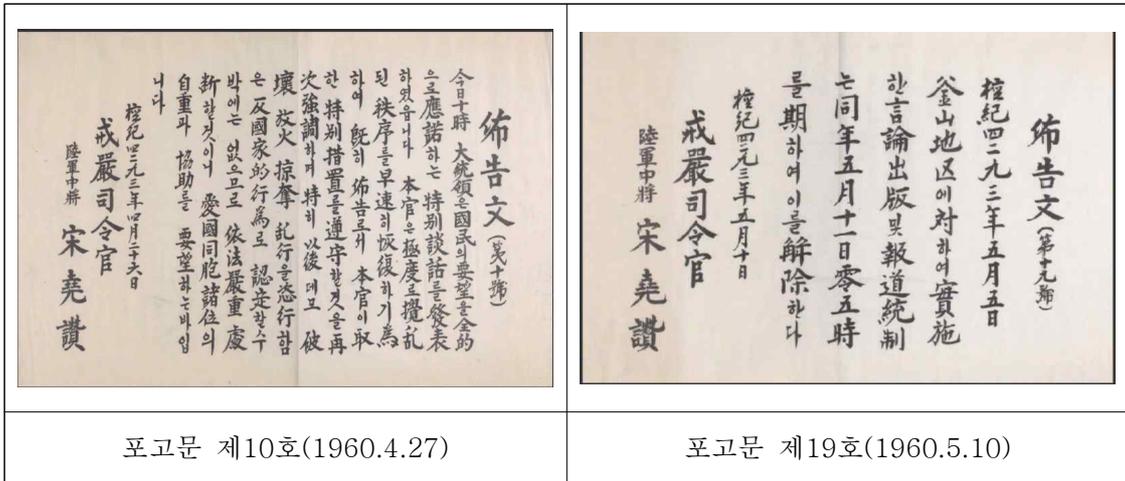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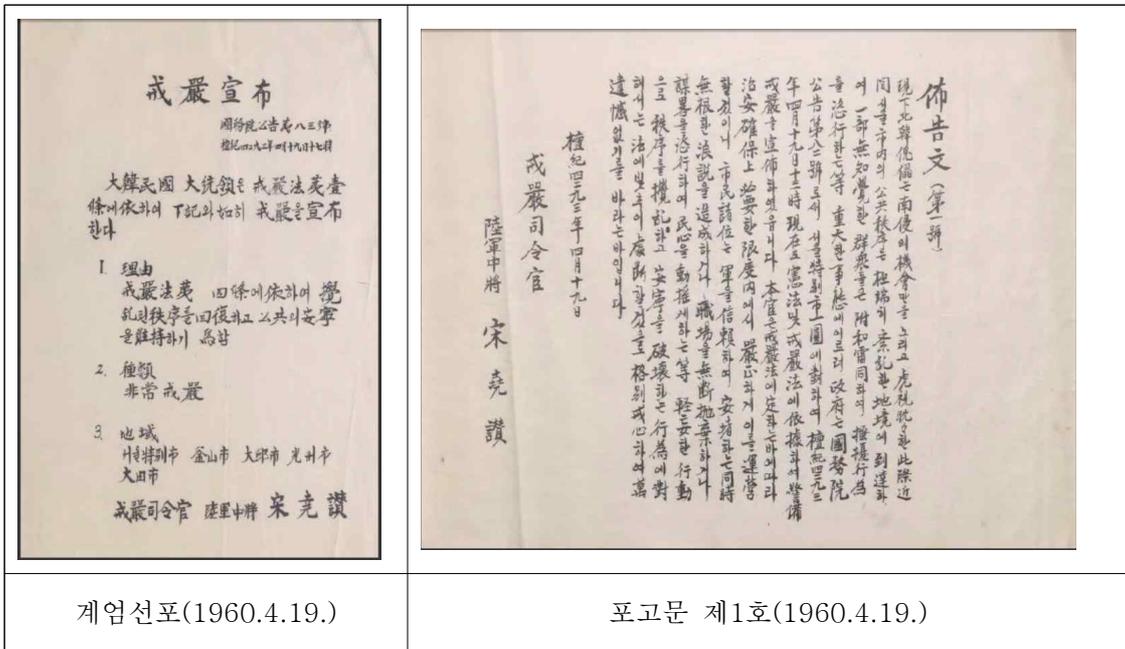
○ 수집된 자료는 총 19건 20점으로 내용은 다음 목록과 같음.(발표 일자별)

연번	유물 명칭	포고 날짜	수량	크기(cm)
1	계엄선포	1960.4.19	1	270x403
2	계엄사령부 포고문 제1호	1960.4.19	1	510x410
3	계엄사령부 포고문 제2호	1960.4.19	1	533x415
4	계엄사령부 포고문 제3호	1960.4.19	1	270x402
5	계엄사령부 포고문 제4호	1960.4.20	1	816x538
6	계엄사령부 포고문 제7호	1960.4.22	1	816x538
7	계엄사령부 담화문 - 각급 학교 수업을 개시하면서 학도 제군 및 교육자 제위께 고함	1960.4.25	1	816x534
8	계엄사령부 포고문 제10호	1960.4.26	2	816x538 197x256
9	계엄사령부 포고문 제13호	1960.4.27	1	816x534
10	계엄사령부 포고문 제14호	1960.4.27	1	816x534
11	계엄사령부 공고문 제4호	1960.4.27	1	816x538
12	계엄사령부 포고문 제15호	1960.4.30	1	816x538
13	계엄사령부 훈시문 - 4.26 사태에 대하여 부하 장병들에게 고함	1960.5.2	1	1073x813
14	계엄사령부 포고문 제16호	1960.5.3	1	816x534
15	계엄사령부 포고문 제17호	1960.5.3	1	816x538
16	계엄사령부 공고문 제5호	1960.5.4	1	816x534
17	계엄사령부 포고문 제19호	1960.5.10	1	816x534
18	계엄사령부 공고문 제6호	1960.5.10	1	816x534
19	계엄사령부 담화문 - 병원장 및 환자 귀하	일자 미상	1	405x534

- 「계엄선포」는 국무원 공고 제83호로 1960(단기 4293)년 4월 19일 오후 17시에 배포되었음. 계엄법 제4조에 의하여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내용이며 공고자는 계엄사령관 육군중장 송요찬으로 되어 있음.
- 「포고문 제1호」 역시 1960년 4월 19일에 계엄사령관 육군중장 송요찬이 내린 것으로, 4월 19일 13시 현재 헌법 및 계엄법에 의거하여 계엄을 내림을 공고한 것임.
- 「포고문 제2호」도 같은 날 내린 것으로, 현재 진행중인 모든 집회를 해산하고, 학교의 등교를 중지하며, 통행금지를 오후 1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로 하며, 언론 출판 보도 등은 사전검열을 받아야 하고, 유언비어의 유포를 불허하는 등 통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 「포고문 제3호」은 계엄사령부의 부사령관 및 각 지구 계엄사무소장의 임명 내용을 담고 있음.
 - 계엄부사령관 육군중장 장도영
 - 부산지구 육군소장 박정희
 - 대구지구 육군소장 윤춘근
 - 광주지구 육군소장 박현수
 - 대전지구 육군소장 임부택
- 「포고문 제4호」는 다음 날인 4월 20일에 나온 것으로, 무기나 흉기 등을 발견하거나 습득하면 경찰서나 헌병대에 신고할 것, 폭도 또는 불순분자를 숨기거나 도피시키면 법으로 처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포고문 제7호」는 4월 22일에 나온 것으로, 질서가 회복되어 가고 있으므로 광주 지구의 통금시간을 4월 23일 오전 5시를 기하여 2시간 단축하여 오후 21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로 완화하며, 서울 부산 및 광주 지구의 국민학교 등교를 4월 25일부터 허가한다는 내용임.
- 「담화문」은 4월 25일에 ‘각급 학교 수업을 개시하면서 학도 제군 및 교육자 제위께’ 고한 것으로 25일에는 초등학교, 27일에는 중학교, 29일에는 대학과 고등학교를 차례로 열게 한다는 내용임.
- 「포고문 제10호」는 4월 26일에 나온 것으로, 이날 오전 10시에 이루어진 이승만 대통령의 사임 발표에 따라, 질서가 빨리 회복되도록 자중과 협조를 요망한다는 내용임. 「포고문 제10호」는 세로 쓴 대형과 가로 쓴 소형 2종이 있음.
- 「포고문 제13호」는 4월 27일에 나온 것으로, 치안 회복에 따라 비상조치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4월 28일 오전 5시부터 서울 지구의 통행금지를 오후 21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로 완화하고, 4월 28일부터 국민학교 아동의 등교를 허용한다는 내용임.
- 「포고문 제14호」도 4월 27일에 나온 것으로, 서울 지구의 각 대학을 4월 29일부터, 중고등학교는 5월 2일부터 등교 중지를 해제한다는 내용임.
- 「공고문 제4호」는 4월 27일에 나온 것으로, 도심 및 외곽에서 각종 무허가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을 금지하고, 이러한 건물을 철거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임.
- 「포고문 제15호」는 4월 30일에 나온 것으로, 서울 지구의 야간 통행금지를 5월 1일부터 오후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로 완화한다는 내용임.
- 「훈시문」은 5월 2일에 나왔으며, 4.26 사태에 대하여 부하 장병들에게 고하는 것으로 군이 동요하지 말고 나라를 굳건히 지키는 사명을 지킬 것을 요청하는 내용임.
- 「포고문 제16호」는 5월 3일에 나온 것으로, 사이버 단체의 빼라나 벽보에 현혹되지 않기를 당부하면서, 5월 3일 오전 5시를 기하여 정치에 관련된 전단이나 벽보는 사전검열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임.
- 「포고문 제17호」는 5월 3일에 나온 것으로 서울지구의 야간 통행금지를 5월 4일 오전 5시를 기하여 오후 24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로 완화한다는 내용임

- 「공고문 제5호」는 5월 4일에 나온 것으로, 이날을 기하여 통행금지 조치가 종전대로 환원함에 따라, 기존에 발행한 야간차량통행증 및 야간통행증은 5월 5일부터는 무효하게 되어 통행금지 시간 내의 야간통행은 일절 금지하나, 다만 언론기관 및 외교관 차량이나 통행인의 경우는 예외로서 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임.
- 「포고문 제19호」는 5월 10일에 나온 것으로, 부산 지구의 언론 출판 및 보도 통제를 5월 11일 5시부터 해제한다는 내용임.
- 「공고문 제6호」는 5월 10일에 나온 것으로, 그동안 실시했던 집회 불허를 완화하며 집회를 할 때에는 예정일로부터 1주일 전에 해당 경찰서에 허가서를 제출하여 계엄사령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임.
- 「병원장 및 환자 귀하」에게 보내는 담화문은 4.19 및 4.26 사건 당시 발생한 부상자가 여러 병원에 수용되어 있으나, 환자들이 병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계속 입원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상황이 있었다고 하며 병원장의 판단 아래 잘 진행이 되도록 하라는 내용임. 발표 날짜는 적시되지 않았으나 4월 말~5월 초에 발표된 것으로 추정됨.



<p>담화문(1960.4.25)</p>	<p>훈시문(1960.5.2.)</p>

○ 이 자료는 당시 계엄 상황하에서 혁명의 추이에 따라 4월 26일을 분수령으로 하여 계엄이 완화되어 가는 추이를 고스란히 살펴볼 수 있는 것임.

3) 문헌자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4월혁명사료총집발간위원회 편, 『4월혁명 사료총집』, 서울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0.
- 오픈 아카이브: 구술아카이브 > 4.19혁명 > 서울 관련 구술아카이브
 구술자 : 김달중/안병준
 구술일자 / 장소 : 2010년 11월 11일/연세대학교 박물관
 구술시간 : 1시간 52분 17초
<https://archives.kdemo.or.kr/oral-archives/view/81>

4)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가) 4·19혁명 참여자 구술 조사서

- 위의 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 4.19 혁명 연구반 조사 자료는 4.19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게 실질적으로 기록으로 남기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움직여 조사한 자료이며, 주동자 등 인적 사항이 당시에 밝혀지면 위해를 당할 가능성 등 염려 때문에 공개되지 않고 연세대학교 도서관 귀중본실에서 보존되어 왔음.
- 2010년 이후 김달중 안병준 두 분이 조사 당시 상황을 구술하고 자료는 『4월혁명 사료총집』에 수록되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혀져야 할 것이 많은 자료임. 특히 4.19 당시의 상황을 참여한 각 개인의 생생한 목소리로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귀한 기록 자료임. 등록문화재로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 등록 시 명칭은 ‘연세대학교 4월혁명연구반 수집 자료(4.19혁명 참여자 구술 조사서)’로 하는 것이 객관적일 것으로 보이며, 이 조사서와 함께 수집된 연세대학교 4월혁명연구반 수집 자료(4.19혁명 계엄 포고문)과 더불어 가지번호로 함께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함.

나) 4·19혁명 계엄 포고문

- 위의 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 4.19 혁명 연구반 조사 자료는 4.19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게 실질적으로 기록으로 남기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움직여 조사한 자료이며, 연세대학교 도서관 귀중본실에서 보존되어 왔음.
- 연세대학교 박물관에 함께 소장되어 있는 연세대학교 4월혁명연구반 수집 자료(4.19혁명 참여자 구술 조사서)’와 함께 4.19 당시의 상황을 계엄사령부의 포고문을 통해 생생히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임. 인쇄물이기는 하지만, 당시에 수집되어 보존이 잘 되었기 때문에 비슷한 복본은 존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4.19를 기념하는 등록문화재로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 등록시 명칭은 ‘4월혁명연구반 수집 자료(4.19혁명 계엄 포고문)’로 하는 것이 객관적일 것으로 보이며, 이 포고문과 함께 수집된 연세대학교 4월혁명연구반 수집 자료(4.19혁명 참여자 구술 조사서)와 더불어 가지번호로 함께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함.

<○○○○○○ ○ ○ ○○○>

1) 현상

- 4·19혁명 계엄 포고문 :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국학자료실과 기록보존소, 박물관 등 보존환경과 보존시설을 완비한 공간에서 보존하여 보존상태는 모두 양호함.

2) 내용 및 특징

가) 4·19혁명 참여자 구술 조사서

연세대학교 4월혁명연구반 수집 자료(4.19혁명 참여자 구술 조사서 11종)
 4월혁명조사연구개요 1종· 부상자실태조사서 2종· 데모사항 조사서 2종· 목
 격자 조사서 1종· 수기 1종· 교수데모 실태조사서 1종· 연행자 조사서 2
 종· 사후 수습조사서 1종 등 필사본
 시기 : 1960년 4월 하반기~1960년 5월 중순 경
 110×79(4월혁명조사연구개요), 27×36(부상자실태조사서 외 10종)

- 「연세대학교 4월혁명연구반 수집 자료(4.19혁명 참여자 구술 조사서 11종)」는 1960년 4월 혁명기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4학년 김달중과 안병준 두 학생을 중심으로 시위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 이후 교내에 “4월혁명연구반”, “대학원 4.18-4.26사태조사위원회” 등을 조직하여 관련 활동을 수행하였음. 김달중과 안병준은 4월혁명 당시 연세대학교 시위에 참여했으며 김달중은 연세대 학생조직을 대표하던 기독교학생회(SCA) 회장직을 맡고 있었음.
- ‘4월혁명연구반’은 계엄 상태인 4월 23일 경 한미재단 단장이자 호러스 언더우드(H. Underwood)의 친동생인 리처드 언더우드가 김달중에게 4월혁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자료 수집을 제안한 것에서 시작되었음. 김달중은 한미재단의 지원을 받아 안병준과 함께 연구반을 만들고 4·19와 관련된 기록과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기 시작하였음. 조사 과정에서 한미재단의 지원이 중단되자 김달중과 안병준은 김하태 연세대 대학원장에게 도움을 청하여 홍이섭·조승순 교수 등의 지도를 받아 연세대 대학원 프로젝트로 조사작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었음.
- 4월혁명연구반은 초기에 주로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4·18과 4·19 관련 자료를 모으는 일을 수행하였는데, YMCA, 기독교학생회와 같은 기독교 학생 조직 인맥, 연세대·서울대·고려대 3개 대학 정외과 네트워크 등을 주로 활용하였음. 조사 의뢰서에 의하면 서울을 비롯해 대규모 시위가 있었던 마산, 대구, 부산, 대전, 수원, 전주, 충주 등의 학교, 언론사, 정당, 사회단체 등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을 전하여 추진했으며, 대구와 마산 등은 직접 방문하여 2·28, 3·15 시위 관련 자료를 직접 조사 수집하였음.
- 현재 연세대학교 박물관 학예팀에서 보관·관리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4월혁명연구반 수집 자료(4.19혁명 참여·관련자 구술 조사서 11종)」에는 「4월혁명조사연구개요」·「부상자 실태조사서(서울·대구부산마산)」·「데모사항조사서(서울·대구부산마산)」·「연행자 조사서(서울·대구부산마산)」·「교수데모실태조사서(서울지역)」·「사후수습사항조사서(서울지역)」·「4.19데모 목격자 및 인근주민의 조사서(서울지역)」 등이 포함되어 있음.
- 각 조사보고서는 조사 대상범주에 따라 설문 내용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차별하여 작성함으로써 4월혁명기 시위 참여자들의 정치사회적의식, 계층의식 등 1960년대 사회상 전반을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사료로 매우 가치가 큼.
- **4.19 데모 목격자 및 인근주민의 조사서(서울지방)**
 - 구체적 목격 내용으로 서울 종로4거리 목격자인 권대홍(26세, 동대문 회기동)은 버스 안에서 약 40~50명의 데모대를 목격함. 연도에 시민들이 일시에 몰려 매우 분주했음. 시위 현장에 대한 소감은 ‘매우 감격적’이었으며 손뼉을 쳐 공감했음. 경찰과 데모대가 충돌했으며, 총과 몽둥이로 시위대에 폭력을 가하는 장면을 목격. 폭력 장면이 매우 잔인했고, 자신에게 총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느꼈음. 경찰에 대한 느낌은 ‘증오’감이 컸음.
 - 대통령 하야에 대한 생각으로 ‘벌써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함.

○ 교수데모실태조사서(서울지방)

- 덕성여대 참여 교수(차면호, 길봉기) 보고 내용에 의하면 25일 서울문리대 강당에서 각 대학 교수가 집합하여 긴급동의로 데모 참여 결정함. 오후 3시 이후 데모 시작. 이후 각 대학으로 소식이 전해져 자진 합류. 데모 후 자진 귀가함. 4월 29일 오후 5시 (장소미상) 각대학 학생처과장 회합에서 ‘학생들의 학업 계속케 할 것’, ‘학생의거 정신을 찬양하고 살릴 것’ 등 결의함.
- 4·19 당시 학생들은 ‘민주주의 재건의 커다란 役軍’으로 자부함. 이 대통령의 하야는 ‘당연한 귀결’로 소감을 밝힘.

○ 사후수습사항 조사서(서울지방)

- 서울 문리대 대표인 윤식(정치학과 3년, 만 21세)은 4월 24일 오후 6시 ‘각 대학 망라 4·19의거 대책위원회 구성의 건’ 결정. 결의사항으로 1. ‘4·19의거학생대책위원회’ 발족할 것, 단과대학 2명, 종합대학 7명으로 구성. 2. 25일 2시 대표진 재차 회의할 것.

○ 연행자 및 사후수습사항 조사서(대구, 부산, 마산)

- 부산지역 박현복(만 18세, 여) 학생은 범일동 광무교 입구에서 범일동 경찰서로 연행됨. 연행 후 경찰서에서 데모 동기, 데모 주동자 등을 문초당함. 고문과 협박 있었음. 3월 15일 오후 5시 학교 교무주임의 서약, 학생 서약으로 석방됨. 석방 후 전 민주당원 문부식이 찾아와 경찰 행위에 대해 문의함. 연행 도중 경찰에 대한 감정으로 ‘억울하고 분함’으로 표현.

○ 연행자 조사서(서울지방)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소속 박종철(만23세)의 구술보고에 의하면 4월 19일 경복궁 앞에서 연행됨. 연행코스는 경무대-서대문-마포형무소 등임. 연행 후 데모구호, 주모자, 데모참가 동기 등을 조사받음. 조사시 구두문답 중 ‘구타’를 당하기도 했음.
- 연세대학교 이공과 4년 홍사성(만22세)는 4월 19일 중앙청 앞에서 연행됨. 연행 코스는 경찰 무기고 내 피복창고 앞-종로경찰서임. 문초내용은 방화여부, 무기 탈취, 데모선동, 시발택시 강탈여부 등임. 조사시 구타, 공갈 등의 고문을 받음. 4월 22일 헌병에게 3차문초 받은 뒤 23일 석방 후 세브란스병원에 입원. 연행 조사시 ‘총살될 것’이라 공포를 느낌. 연행 중 경찰에 대한 인상은 무자비, 야비했음. 경찰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은 ‘비참함’. 연세대 국문과 백원배와 함께 연행됨.

○ 부상자 실태조사서(대구, 부산, 마산)

- 마산고 김무신(2학년)은 3월 15일 시위에 참여, 무학국민학교 부근에서 총상 당해 의식 잃음. 전내과/김외과 등에 입원 치료받음.
- 3월 15일 밤 9시 마산시 중성동에서 부상당한 문체용(만 35세, 일반인)은 오후 5시 30분 집을 나온 뒤 데모대와 합류, 행렬에 참가했으며 밤 9시 총에 맞아 부상. 시위 당시 경찰이 ‘무차별 사격’을 목격함. 입원 중 감정은 ‘앞길을 생각할 때 매우 슬픔’으로 표현. 데모 참가 동기는 ‘자발적 참여’이며, 데모 시 본인은 ‘보통대원’으로 표현. 부상 부위는 ‘좌각부 골절’. 입원 시 100여명의 위문객이 있었음.

○ 부상자 실태조사서(서울지방)

- 24세 김억수(서대문구 만리동 거주)에 의하면 4월 19일 오후 4시 외무부 정문 앞에서 총에 맞아 부상당함. 부상직전까지 데모 코스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구호 외친 뒤 경무대 앞, 중앙청을 거쳐 외무부 정문앞에서 시위 중 부상. 의대 부속병원에서 입원 치료.
- 단국대 정외과 1년 김용언은 4월 19일 오후 1시 15분 성북경찰서 앞에서 부상 당함. 부상전 시위 경로는 국회의사당 앞 집결 후 경무대, 종로, 을지로, 신설동, 미아리를 거쳐 성북동 방향으로 감. 다리에 총상 입고 수혈을 받기 위해 이대 부속병원(동대문)에 입원.
- 노용부(만 20세, 남)는 4월 19일 오후 4시 30분 내부무 앞에서 부상당함. 전시 같은 상황으로 묘사. 부상 전 시위 코스는 광화문-서대문-서울역-용산-서울역-소화동-광화문-종로5가-내무부 앞에서 총맞음.

○ 데모사항조사서(서울지방) : 고려대 4·18의거 참가자 김재인(만 22세, 문리사대생)에 의하면 18일 아침 고려대 정치학과 학생들의 모임 이후 시위 결정된 것으로 보임. 오후 12시 20분 경 도서관, 식당 등 교내 각지에 ‘시위 안내 잉크 벽보’가 붙음. 데모의 구체적 계획이 발표되진 않았으며 12시 50분 전교생이 운동장에 모여 이신전심으로 일시에 시작됨. 김재인은 ‘3·15부정선거 무효’임을 주장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했음.

○ 데모사항조사서(대구, 부산, 마산)

- 마산 창신고 학생들의 데모 준비물은 플랭카드 3개, 구호 4종, 결의문 1, 호소문 1 등임. 플랭카드에는 ‘三 ·一五선거불법이다’, ‘경찰과 정부는 학생사살책임져라’ 등이며 구호는 ‘학원의 자유를 달라’, ‘三 ·一五선거불법이다’, ‘공명선거 다시하자’, ‘학생사살 책임져라’등, 결의문은 ‘공명선거 다시하자’, 호소문은 ‘전국학생들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같이 일어나기’를 호소했음.
- 마산제일여고 데모 참가자 노원자(3년) 보고에 의하면 데모 참가 경위에 ‘3·15 부정선거에 대한 격앙된 감정’과 ‘김주열 학생의 무참한 시체 발견’이 계기가 됨. 부산고교 이의남(만 17세)의 구술 보고는 이의남 외 7명이 참가함. 데모 동기는 모두 ‘자발적’ 참여이며, 데모 이유는 ‘부패가 극도에 달한 사회와 정치를 개혁하여 올바른 조국발전을 거두는데 학생들이 선봉을 서야 하겠음.’
- 3월 20일 각 학교 대표모임을 갖고 호소문, 결의문 등을 결정함. 지역별로 집결지를 달리했는데 서부산지역 학교-부산본역 광장, 동부산지역 학교-부산본역 광장, 북부산-범일동 다리 등으로 정함.
- 출발 날짜는 3월 24일, 학교 교문에서 출발. 데모구호에 ‘동포여 일어나라’, ‘비겁한 자여 그대 이름은 방관자니라’ 등이 특이함.

- 동래고 정진철(학생자치위원장) 외 이종문·최상욱 2인의 보고 포함.
- 서울 4·19, 마산·부산 3·15~4·11, 대구 2·28 등 4월 혁명기 서울, 마산, 부산, 대구 등 전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부정선거 규탄 시위양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1차 구술자료임. 특히 각 지역 학생시위는 고등학생들이 주류로 4월 혁명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자료로 평가할 수 있음.
- 현재 총 790여장의 조사보고서가 남아 있으며 연세대학교는 학교 내 도서관(현 학술정보원) 귀중본실(현 국학자료실)에서 보관하다가 1998년 기록보존소 설립에 따라 이관하였고, 2010년 박물관과 통합된 후 박물관 학예팀에서 관리하고 있음.
- 아래 [예시]에서 [부상자실태조사서] ·[데모사항 조사서]의 설문조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예-부상자실태조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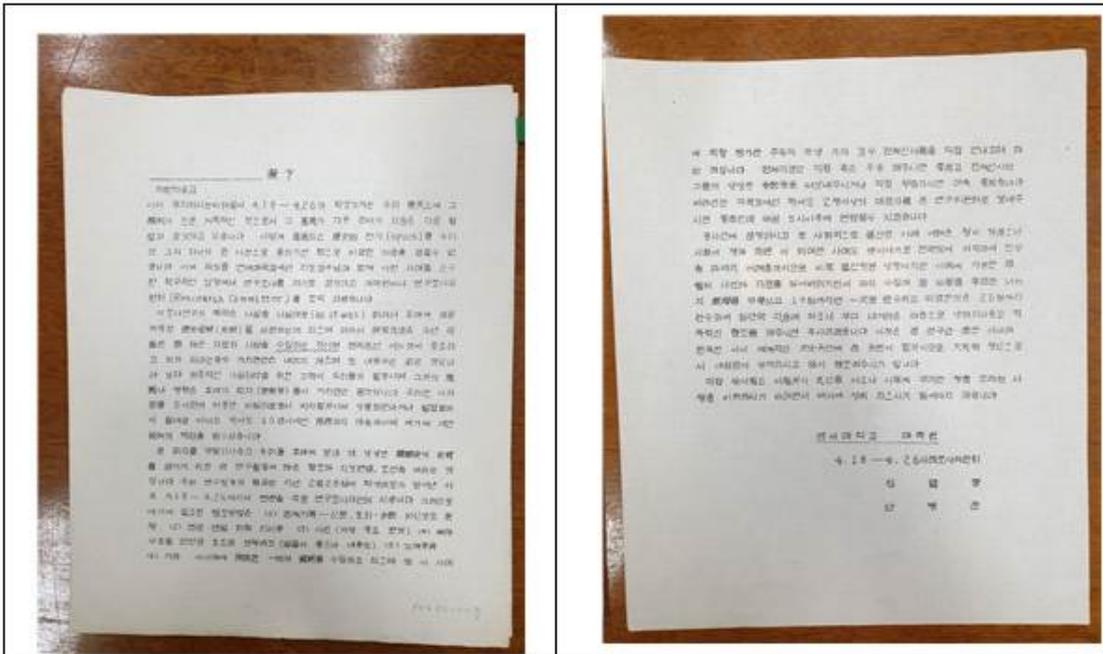
종류	설문내용
부 상 자 실태 조사 서	1. 성명; 한글, 한문, 연령 2. 성별, 현주소, 본적, 입원장소 3. 직업, (학교명)__대학 __과명__학년 4. 군대경험 유무 근무기간 __년__월__일 __입대/_년__월__일__제대, 학보병/일반병 5. 가정환경 (부친의 직업)____ (경제상태) 상/중/하 (가정상황)__父__母__名, 姊__名, 妹__名, 祖__祖母 (가족에서 본인의 위치) 경제적 책임자, 정치적 의견의 리드가, 보통 (본인의 약혼) 했음/않했음 (결혼여부) 결혼/비혼 (연애)유/무 (장래의 희망)____ 6. (학교환경) (학교에서의 활동상황) 적극적/소극적/보통 (학교에서의 직책)____ (교외활동) 적극적/소극적/보통, (참가단체이름)____ 7.(정치에 대한 관심) (선거권소유유무) 소유 유/무 (선거경험) 유/무 (관심정도) 급진적/온건적/보수적 8.(부상정도)(장소)____ 시간 __월__일__시 (그 당시의 모습)____ (부상직전까지 경로)____ (부상당한 물건) 총/몽둥이/기타 (그 당시의 심정)____

[예-데모사항 조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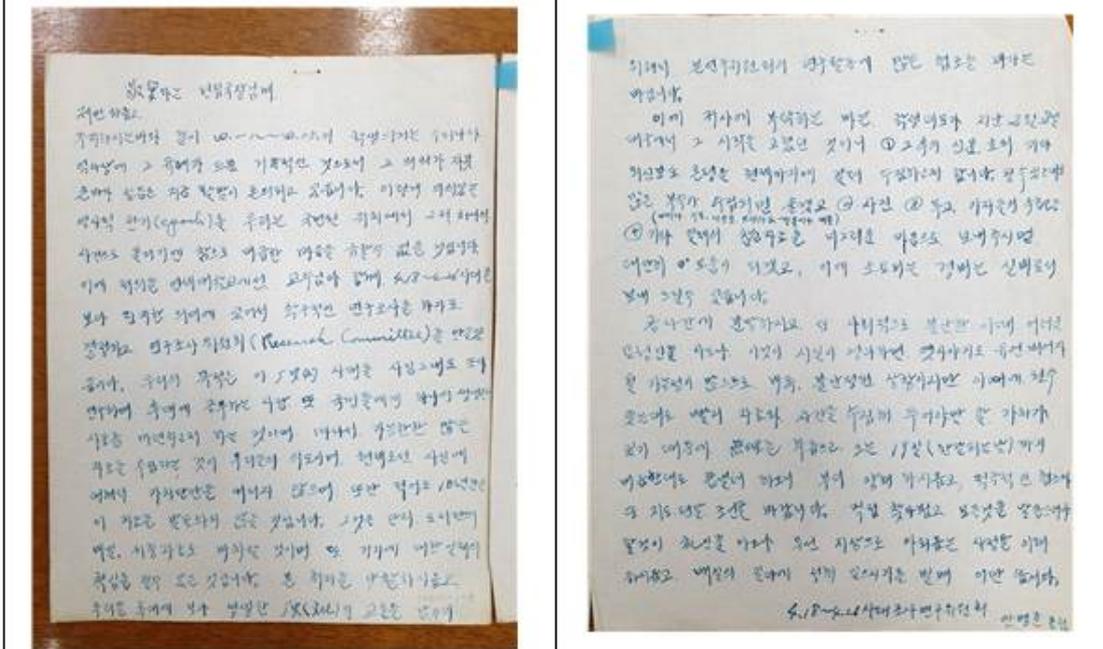
종류	설문내용																																			
데 모 사 항 조 사 서	1. 성명__년령(만__세) 직업(소속)_____희망																																			
	2. 계획 발설시기__일__시__분 어디서_____																																			
	· 발설인물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발설인물 성명</th> <th>년령</th> <th>소속</th> <th>경제사정 上中下</th> <th>가정의직업</th> <th>가정환경 父母兄 別</th> <th>성격</th> </tr> </thead> <tbody>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body> </table>	발설인물 성명	년령	소속	경제사정 上中下	가정의직업	가정환경 父母兄 別	성격																												
	발설인물 성명	년령	소속	경제사정 上中下	가정의직업	가정환경 父母兄 別	성격																													
	· 데모를 하게 된 동기(친구교섭 자발적 감정폭발 계획참여 정치단체 관계유무 기타 자세히_____)																																			
	· 데모계획에 대한 태도(주동 찬조 소극적 무관심 반대)																																			
	· 데모를 한 이유																																			
· 계획시기 일 분 어디서																																				
· 참가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성명</th> <th>소속</th> <th>발언내용</th> </tr> </thead> <tbody> <tr><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r> </tbody> </table>	성명	소속	발언내용																																	
성명	소속	발언내용																																		
· 경과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th> <th>토의사항</th> <th>결의사항</th> </tr> </thead> <tbody> <tr><td>第一次</td><td> </td><td> </td></tr> <tr><td>第二次</td><td> </td><td> </td></tr> <tr><td>第三次</td><td> </td><td> </td></tr> </tbody> </table>		토의사항	결의사항	第一次			第二次			第三次																										
	토의사항	결의사항																																		
第一次																																				
第二次																																				
第三次																																				
3. 시작 출발시일__일__시__분 어디서_____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주의 및 약속</th> <th>주의자 성명</th> <th>소속</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r> </tbody> </table>	주의 및 약속	주의자 성명	소속	내용																																
주의 및 약속	주의자 성명	소속	내용																																	
· 出發하는 방법과 모양																																				
· 준비물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th> <th>수(종류)</th> <th>내용</th> <th>지참자성명</th> <th>내용</th> <th>성격</th> </tr> </thead> <tbody> <tr><td>플랭카드</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구 호</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결의문</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호소문</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기 타</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body> </table>		수(종류)	내용	지참자성명	내용	성격	플랭카드						구 호						결의문						호소문						기 타					
	수(종류)	내용	지참자성명	내용	성격																															
플랭카드																																				
구 호																																				
결의문																																				
호소문																																				
기 타																																				
· 구성 수__명 주동자성명____ 구성(각과별__명 計__																																				
· 학교측과의 관계																																				
· 교수들이 미리 탐지. 연락 유.무 목인 조장 격려 제지 기타 상세히_____																																				
· 본래의 계획 코-스(→ 표로 _____)																																				
· 행사 구호 및 노래종류 행렬구성 제지에 대한 대비																																				

데 모 사 항 조 사 서	4. 진행 코스(→ 표로) • 사건(돌아와 해산시까지 경찰과 충돌, 시민반응, 깡패, 부상, 살상, 공포등 상세하고 자세히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시간</th> <th style="width: 15%;">장소</th> <th style="width: 15%;">사건</th> <th style="width: 15%;">구호 및 노래</th> <th style="width: 15%;">빼라종류</th> </tr> </thead> <tbody> <tr><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r> </tbody> </table>	시간	장소	사건	구호 및 노래	빼라종류															
	시간	장소	사건	구호 및 노래	빼라종류																
	5. 오래머문 곳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장소</th> <th style="width: 15%;">도착시간</th> <th style="width: 15%;">머문시간</th> <th style="width: 15%;">사건</th> <th style="width: 15%;">주동인물</th> <th style="width: 15%;">소감</th> </tr> </thead> <tbody>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body> </table>	장소	도착시간	머문시간	사건	주동인물	소감														
	장소	도착시간	머문시간	사건	주동인물	소감															
• 타데모대와 함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만난장소</th> <th style="width: 15%;">시분</th> <th style="width: 15%;">만난단체이름</th> <th style="width: 15%;">규모</th> <th style="width: 15%;">합류여부</th> <th style="width: 15%;">헤어진장소시기</th> </tr> </thead> <tbody>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body> </table>	만난장소	시분	만난단체이름	규모	합류여부	헤어진장소시기															
만난장소	시분	만난단체이름	규모	합류여부	헤어진장소시기																
• 돌아올 때(코스 → 표로)																					
6.해산시 _____도착시간 ____ 시 __분 장소_____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지시자성명</th> <th style="width: 10%;">소속</th> <th style="width: 20%;">지시자 발언내용</th> <th style="width: 10%;">반응</th> <th style="width: 10%;">소감</th> </tr> </thead> <tbody> <tr><td> </td><td> </td><td> </td><td> </td><td> </td></tr> </tbody> </table>	지시자성명	소속	지시자 발언내용	반응	소감																
지시자성명	소속	지시자 발언내용	반응	소감																	
• 해산방법과 그 모양																					
7. 집에 올때까지 • 코스 • 사건(장소와 사건별로 연행 혹은 기타) • 집에서 일어났던 일 • 연락 및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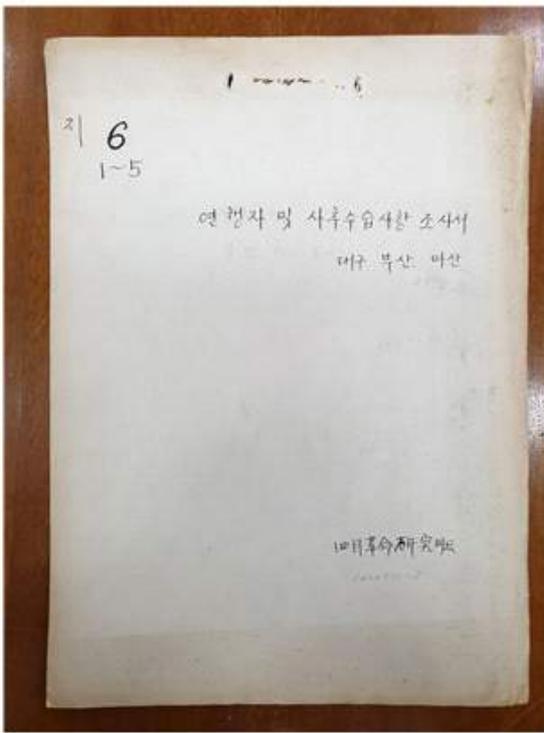
[관련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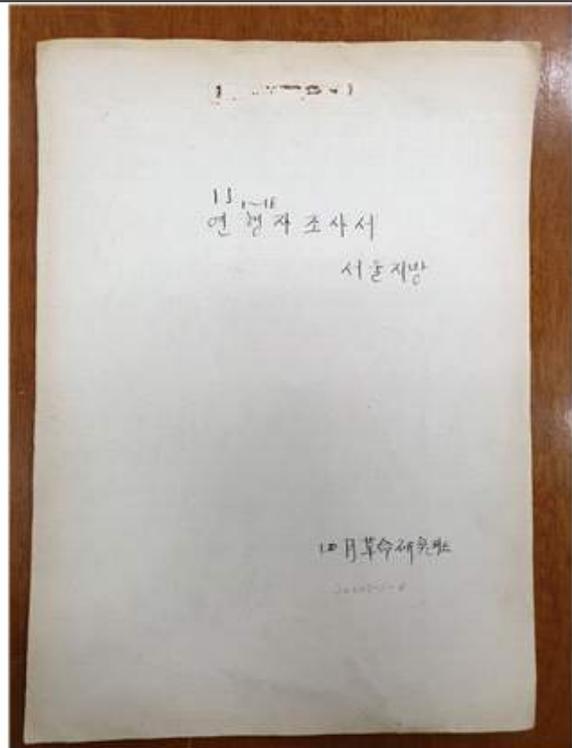
[4월 혁명반 실태조사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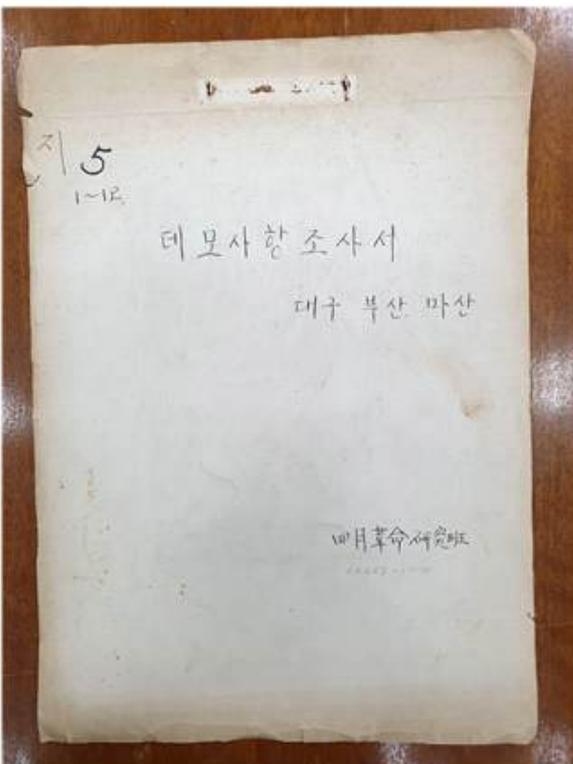
[4월혁명반 실태 조사 협조문-언론사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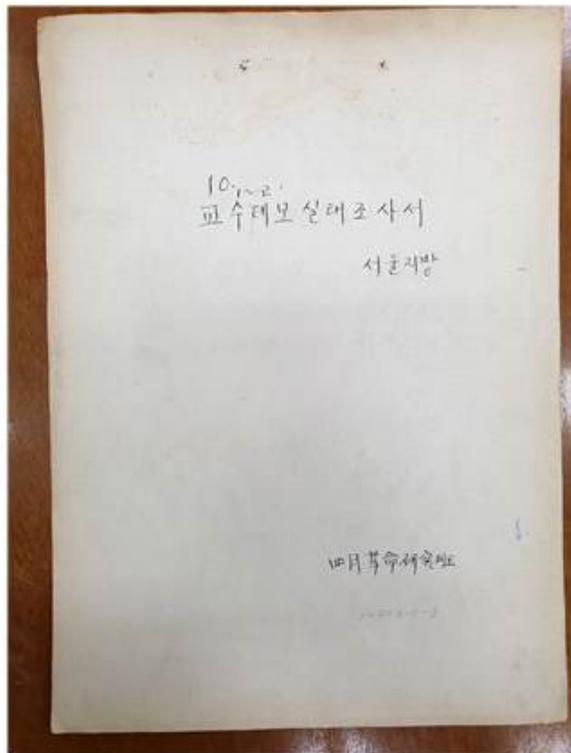
[연행자 및 사후수습 조사서- 지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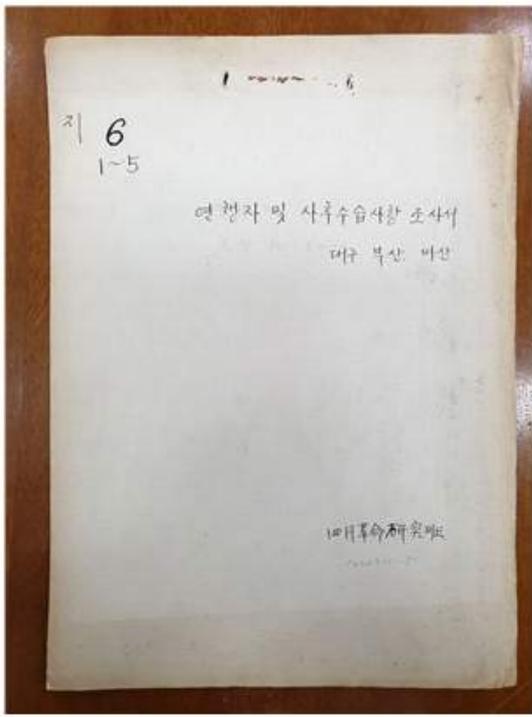
[연행자 조사서-서울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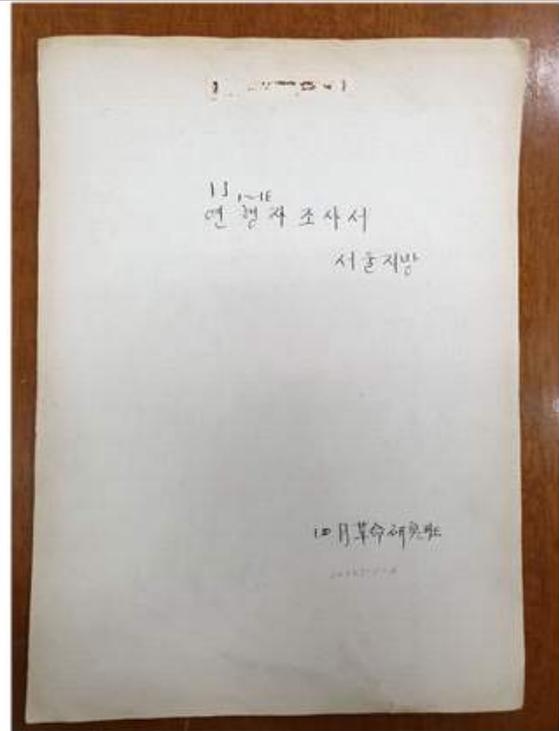
[데모사항조사서-대구 부산, 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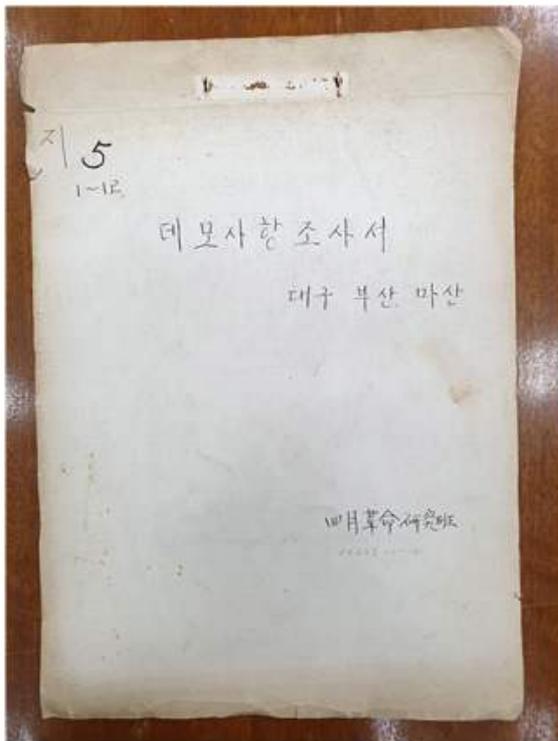
[교수데모 실태조사서-서울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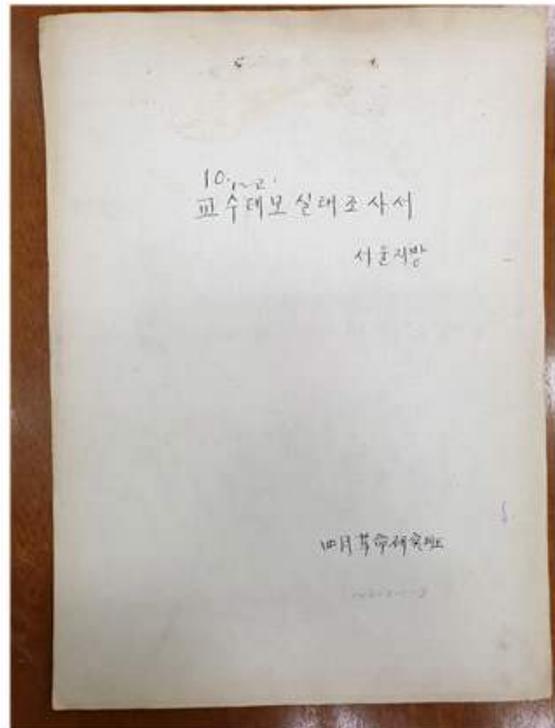
[연행자 및 사후수습 조사서- 지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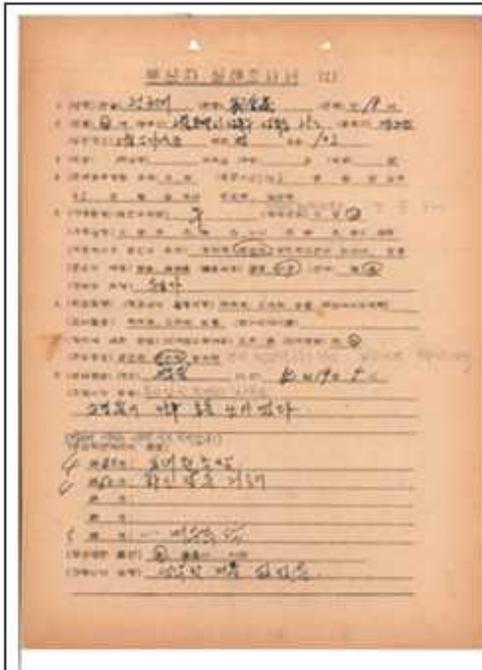
[연행자 조사서-서울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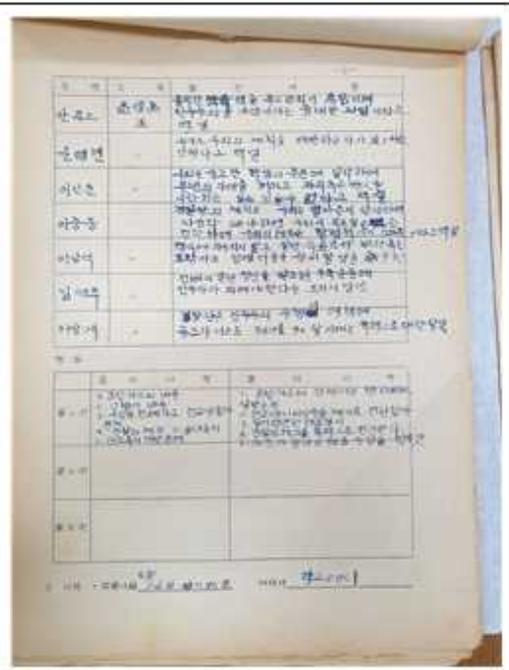
[데모사항조사서-대구 부산, 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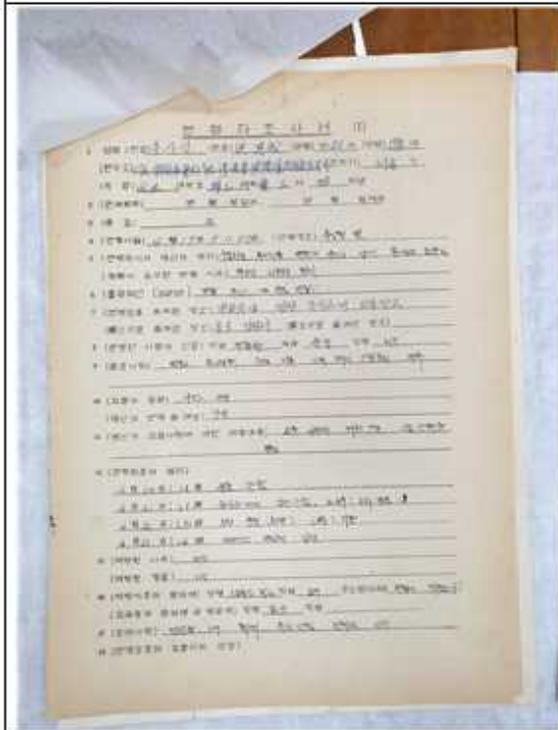
[교수데모 실태조사서-서울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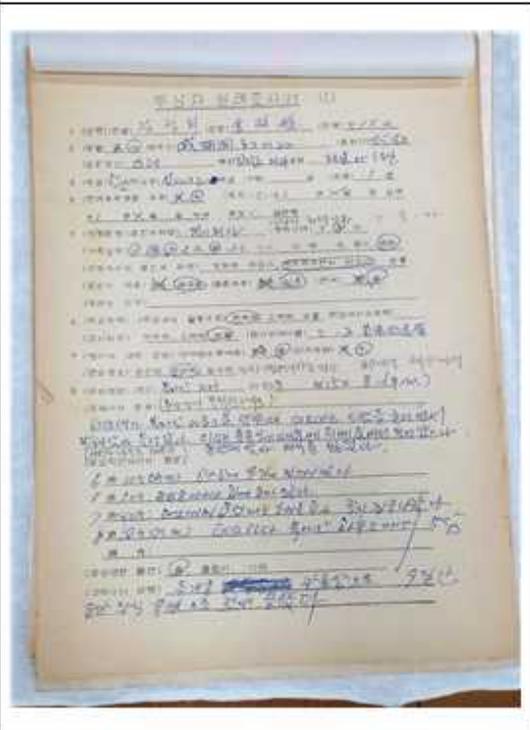
[부상자 실태 조사서]



[데모사항 조사서]



[연행자 실태 조사서]



[부상자 실태조사서]

나) 4·19혁명 계엄 포고문

연세대학교 4월혁명연구반 수집 자료(4.19혁명 계엄 포고문 19종)
비상계엄·포고문 12종·훈시문 1종·공고문 3종·담화문 2종 등 인쇄본
시기 : 1960년 4월 19일~7월 16일(계엄해제)
51×41(계엄선포), 82×54cm(포고문, 공고문), 20×26cm(포고문10호),
110×82cm(훈시문), 41×54cm(담화문1), 54×82cm(담화문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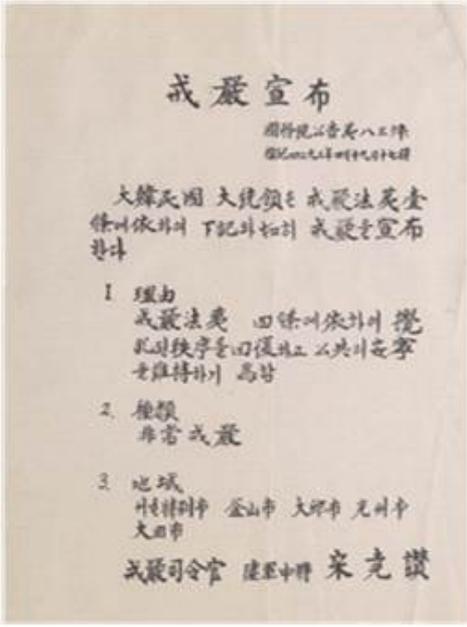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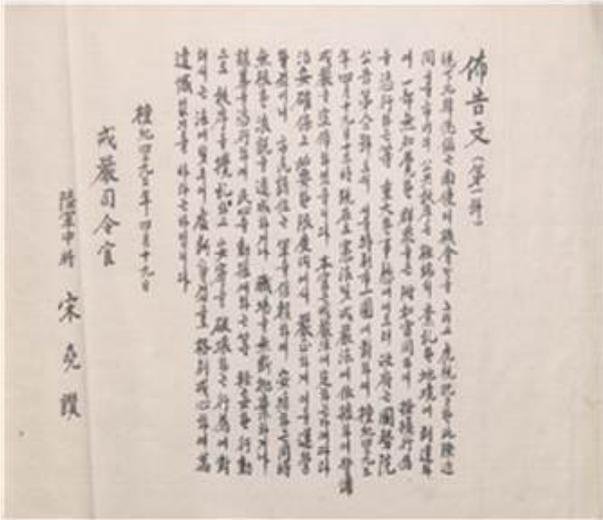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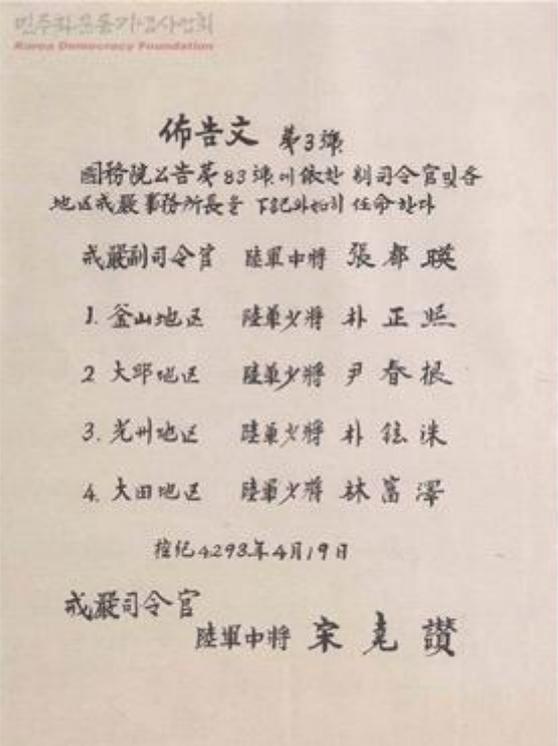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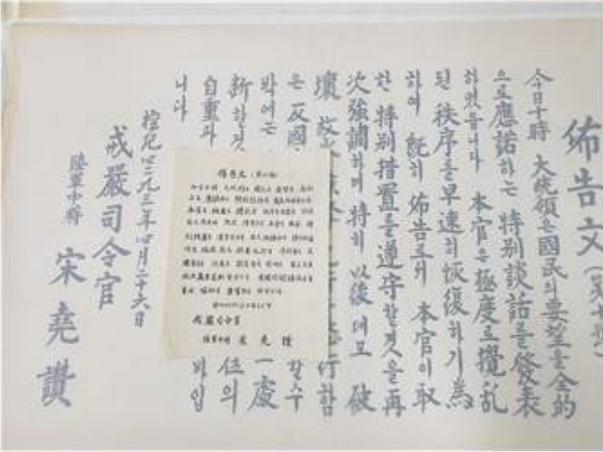
- 「연세대학교 4월혁명연구반 수집 자료(4.19혁명 계엄 포고문 19종)」은 1960년 4월 혁명기 '4월혁명 연구반'에서 관련 기관에 의뢰하여 수집한 당시 비상계엄, 포고문 총 12종, 훈시문 1종, 공고문 3종, 담화문 2종 등이 포함된 19종으로 구성되었음.
- 4월 혁명기 비상계엄령령은 준비계엄(국무원 공고 제 82호)과 비상계엄(국무원 공고 제83호)으로 두 차례 선포되었음. 준비계엄은 1960년 4월 19일 오후 1시를 기해 “騷亂된 秩序를 回復하고 公共의 安寧을 維持하기 爲함”을 목적으로 선포되었음. 준비계엄 선포지역은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부산시, 경상북도 대구시, 전라남도 광주시, 충청남도 대전시에 해당했음.
- 비상계엄은 1960년 4월 19일 오후 5시를 기해 국무회의를 거쳐 공고 83호로 선포되었음. 비상계엄은 “戒嚴法 第四條에 依하여 騷亂된 秩序를 回復하고 公共의 安寧을 維持하기 爲함”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부산시, 경상북도 대구시, 전라남도 광주시, 충청남도 대전시를 대상으로 선포되었음. 계엄사령관에 육군중장(陸軍中將) 송요찬(宋堯讚) 장군이 임명되었음.
- 본 「연세대학교 4월혁명연구반 수집 자료(4.19혁명 계엄 포고문 19종)」에는 1960년 4월 19일 국무회의 의결로 선포된 비상계엄(선포) 1건,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된 포고문이 총 12건(1~4호, 7호, 10호, 13~17호, 19호) 등, 1960년 '4·26 이승만 하야'사태 관련하여 군 장병에게 육군참모총장 송요찬 장군의 '훈시문' 1건, 1960년 5월 연이어 공포된 건축·야간통행금지·집회 관련 공고문 4~6호, 담화문 2건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이상의 문서들은 1960년 4월 19일부터 발표된 비상계엄령 하에 계엄사령관 명의로 내려진 각종 시책, 명령, 담화 등의 내용으로 4월 혁명기 국가가 국민을 관리·통제했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사료로 매우 중요함. 현재 국내에서는 연세대학교 박물관에서만 소장하여 역사적 보존 가치 또한 매우 높음. 「연세대학교 4월혁명연구반 수집 자료(4.19혁명 계엄 포고문 19종)」의 내용은 아래의 [표]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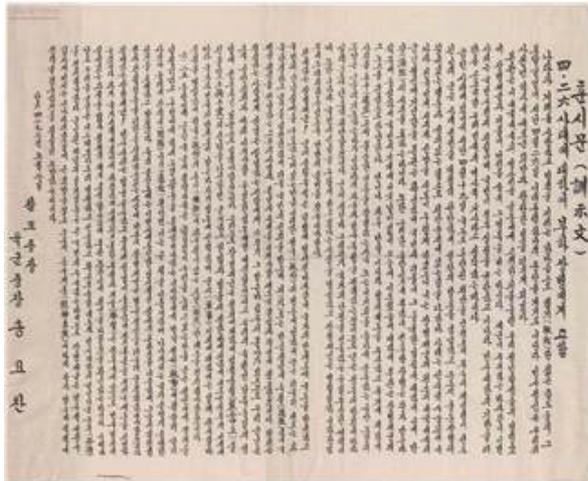
[표] 4.19혁명 당시 계엄선포·포고문 외 19종 분류

구분	건수	내용
계엄선포	1건	1960.4.19. 국무회의 의결 비상계엄 선포건
포고문	1~4호 7호, 10호 13~17호 19호	<p>포고문 1호(1960.4.19.)- 엄중한 시기에 계엄 선포의 중대성과 치안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알리는 포고.</p> <p>포고문 2호(1960.4.19.)-4월 19일 오후 1시 기해 서울지구 치안확보를 위해 경비계엄을 선포하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등의 지구에 비상계엄을 선포</p> <p>포고문 3호(1960.4.19.)-국무회의 의결로 계엄사령관 및 부사령관·각 지구계엄사무소장 임명에 대한 포고</p> <p>포고문 4호(1960.4.20.)-국민의 생명, 재산보호 및 질서를 위해 폭동세력의 철저 색출을 단행할 것인바 외출을 최대한 자중할 것 등 협조 요청 포고</p> <p>포고문 7호(1960.4.22.)- 광주지구 통행금지 시간을 23일 05시를 기해 밤 9시부터 새벽 5시로 2시간 단축할 것, 초등학교 등교를 25일부터 허락함 등</p> <p>포고문 10호(1960.4.26.)-비상계엄 하에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된 특별조치들을 준수할 것을 재차 강조</p> <p>포고문 13호(1960.4.27.)-4월 28일 새벽 0시를 기해 서울지구 통금시간을 21시부터 익일 05시로 기함, 4월 28일 이후 계엄지구내 초등학교 아동의 등교 허락함</p> <p>포고문 14호(1960.4.27.)-치안상태가 회복되어감에 따라 비상조치 일부 완화할 것, 각 대학은 4월 29일부, 중고등학교는 5월 2일로 등교중지 해제할 것 등</p> <p>포고문 15호(1960.4.30.)-서울지구 야간통행금지 시간을 5월 1일 기해 22시부터 익일 05시로 단축 실시 포고</p> <p>포고문 16호(1960.5.3.)-치안과 질서는 대체적으로 안정되었으나 사전승인 없는 전단과 벽보의 게시불가 알림 포고</p> <p>포고문 17호(1960.5.3.)-서울지구 야간통행금지 시간을 5월 4일 0시를 기해 24시부터 익일 05시로 단축 알림</p> <p>포고문 19호(1960.5.10.)-부산지구에 5월 5일에 내려진 언론·보도통제는 5월 11일 05시를 기해 해제함을 알림</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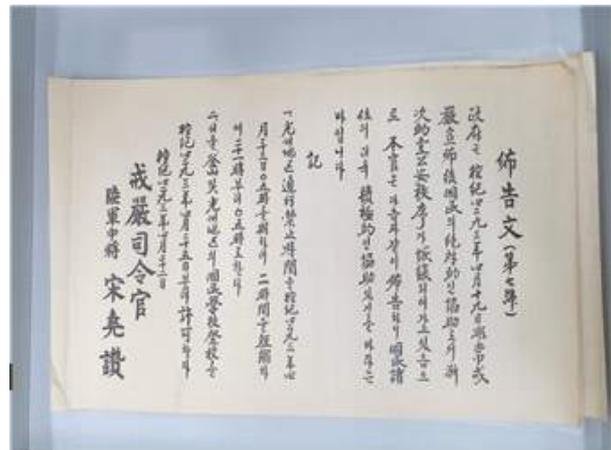
<p>훈시문</p>	<p>1건</p>	<p>1960.5.2. 이승만 대통령의 ‘4.26 하야’ 사태에 관하여 군 장병들에게 육군참모총장 송요찬의 ‘훈시문’</p>
<p>공고문</p>	<p>4~6호</p>	<p>공고문 4호(1960.4.27.)-소란기를 틈타 도심지대 및 외부에서 각종무허가 건축이 성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당국의 도시계획사업에 큰 지장을 초래하므로 즉각 철거할 것 공고문 5호(1960.5.4.)-야간통행금지 제한에 대한 공고 공고문 6호(1960.5.10.)-국내 혼란을 미연방지하고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해 집회 1주일 전 관할 경찰서에 신청서 제출 후 계엄사령관의 허가 하에 집회 가능절차를 포고</p>
<p>답화문</p>	<p>2건</p>	<p>학교 수업 개시 답화문(1960.4.25.)-4월 19일 이후 각급 학교 문을 재개 관련 답화문. 초등학교(25일), 중학교(27일), 고등학교 및 대학교(29일)의 재개를 알리면서 학도 제군과 교육자에게 주의할 사항을 포고 병원장 및 환자 답화문(날짜 미상)-4.19와 4.26 이후 계엄 사령관이 병원장과 환자에게 내린 명령으로 병의 중함과 관계없이 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 것 등 당부</p>

[관련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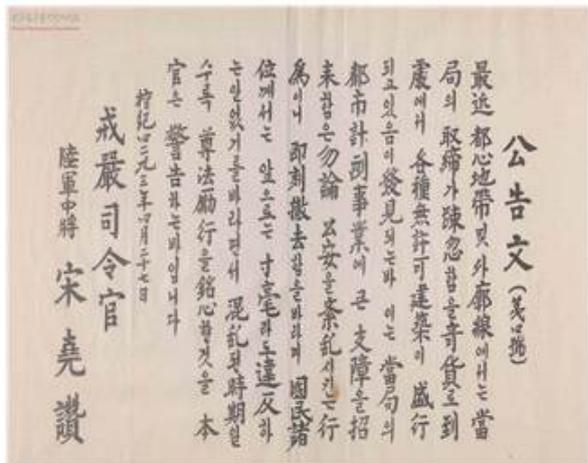
 <p>戒嚴宣布 國務院公署第八二號 陸軍中將 宋堯讚</p> <p>大韓民國 大統領 戒嚴法 查條에依하여 下記와如히 戒嚴을宣布한다</p> <p>1. 理由 戒嚴法 查條에依하여 攪亂의秩序을回復하고 公共의安寧을維持하기 爲함</p> <p>2. 種類 非常 戒嚴</p> <p>3. 地域 州 蔚山 釜山 大邱 光州 大田</p> <p>戒嚴司令官 陸軍中將 宋堯讚</p>	 <p>佈告文 (第一號)</p> <p>陸軍中將 宋堯讚</p>
<p>(비상)계엄선포 (계엄사령관)</p>	<p>포고문 제1호 (계엄사령관)</p>
 <p>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Munghwa Democracy Foundation</p> <p>佈告文 第3號 國務院公署 83 號에依하여 各司令官 및 各 地區戒嚴事務所長을 下記와如히 任命한다</p> <p>戒嚴副司令官 陸軍中將 張都 聯</p> <p>1. 釜山地區 陸軍少將 朴正 熙</p> <p>2. 大邱地區 陸軍少將 尹春 根</p> <p>3. 光州地區 陸軍少將 朴 德 洙</p> <p>4. 大田地區 陸軍少將 林富 澤</p> <p>陸紀 4293 年 4 月 19 日</p> <p>戒嚴司令官 陸軍中將 宋堯讚</p>	 <p>佈告文 (第十號)</p> <p>陸軍中將 宋堯讚</p>
<p>포고문 3호(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p>	<p>포고문(제10호) 계엄사령관</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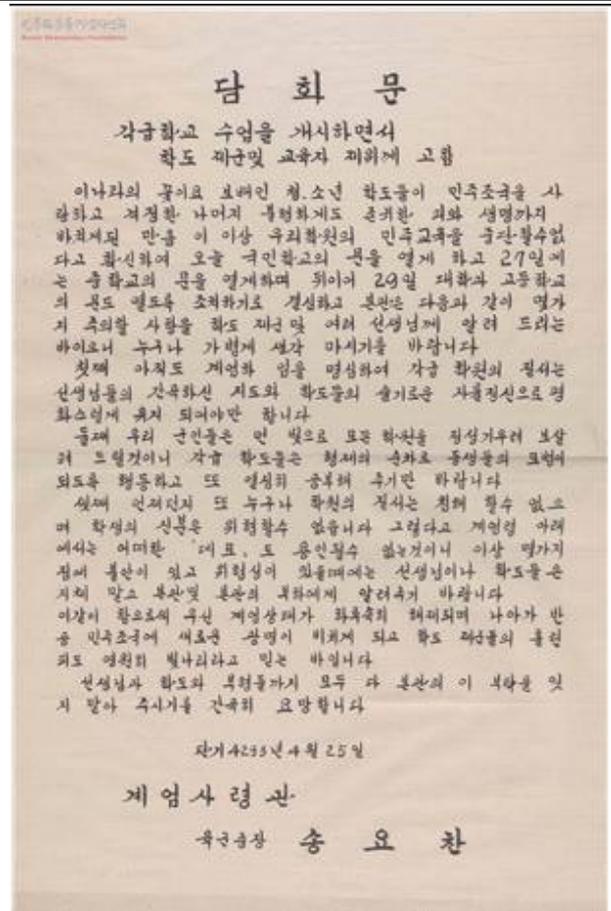
훈시문(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포고문7호(계엄사령관)



공고문 4호(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담화문(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3) 기타

○ 4·19혁명 참여자 구술 조사서

- 「연세대학교 4월혁명연구반 수집 자료(4·19혁명 참여자 구술 조사서 11종)」은 1960년 연세대학교 '4월혁명연구반'에서 서울 마산, 대구, 부산, 대전, 수원, 전주, 충주 등의 학교, 언론사, 정당, 사회단체 등에 직접 방문 또는 협조 요청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수집한 구술조사서들로 당사자들로부터 기증받아 현재 연세대학교 박물관에 보관되고 있음. 본 문화재의 명칭 「연세대학교 4월혁명연구반 수집 자료(4·19혁명 참여·관련자 구술 조사서 11종)」은 조사 대상인 '인근주민 목격자'의 '혁명 참여' 포함 여부에 따라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현재까지 4월혁명기 역사 사료로 본 문화재와 동일한 유형의 구술 자료는 확인된 바 없음.

4)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가) 4·19혁명 참여자 구술 조사서

- 한국사회 민주주의 이행과정에서 1960년 '4월혁명'은 최초의 시민혁명이자 사회혁명으로 역사적 의의가 있음. 본 「연세대학교 4월혁명연구반 수집 자료(4·19혁명 참여자 구술 조사서 11종)」은 4월혁명의 현장성 사실성을 확인하고 역사적 의미를 파악하는데 유의미한 역사적 구술 사료로 평가됨. 특히 1960년 4월 혁명 당시 '현장자료 수집·조사'를 목적으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 중심으로 조직된 '4월혁명연구반'의 여론 조사활동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역사적 평가 대상임. 구술조사 대상을 부상자·데모자·연행자·교수단데모 참여자·사후수습상태·현장 목격자·학생수기 등 매우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제시함으로써 4월혁명 당시 시위 참여자들의 구체성,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실증자료로 매우 가치가 높음. 특히 구술조사 대상별로 설문 내용을 매우 구체적·사실적으로 접근하여 시위 참여자의 계층별 정치의식·사회의를 범주화할 수 있을 만큼 사료적 가치가 높음. 무엇보다 마산, 대구 등 지방의 경우 2·28, 3·15 시위 참여자들의 당대 직접 구술 기록으로는 현재 남아 있는 유일한 자료로 사료됨. 따라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34조에 의거하여 「연세대학교 4월혁명연구반 수집 자료(4·19혁명 참여·관련자 구술 조사서 11종)」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나) 4.19혁명 계엄 포고문

- 1960년 4월 혁명은 한국사회 민주주의 이행과정에서 최초의 민주혁명·시민혁명으로 역사적 의의를 가짐. 본 「연세대학교 4월혁명연구반 수집 자료(4.19혁명 계엄 포고문 19종)」은 1960년 4월 혁명기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4년생(김달중·안병준)들이 시위 현장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조직한 '4월혁명 연구반'의 실체를 확인하고 이들이 수집조사하여 4월혁명기 사회상을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사료로 가치가 큼. 「연세대학교 4월혁명연구반 수집 자료(4.19혁명 계엄 포고문 19종)」은 당시 관계기관에 의뢰하여 수집한 비상계엄, 포고문 총 12종, 훈시문 1종, 공고문 3종, 담화문 2종 등 19종으로 구성되었음.

- 위 유물은 특히 1960년 4월 19일 국무회의 의결로 결정된 비상계엄 선포,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포된 각종 포고문 등을 통해 4월혁명기 비상계엄 하 사회상과 국가의 대국민 관리·통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사료로 현재 국내에서는 연세대학교 박물관에서만 소장하고 있어 보존가치 또한 매우 중요함. 이상을 근거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34조에 의거하여 본 「연세대학교 4월혁명연구반 수집 자료(4.19혁명 계엄 포고문 19종)」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

1) 현상

- 계엄포고문류는 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조사기록물의 경우 대체로 보존상태가 양호하나 일부 재질의 변색이 확인됨

2) 내용 및 특징

가) 4월혁명연구반의 실체와 활동의 사실 여부

- 1960년 4.19혁명 직후 연세대학교 ‘4월혁명연구반’이 수집한 계엄포고문 원자료들과 서울과 주요 지방을 대상으로 한 ‘데모 사항 조사서’, ‘연행자 조사서’, ‘부상자 실태조사서’, ‘4.19데모 목격자 및 인근 주민의 조사서’, ‘교수 데모 실태 조사서’ 등이 주요 구성을 이루고 있음. 이 자료들은 4.19혁명 당대에 직접 수집된 자료들로서 시위 참가자들과 목격자 등을 포함한 직접 진술을 기초로 하여 1차 사료로서의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먼저 이 자료들을 수집한 ‘4월혁명연구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이 자료군에 포함돼 있는 ‘4월혁명연구반에 관한 건’이라는 문건(그림1 참조)을 통해 대강의 사실을 파악할 수 있음. 즉 이들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사실의 진상과 대내외의 반응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 수집으로 설정하였음. 이튿날 4월 28일부터 연구에 착수했음을 밝히고 있으며, 지도교수 김하태, 홍이섭, 조순승과 이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담당한 당시 정외과 4학년 김달중, 안병준 등이 핵심적 역할을 하였음.
- 위의 문건에서 이들은 연구 대상 시기를 2.28시위로부터 국회해산시(법적으로는 7.29총선 전날까지를 의미함)까지로 하였음. 연구 대상지역은 서울, 마산, 대구, 부산, 기타(대전, 수원, 전주, 충주 등)로 하였고, 조사 시기는 6월 14일부터 7월 14일까지로 돼있음. 이어 자료 정리 및 보고서 작성 시기를 7월 17일부터 8월 17일까지로 제시하고 있음. 따라서 이 자료 수집 활동의 시점은 1960년 4월 말부터 8월까지로 특정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로 계획된 4월혁명연구반의 일정표 메모(본 자료군에 포함)를 참고하더라도 활동 시점이 확인됨. 또한 본 자료군에 포함된 해당 시점을 알 수 있는 우편물 영수증 등도 4월혁명연구반의 실체와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들이라고 할 수 있음

(그림2 참조). 즉 마산고등학교 교장 등 10여개 학교 앞으로 보낸 특수우편물 발송 영수증(6월 26일자 소인이 찍혀 있음)과 6월 17일자 김달중 명의의 영수증, 받는 사람 안병준 명의의 6월 22일자 수취인 영수증 등 당시 이들의 활동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을 통해 ‘4월혁명연구반’의 실체와 활동 사실을 알 수 있음. 위와 같이 4월혁명연구반의 실체와 활동 내용의 사실 여부를 인정할 때, 이들이 수집 또는 기록, 정리한 문서들의 의의와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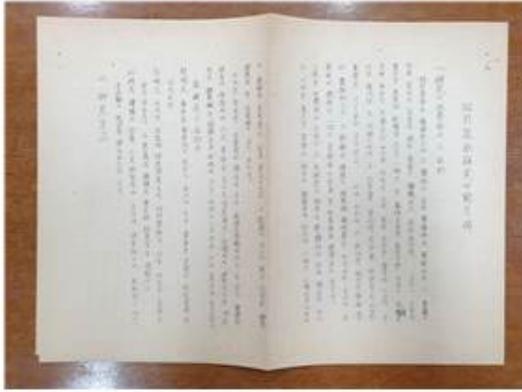


그림1



그림2

나) 계엄포고문 자료군

- 수집된 당시 계엄포고문류는 다음과 같이 총 19점임(표1 참조). 부분적으로 결락된 호가 있으나 4.19시기 계엄포고문류가 원본 그대로 보존된 유일본일 가능성이 큼.
- 포고문류를 분류하면 계엄선포문, 포고문, 훈시문, 공고문, 담화문 등으로 구분이 가능함(그림3, 그림4 등 참조). 4월혁명연구반에서 이 포고문류를 원본 상태로 입수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소장처인 연세대학교 박물관 학예사의 설명에 따르면, 포고문류는 당시 계엄사 인쇄담당 부대에서 보관 중인 것을 직접 입수하였기에 좋은 상태의 원본을 구한 것이라고 함. 백낙준 총장 명의의 공문과 언더우드 가문의 도움을 받았다고 함. 이와 관련하여 김달중, 안병준의 증언(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의 오픈 아카이브: <http://archives.kdemo.or.kr/oral-archives/view/81>)에 의하면, 4월혁명연구반의 활동을 제일 먼저 제안한 사람은 당시 한미재단의 책임자였던 리차드 언더우드(호러스 언더우드의 동생)였다고 함. 또한 처음에 한미재단의 자금 지원에 따라 활동이 이루어지다가 이후 연세대 대학원(대학원장: 김하태)의 프로젝트로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것. 이러한 과정을 고려할 때, 이 포고문류의 입수 시점은 계엄사령부가 아직 존재하고, 백낙준 총장(1960. 5. 퇴임)과 한미재단측의 호의적인 도움이 가능했던 4월혁명연구반의 활동 초기, 즉 4.19 직후였던 것으로 가늠할 수 있음.

<표1>

점명	규격 (mm)
계엄선포 (60.04.19)	270X403
계엄사령부 포고문 제1호 (60.04.19)	510X410
계엄사령부 포고문 제2호 (60.04.19)	533X415
계엄사령부 포고문 제3호 (60.04.19)	270X402
계엄사령부 포고문 제4호 (60.04.20)	816X538
계엄사령부 포고문 제7호 (60.04.22)	816X538
계엄사령부 포고문 제10호 (60.04.26)	816X538 197X256
계엄사령부 포고문 제13호 (60.04.27)	816X534
계엄사령부 포고문 제14호 (60.04.27)	816X534
계엄사령부 포고문 제15호 (60.04.30)	816X538
계엄사령부 포고문 제16호 (60.05.03)	816X534
계엄사령부 포고문 제17호 (60.05.03)	816X538
계엄사령부 포고문 제19호 (60.05.10)	816X534
계엄사령부 훈시문 - 4.26사태에 대하여 부하 장병에게 고함 (60.05.02)	1073X813
계엄사령부 공고문 제4호 (60.04.27)	816X538
계엄사령부 공고문 제5호 (60.05.04)	816X534
계엄사령부 공고문 제6호 (60.05.10)	816X534
계엄사령부 담화문 - 병원장 및 환자귀하	405X534
계엄사령부 담화문 - 각급 학교 수업을 개시하면서 학도 제군 및 교육자 제위께 고함 (60.04.25)	816X534



그림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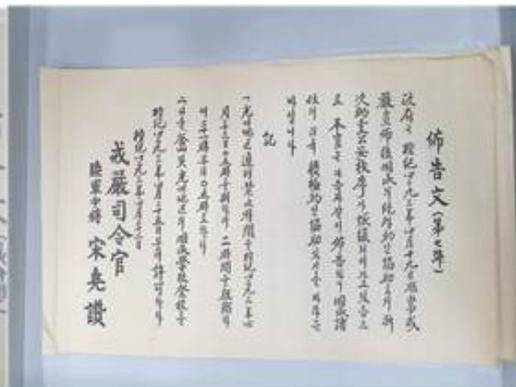


그림4

다) 4월혁명연구반 명의의 각종 조사기록물

- 먼저 ‘데모 사항 조사서(서울지방)’의 양식은 다음과 같음. 성명, 연령, 직업, 계획 발설 시기, 어디서 등의 항목과 발설인물의 성명, 연령, 소속, 경제사정(상중하), 가장의 직업, 가정환경(부모 형편), 성격 등을 묻고 있음(그림5, 그림6 등 참조).
- 앞에서 소개한 4월혁명연구반 관련 문서군에는 그밖에 군인 대상의 조사서 초안, 연구반 활동 관련 수첩 메모지, 안병준 명의로 된 언론사 편집국장에게 보내는 서한문(자료 협조 의뢰) 원본(그림7 참조) 등이 포함돼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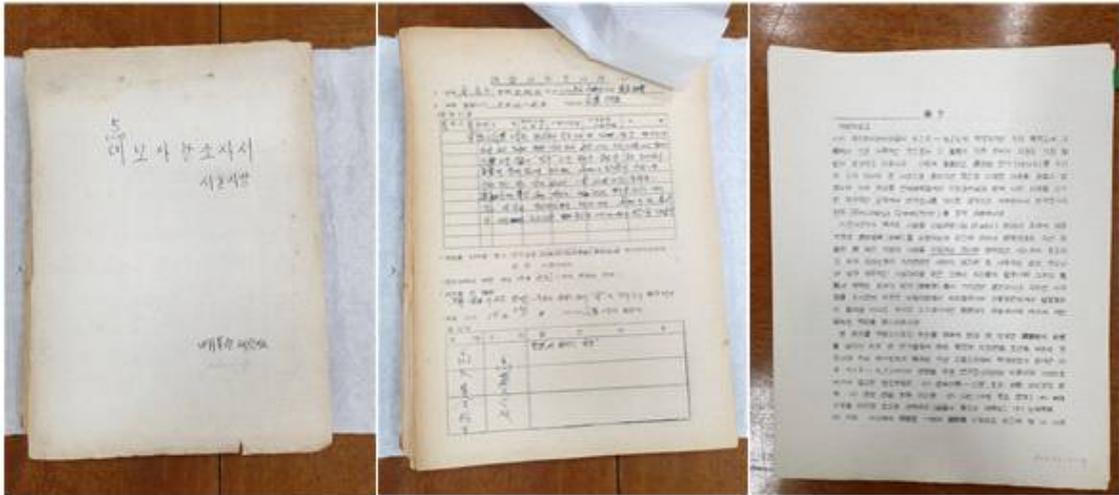


그림5

그림6

그림7

- ‘데모 사항 조사서(대구, 부산, 마산)’ 양식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성명, 연령, 직업, 계획, 발설 시기, 어디서, 발설 인물(성명, 인물, 소속, 경제사정 등), 데모를 하게 된 동기, 데모 계획에 대한 태도, 데모를 한 이유, 계획 시기, 참가자(성명, 소속, 발언내용 등), 구성 수, 주동자 성명 등. 이같은 질문을 한 이후 학교측과의 관계, 본래의 계획 코스, 진행 코스 등을 자세히 질문함(그림8, 그림9 등 참조).
- 위 조사에 따라 4월 12일 데모 계획 등을 논의한 창신고생의 기록을 비롯하여 마산제일여고, 마산여고, 대구고등학교, 경북고등학교, 부산고등학교, 부산 동래고, 마산 일반시민들의 기록을 입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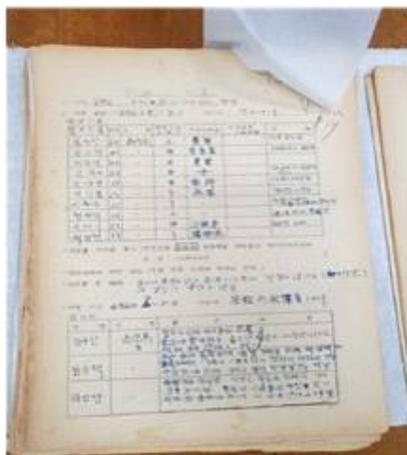


그림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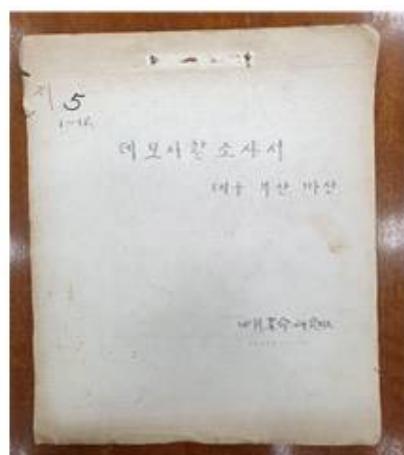


그림8

- ‘연행자 조사서(서울지방)’의 양식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문하고 있음. 성명, 연령, 성별, 현주소, 본적지, 직업, 군대 복무, 종교, 연행일시와 장소, 연행 당시 행위, 경찰이 연행 이유, 붙잡혀간 코스, 연행 후 유치장소, 연행자의 신분, 문초 사항, 고문 종류, 반항 태도, 대답 내용, 연행 후 일지, 석방 이유, 석방 후 문의객, 손해 사항, 연행시 감정, 현재의 감정, 손해배상 청구 등 매우 많은 항목을 제시함 (그림10, 그림1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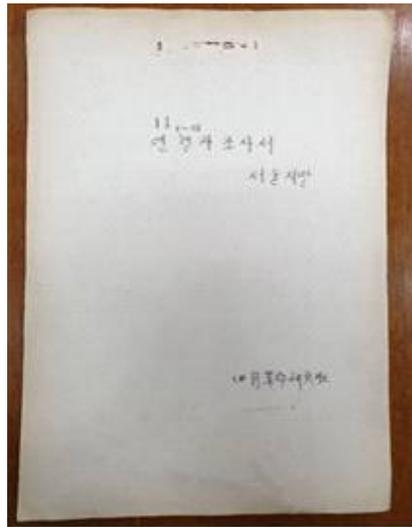


그림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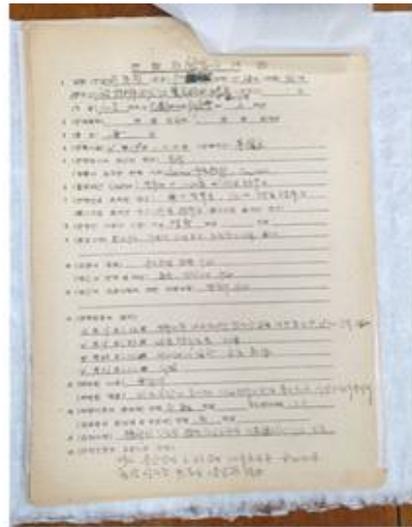


그림11

- ‘부상자 실태 조사서(대구, 부산, 마산)’ 양식의 경우, 신상관계를 쓰게 한 후 정치에 대한 관심, 부상 경로, 시간, 부상당한 물건(총 또는 몽둥이 등), 당시 심정, 병원에서의 심정, 현재 심정, 데모 이전의 모습, 본인의 주장, 부상 실태, 맞은 부분, 소감, 자료, 구호, 플랭카드, 시민 경찰관 군인들 동행자에 대하여 묻는 등 방대한 질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그림12, 그림13 등 참조).
- ‘부상자 실태 조사서(서울지방)’의 경우, 위의 양식과 동일함.
- ‘4.19데모 목격자 및 인근 주민의 조사서(서울지방)’의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음. 데모대의 수, 당시 기분, 데모대의 요구, 당신은 어떻게 했나, 경찰 동향, 학생수와 경찰수, 이승만 하야해야 하나?, 각 정당 또는 인물 등에 대한 질의, 개헌에 대해, 과도내각에 대해 등등 4.19혁명 정국 전반에 대해 문의하고 있음(그림14, 그림15 등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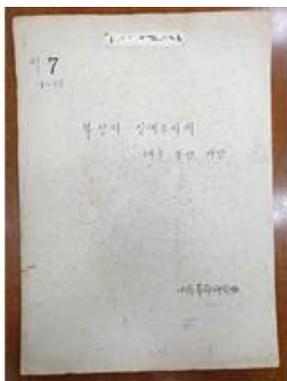


그림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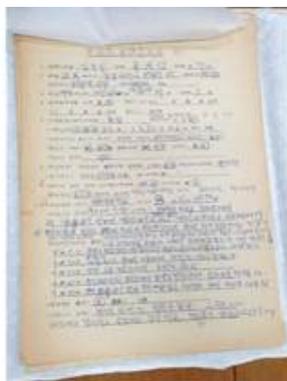


그림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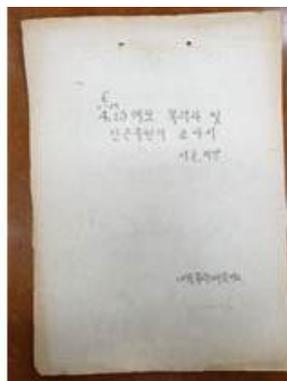


그림14



그림15

- 그밖에 ‘교수 데모 실태 조사서(서울지방)’, ‘사후 수습 사항 조사서(Ⅰ)’, ‘연행자 및 사후 수습사항 조사서(대구, 부산, 마산)’ 등으로 문서군이 구성되어 있음.
- 위와 같은 조사기록을 담당한 김달중, 안병준은 오픈 아카이브 증언에서 YMCA 등과 같은 기독교 학생조직의 인맥(김달중은 연세대 기독교학생회(SCA) 회장이었음)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의 정외과 네트워크를 주로 활용하여 조사활동을 했다고 함.

3) 기 타

- 김달중, 안병준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미대사관 문정관 그레고리 헨더슨은 이들에게 수집한 자료를 미국 측에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집요하게 설득하였으나 거절하고 연세대 도서관 희귀자료실에 봉인한 채 보관해 왔다고 함.

4)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1960년 4.19혁명 직후 연세대 4월혁명연구반 명의의 자료 수집 및 조사 작업은 4.19혁명에 참여한 주체들과 목격자 그리고 군의 공식적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있는 1차 자료라고 할 수 있음. 일부 결락이 있지만 4.19 당시 계엄사의 포고문이 거의 완벽한 상태의 원본으로 보관되어 있는 점, 4.19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객관적, 심층적 조사기록들 또한 무엇보다 당대의 생생한 기록이라는 점, 특히 당사자들이 직접 조사에 응하여 작성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인정됨.

7. 「고려대학교 4·19혁명 자료」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재 「고려대학교 4·19혁명 자료」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고려대학교 4·19혁명 자료」는 4·19혁명 분야 문화재 관련 지자체 및 유관기관 유물 추천(‘20.1월) 등록 추진 자문회의(‘20.1.20.) 등을 통하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3.10.)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고려대학교 총장
- (2) 대상문화재

문화재명	수량	규격	제작년대	소유자	소재지
4·19혁명 고려대학교 부상학생 조사서	3건 12점	18cm × 26cm 등	1960년	고려대학교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박물관
1960년 4월18일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 머릿수건	1건 3점	28 × 66cm	1960년		
재일한국학생정신대 성명서 유인물	1건 1점	35.3 × 25.5cm	1960년		

-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문화재 등록 명칭 부여 검토의견 - 고려대학교 학생 부상자 명단 】

- 4.19혁명 참여 고려대학교 학생 부상자 명단

- (4) 추진경과

- (‘20.1월) : 관련 지자체 및 유관기관을 통한 유물 추천(179건)
- (‘20.1.20.) : 4·19혁명 분야 문화재 등록 추진 자문회의(7건)
- (‘20.3.10.)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붙임>

「고려대학교 4·19혁명 자료」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고려대학교 4·19혁명 자료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박물관
3. 소유자 : 고려대학교
4. 조사자 의견('20.3.10.)

<문화재위원 ○○○>

1). 현상

- 가) 4·19혁명 참여 고려대학교 학생 부상자 명단 : 4.19 혁명 당시 부상한 학생들을 조사한 문건의 초안 2건과 정서본 1건임. 고려대학교 문서 용지에 기록되어 있음.
- 나) 고려대학교 4·18의거 머릿수건 : 수건을 이용해 만든 머릿수건 3점으로, 4.18 의거 당시 학생들이 착용했던 것임. 그중 1점은 액자 안에 보관되어 있음.
- 다) 재일한국학생정신대 성명서 : 재일한국학생 정신대 성명서 1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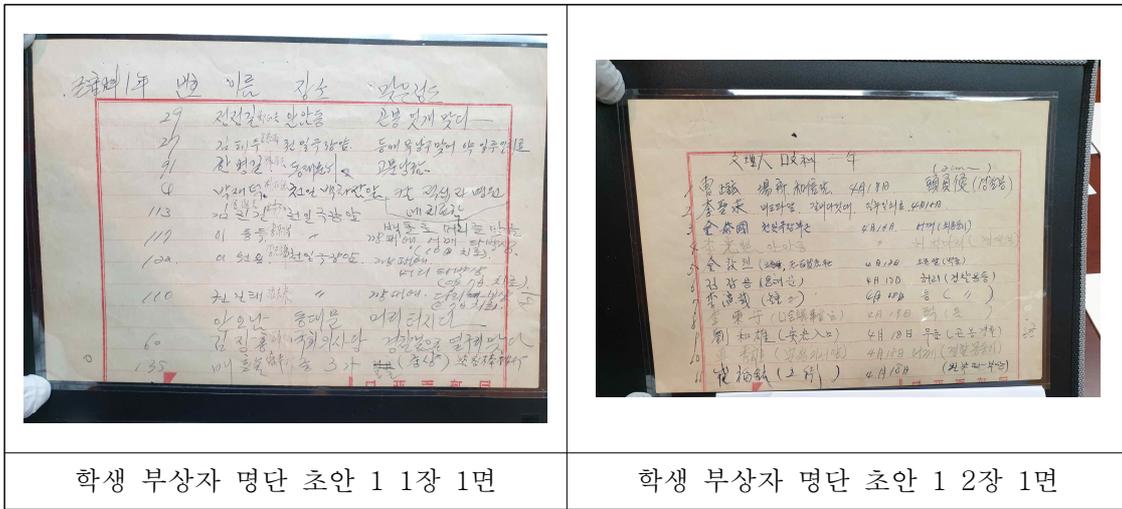
2) 내용 및 특징

- 유물의 배경 :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에서는 1960년 당시 4월 16일에 전체 신입생 환영회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이때 시위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를 경찰이 눈치 채서 4월 18일로 행사를 연기함. 4월 18일 행사에서 학생들 3000여 명은 "민주역적 몰아내자"라는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태평로 국회의사당 앞까지 행진했으며, 행진 도중 경찰의 곤봉에 맞은 학생도 있고, 학교로 복귀하는 도중 정치깡패들의 습격을 받아 부상당한 학생도 있음.
-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학생 부상자 명단 초안 및 정서본, 그리고 머릿수건은 이 당시 시위와 관련한 물품임. 고려대학교에서는 고려대학교 사의 중요한 사료로 박물관에서 보존 및 전시하고 있음.
- 재일한국학생 정신대 성명서는 재일한국학생 정신대 대표 홍성정이 재일대한민국 거류민단과 재일대한청년단과 함께 이승만의 퇴진을 요구하는 데모를 주도하여 왔으며, 이승만 정권 퇴진을 이끌어 낸 한국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내용임. 성명서의 날짜는 4월 28일로 되어 있음.

가) 학생 부상자 명단 초안 및 정서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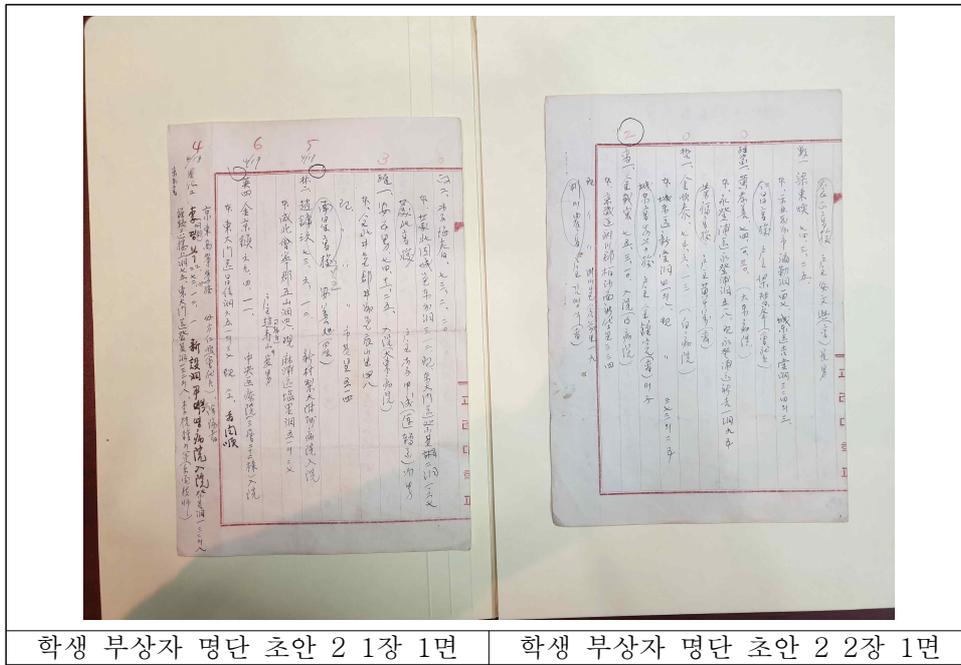
- 학생 부상자 명단 초안 및 정서본은 초안 2점과 정서본 1점으로, 4월 18일 당시 부상당한 고려대학교 학생의 명단을 정리한 기록물임. 모두 25.8x17.5cm 규격의 고려대학교 문서 용지에 작성되어 있음. 이 문서들은 원래 행정적으로 보존되었으나 고려대학교 역사를 정리하면서 박물관으로 이관된 문서들임.
- 초안 1은 7장, 초안 2는 2장, 정서본은 3장이며 앞뒤면에 기록되어 있음. 초안은 명단을 쓴 글씨가 각각 달라서, 부상자 본인이 쓴 것도 있고 조사자가 쓴 것도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정서본은 일정한 글씨로서, 초안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보임.
- 초안 1은 문서 용지에 가로와 세로 쓴 것이 혼재되어 있으며, 학과 및 학년별로 번호, 이름, 장소, 맞은 정도를 조사하여 기록함. 처음에는 한글로 이름을 썼으나 나중에 한자를 찾아서 작은 글씨로 덧붙인 것으로 보임.
- 문서 작성 날짜는 정확하지 않으나, 초안 1의 13면(7장의 앞면)에 “6월 16일 현재”라는 기록으로 보아, 최종적으로는 6월까지도 조사하여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장/면	소속	부상 인원	비고
1장 1면	경제과 1년	10명	
1장 2면	경제과 1년	1명	
2장 3면	문리대 국문과 1년	11명	
2장 4면			백면
3장 5면	철학과 1년	3명	
3장 6면			백면
4장 7면	철학과 2년	3명	
4장 8면			백면
5장 9면	철학과 3년 철학과 4년	무사고 1명	
5장 10면			백면
6장 11면	림학과 3년	6명	
6장 12면			백면
7장 13면	미상(정치학과?) 3년 미상(정치학과?) 4년 영문과 2년	1명 1명 1명	신고자가 政四 代議員이라 쓰여 있어 정치학과에서 써낸 것으로 보임 영문과 2년 김언수 기록 뒤에 한자로 “六月 十六日 現在”라고 쓰여 있음
7장 14면			백면



- 초안 2는 세로 작성했으며 글씨가 일정함. 1면 위에 '4월 18일 부상자 명단'으로 제목을 달고 소속 학과, 학년, 성명, 부상 날짜와 장소, 본적과 주소를 기록함. 성명 뒤에는 66.12.,29, 70.5.19 등의 수자가 한자로 쓰여 있는데, 생년월일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의미는 파악할 수 없음. 출신고와 입원 병원이 기록된 내용도 있음.
- 초안 2의 1장 1면에 학생 외에도 보일러 기관사와 운전자 성명도 기록되어 있음. 보일러 기관사는 51세로 반도병원 입원이라고 쓰여 있음

장/면	소속	부상 인원	비고
1장 1면	사학과 4학년 철학과 4학년 농학과 3학년 농학과 4학년 보일러 기관사 운전자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보일러 기관사와 운전사는 난외에 적혀 있음
1장 2면	수학과 1년 경영학과 1년 철학과 1년 학과 미상	1명 1명 1명 1명	
2장 3면	법과 1년 법과 3년 학과미상 2년	2명 1명 1명	
2장 4면	정치학과 2년 경제과 1년 림학과 2년 영문과 4년 농화학과 2년	1명 1명 1명 1명 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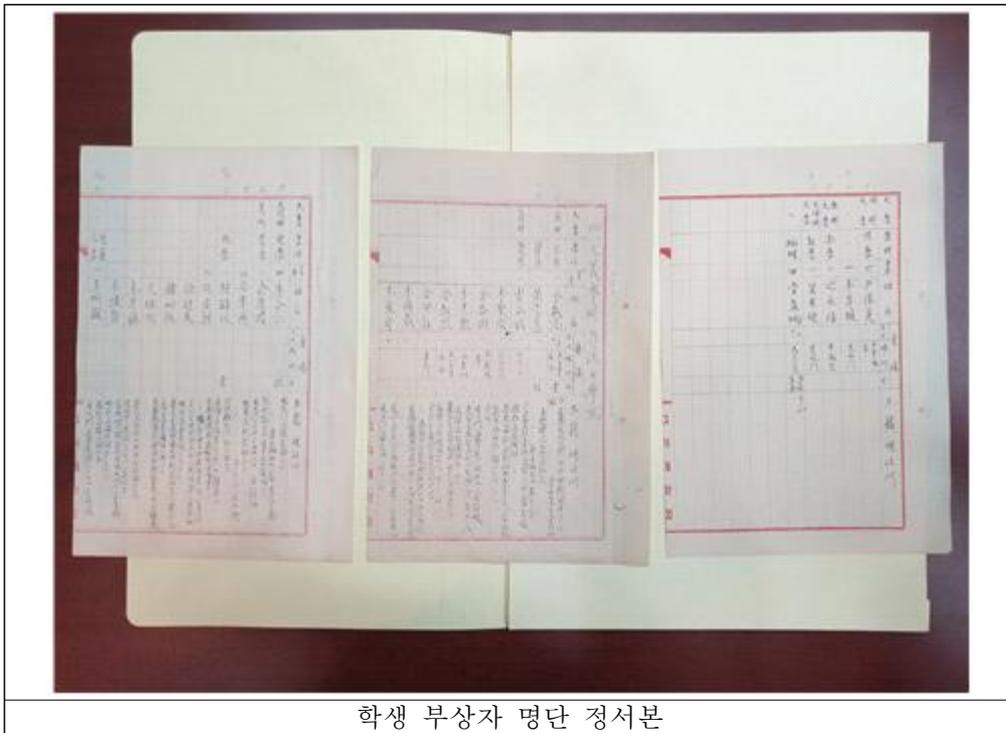


학생 부상자 명단 초안 2 1장 1면

학생 부상자 명단 초안 2 2장 1면

- 정서본은 3장 6면으로 “사일구 의거시 부상한 학생”이라는 제목으로 세로 기록했으며, 50명의 명단을 소속 단과대학, 학과, 학년, 성명과 부상 날짜와 장소, 부상의 정도를 기록하고, 학생의 본적 및 현주소를 정리하였음.

장/면	소속	부상 인원	비고
1장 1면	상과 상학 1년 상과 경영학 1년 문리과 국문학 1년	1명 1명 8명	
1장 2면	문리과 국문학 1년 문리과 영문학 4년 2년 철학 1년 2년 3년 4년	3명 1명 1명 2명 3명 1명 1명	
2장 3면	문리과 법학 4년 농과 농학 3년 4년 농과 임학 2년 3년 농예화학 1년	1명 1명 1명 1명 6명 1명	
2장 4면	정경과 정치외교학 2년 정경과 경제학 1년 농과 농업경영학 1년 2년	1명 9명 1명 1명	
	법과 법학 3년 1년 상과 상학 2년 문리과 수학 1년 물리학 4년	1명 1명 1명 1명 1명	
3장 2면			백면



- 초안의 내용과 정서본의 내용 중 일치하는 사람도 있으나 모든 사람이 다 일치하지는 않아서, 다른 자료들이 있었으나 멸실되고 남은 자료들이므로 판단됨.
- 이 자료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발간한 『4월혁명 사료총집』에 수록되어 있음. 4월 18일과 4월 19일 당시 시위에 참가하여 부상한 학생들에 관련된 내용을 당시에 정리한 것으로,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는 원본 자료로서 가치가 있음.

나) 고려대학교 4.18 의거 머릿수건

-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에서는 1960년 당시 4월 16일에 전체 신입생 환영회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이때 시위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를 경찰이 눈치채서 4월 18일로 행사를 연기함. 4월 18일 행사에서 학생들 3000여 명은 "민주역적 몰아내자"라는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태평로 국회의사당 앞까지 행진했으며, 행진 도중 경찰의 곤봉의 맞은 학생도 있고, 학교로 복귀하는 도중 정치깡패들의 습격을 받아 부상당한 학생도 있음. 이 장면이 신문에 보도되어 다음날 4.19를 연동하였으므로 4.19과 관련해 중요한 유물임.
- 머릿수건은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신입생환영회의 기념품으로 제작해 배포한 것으로, 수건의 양쪽에 '축 입학'과 입학 연도인 '1960'이, 가운데에는 '고대' 글자가 찍혀 있음. 수건의 크기와 글자가 찍힌 방식이 조금씩 달라, 해당 업체에서 몇 차례에 걸쳐 제작한 것으로 보임.
- 이러한 모양의 수건을 두르고 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한 사진이 있어 당시의 것임을 확인할 수 있음.
- 현재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3점은 졸업생 교우들이 기증한 것으로, 액자로 되어 있는 것은 영문과 58회 한기성(韓基星)이 기증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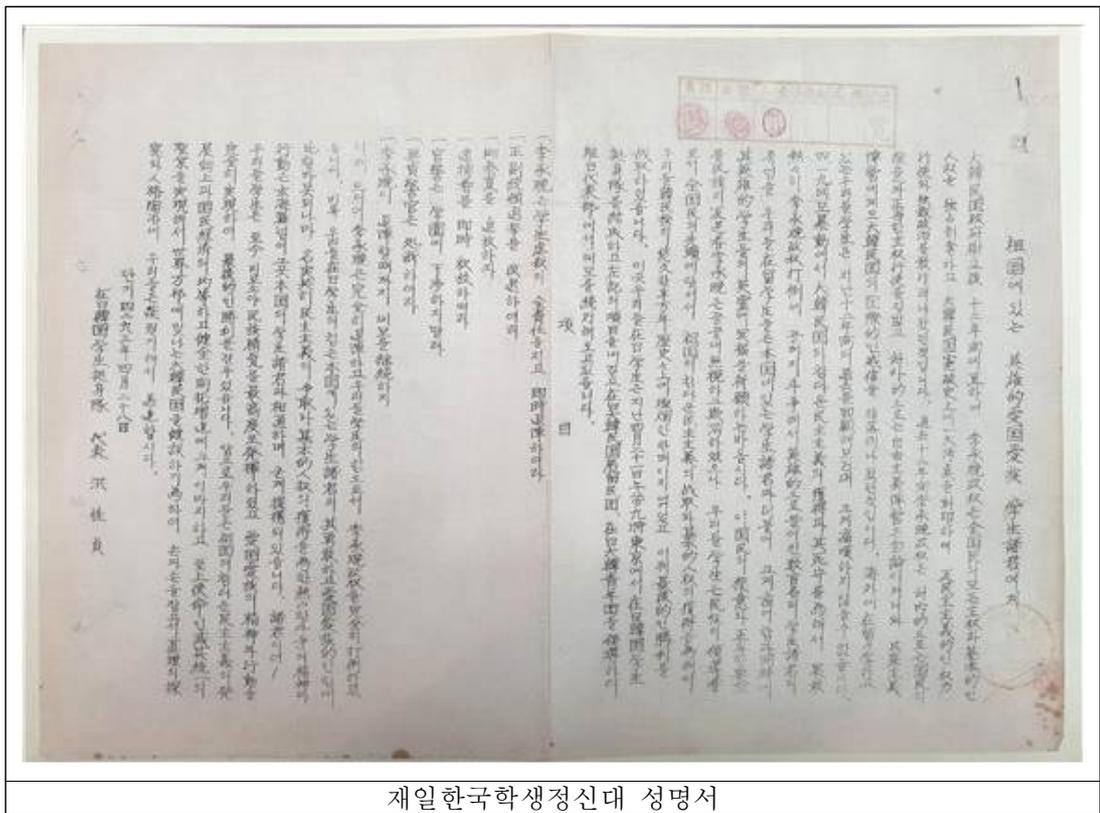
- 현재는 고려대학교에 소장된 3점이 파악되어 있으나 추후 유물이 더 나올 수도 있어 복수성의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이 3점만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서울시 등록문화재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고려대학교 4.18 당시 머리 수건

다) 재일한국학생 정신대 성명서

- 재일유학생 단체인 재일한국인 정신대에서 이승만의 하야를 기념하여 한국 학생들에게 4월 28일에 보낸 성명서임.
- 제목은 “조국에 있는 영웅적 애국애족 학생제군에게”로 되어 있으며, 이승만 정권의 퇴진을 위해 재일 유학생들이 재일대한민국 거류민단과 재일한국청년단을 이끌고 재일대표부에서 이승만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데모를 계속했으며, 4월 26일 이승만의 하야 성명 이후 참다운 민주주의를 위해 한국의 학생들과 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임. 1960년 4월 28일 재일한국학생 정신대 대표 홍성정 명의로 되어 있으며 등사본으로 제작되었음.
- 당시 행정 문서의 하나로 여겨진 듯하며 상단에 고려대학교 관련 행정인 난에 도장이 찍혀 있고, 오른쪽 하단에 고려대학교 접수인으로 보이는 도장이 있는데 날짜는 5월 3일로 되어 있음.



제일한국학생정신대 성명서

3) 문헌자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4월혁명사료총집발간위원회 편, 『4월혁명 사료총집』,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0.

4)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4.19 관련 유물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함에 있어 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1월 20일 관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기준에 관한 자문회의를 진행한 결과, 등록문화재의 원본성, 진정성, 희귀성 등의 기준을 세워야 할 것으로 논의함. 특히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4월 26일 이후에는 4.19 의거가 혁명으로서 인정되었기 때문에 4.19를 기념하는 것이 용이했으므로, 가능한 4월 26일 이전의 문건을 대상으로 등록문화재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안이 제시됨.
- 그러나 관련 문서나 유물을 검토해 보았을 때에 날짜를 특정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짧은 기간에만 한정해서 작성되지 않은 점도 있기 때문에, 4.19 당시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특성이 있는 것이라면 대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고려대학교 학생 부상자 명단 초안 및 정서본은 4.18과 4.19 당시 부상당한 상황을 조사하여 필사한 문건으로, 특히 초안은 당시의 시위 상황, 관련된 인물들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사료로서 등록가치가 높음. 또한 정서본은 이를 정리한 것으로 일괄해서 존재할 때에 더욱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등록할 때 명칭은 ‘4.19혁명 참여 고려대학교 학생 부상자 명단’이 4.19와 관련성을 보여주며 객관적인 내용을 담보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됨.

- 고려대학교 학생 머릿수건은 당시 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이 들렀던 것으로 가치가 높으나, 유사한 머릿수건이 더 존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등록문화재의 희귀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아, 현재 등록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 재일학생 정신대 성명서는 4.19 당시에 재일 유학생들의 지지와 성원을 보여주는 자료이나, 4.19 진전의 상황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아니며, 등사본으로서 복본이 다수 존재할 가능성도 있어 등록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 ○○ ○○○>

1) 현상

- 4·19혁명 참여 고려대학교 학생 부상자 명단은 초안1의 5쪽이 연필 기재로 다소 흐린 상태이나 그 외 초안1, 초안2, 정서본 모두 상태 양호함.

2) 내용 및 특징

4·19혁명 참여 고려대학교 학생 부상자 명단
 초안 및 정서본 필사본
 고려대학교, 1960년 4월 혁명기(시기특정 불가)
 초안1 7장 18×26cm, 초안2 2장: 18×26cm, 정서본 3장 39.3×25cm

- 「4·19혁명 참여 고려대학교 학생 부상자 명단」은 1960년 4월 혁명기 ‘4·18 고려대 데모’를 중심으로 시위에 참가한 고려대학교 학생 부상자 명단이 작성된 초안1, 초안2 및 정서본으로 구성되었음. 3종 모두 고려대학교 내 구성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초안과 정서본의 구분은 보관 당시 서류철 구분으로 분류되었음.
- 1960년 4월 혁명기 부상자 및 사상자 현황은 보건사회부, 대한적십자사 등 관계 당국에 의해 전수조사된 바 있으며 현재 기록이 남아 있음. 이 경우 4월혁명 당시 부상당해 입원했거나 치료했던 병원들을 대상으로 일괄 전수조사하여 명단이 제시되었음. 대표적인 사례로는 보건사회부가 전수조사한 『4월혁명 사상자 명단』(1960), 대한적십자사가 1960년 11월~1961년 1월 사이 조사한 『1960년 사월혁명 부상자개별기록서』 등이 있음. 두 기록 모두 당시 부상자들이 입원·치료했던 병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하였으며 대한적십자사 명단이 1961년 1월 하순까지 보다 광범위로 포괄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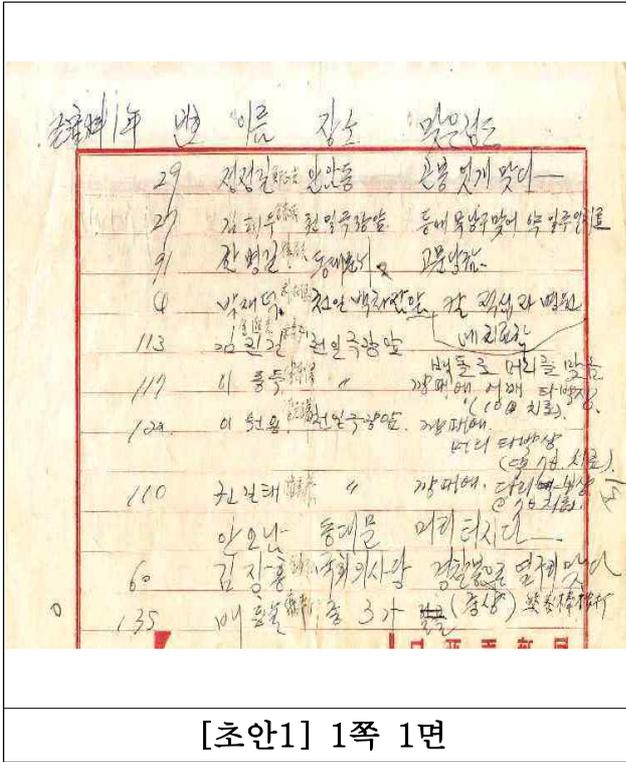
- 본 「4·19혁명 참여 고려대학교 학생 부상자 명단」은 4월 혁명 당시 기폭제가 되었던 ‘4·18 고려대 학생의거’를 포함하여 단일 학교 주체로 부상자 명단을 작성한 사례로 유일한 것으로 사료됨.
- 초안 1은 총 7장 8면으로 장별 필체가 다르고 가로쓰기 세로쓰기 두 종류로 구성됨. 초안 1에는 이름, 일련번호, 소속, 부상날짜, 장소, 맞은 정도 등이 포함되어 있고 문리대 국문과, 철학과 부상자 명단이 자필로 기록되어 사료적 가치가 높음.
 - <초안1> 1장 1면에 의하면 부상에 쓰인 도구는 각목, 벽돌, 경찰콘봉 등이 동원됐으며 등, 목, 어깨, 머리, 다리, 옆구리 등 전신이 폭행대상이 되었음. 깡패에게 부상당한 기술을 볼 때 경찰체복 미착용인 일반인도 시위진압에 동원된 것으로 보임. 부상정도는 경상에서 중상 등 다양했고, 적십자병원 등에서 7일~10일 입원 치료됨.
 - 2장 1면은 문리대 국문과 1년 부상학생 기록으로 4월 18일 데모현장 기록임. 부상장소는 주로 안암동 부근이며 이 외 국회의사당, 미도파백화점, 화신백화점, 종로, 천일극장 등이 포함됨. 부상도구는 경찰봉, 벽돌, 쇠몽둥이, 경찰몽둥이 등이 동원됐고, 턱, 등, 어깨, 머리, 오른팔, 왼쪽팔 등 전신이 폭행대상이 됨.
- 초안 2는 2장 4면으로 구성되었으며 동일한 필체로 1인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됨. 1쪽 1면 상단에 ‘四月十八日 負傷者名單’ 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보아 ‘4·18 고려대 의거’당시 부상자 명단임이 확인됨.
 - <초안2> 소속학과는 철학과, 영문과, 임업과(농대), 농대, 가정과 등 다양함.
 - 2면에 4월 19일 부상자 2명 기록도 보임. 각각 일련번호 5번 임학과 2년 조용구(趙鏞玖), 일련번호 6번 영문과 4년 김경진(金京鎭)임.
 - 부상경위는 ‘未詳’이며, ○도병원, 신촌이대병원, 중앙○료원, 신설동○복영병원, 대동병원 등 입원장소도 다양함.
- 정서본은 초안으로 작성된 부상자 명단을 정서하여 재정리한 기록으로 총 5면이 남아 있음. 부상자의 소속 대학, 학과, 학년, 성명, 부상일/부상장소/부상정도 등을 기록하였으며 초안과 달리 본적, 현주소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료적 가치가 큼.
 - 부상날짜는 1쪽 1면, 3쪽 1면(1인)에 4월 18일로 기재되었음. 1쪽 2면, 2쪽 1면 등에는 부상날짜 미기재. 부상 장소 기록은 1쪽 1면, 3쪽 1면에 기재되었음. 천일극장 앞, 미도파백화점, 화신백화점, 안암동, 광화문, 중앙청 앞 등임.
 - 학년 별 구성은 1학년 26명, 2학년 9명, 3학년 8명, 4학년 5명임. 소속학과는 초안1, 2에 누락된 경제외교학과, 농업경제학과, 사학과, 농학과, 농예화학과, 물리과 등이 보임.
- 이외에도 ‘4·18고려대 의거’당시 참가학생들이 머리에 착용했던 ‘머릿수건 ’3중(28X66)도 조사에 포함되었음. 1960년 신입생활영회 기념품 명목으로 ‘축 입학’, ‘1960’이 인쇄되어 제작된 수건으로 ‘4·18 고려대 의거’ 당시 다수 학생들이 머리에 착용한 증거사진들이 남아 있음. 그러나 ‘머리 수건’의 경우 고려대박물관에 기증된 3중 외에도 전국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존재할 가능성이 큼.

- 조사대상에 1960년 4월 28일 재일(在日) 한국학생정신대 소속 홍성정 군이 작성한 성명서 「조국에 있는 영웅적 애국애족 학생제군에게」 (크기 35.3X 25.5)도 포함되어 있음. 이 성명은 재일한국인과 청년단체들의 4월 혁명 지지 표명과 이승만 정권의 퇴진을 이끌어 낸 것에 경의를 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본 성명서는 인쇄본으로 총 배포 매수 등 현황이 불확실하며 유사 성격의 성명서들이 다수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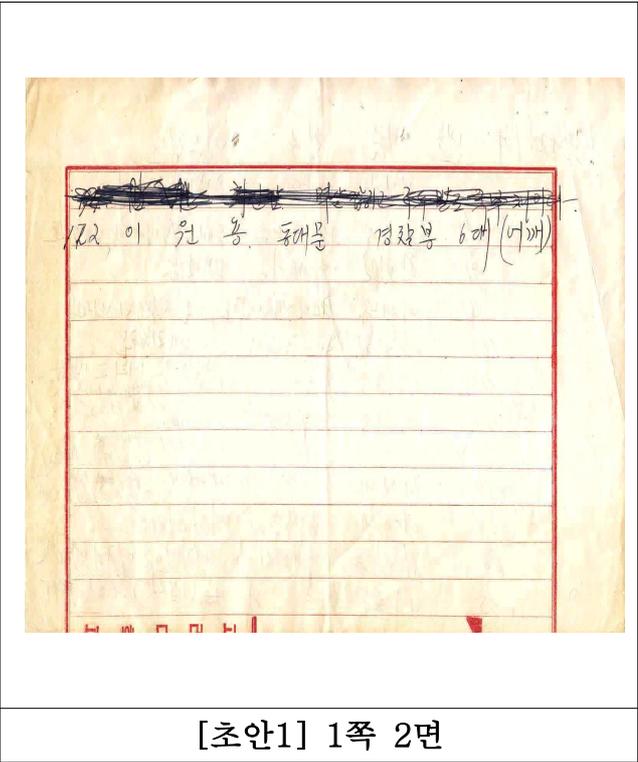
<표1> 『초안1』 · 『초안2』 · 『정서본』 현황

분류	매수 현황	필사 내용
초안 1	7장 8면	-소속, 이름, 장소, 맞은정도 -경제과, 철학과, 경제학과, 국문과 등 -가로/세로 병기
초안 2	2장 4면	-세로쓰기 -이름, 소속, 주소, 치료장소(백병원 등) -경제학과, 철학과, 법학과, 농과 등
정서본	3장 5면	-소속 대학, 학과, 학년, 성명, 부상일/부상장소/부상정도 등 -부상자 본적, 현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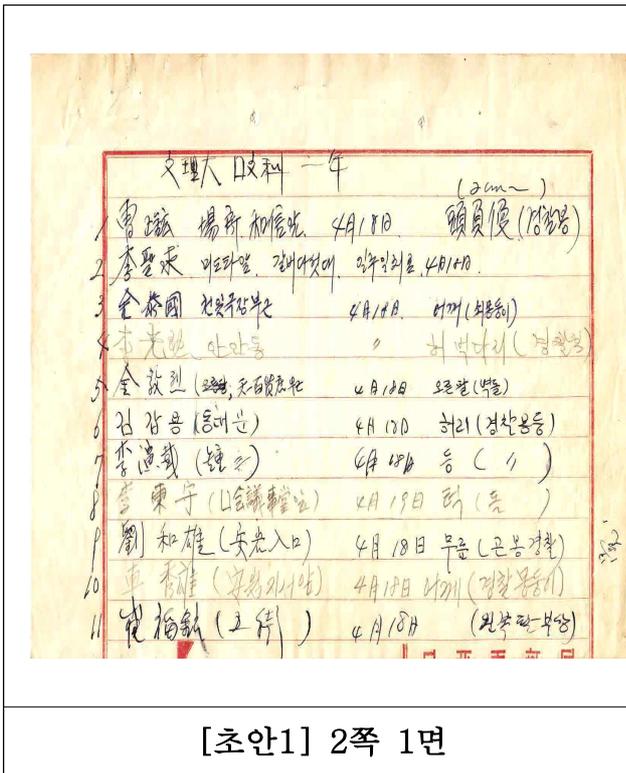
<관련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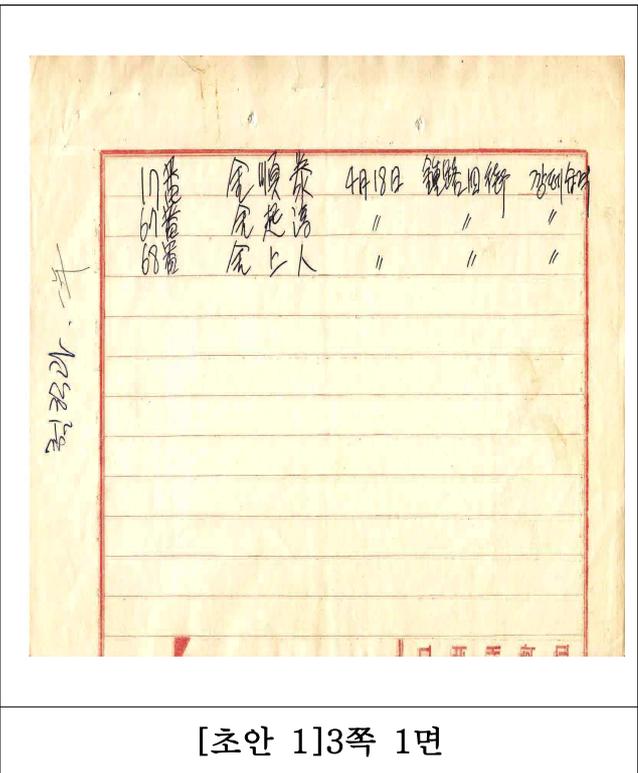
[초안1] 1쪽 1면



[초안1] 1쪽 2면



[초안1] 2쪽 1면



[초안1] 3쪽 1면

法 孫嘉明 七三三
 在 西大門區冷泉洞一八 院 西大門區天然洞一百廿三
 法一 本多早 七三三
 在 忠南瑞山郡瑞山邑南門生入念 院 西大門區大岬洞八可三
 法二 尹德鏡 七三三
 在 咸浦區河岬洞四九 院 西大門區中乙欲三行二
 法三 永福 七三三
 在 咸浦區外外洞四五四 院 咸浦區外外洞三三八
 法四 永福 七三三
 在 咸浦區外外洞四五四 院 咸浦區外外洞三三八

[초안2] 2쪽 1면

法 孫嘉明 七三三
 在 咸浦區外外洞四五四 院 咸浦區外外洞三三八
 法一 本多早 七三三
 在 忠南瑞山郡瑞山邑南門生入念 院 西大門區大岬洞八可三
 法二 尹德鏡 七三三
 在 咸浦區河岬洞四九 院 西大門區中乙欲三行二
 法三 永福 七三三
 在 咸浦區外外洞四五四 院 咸浦區外外洞三三八
 法四 永福 七三三
 在 咸浦區外外洞四五四 院 咸浦區外外洞三三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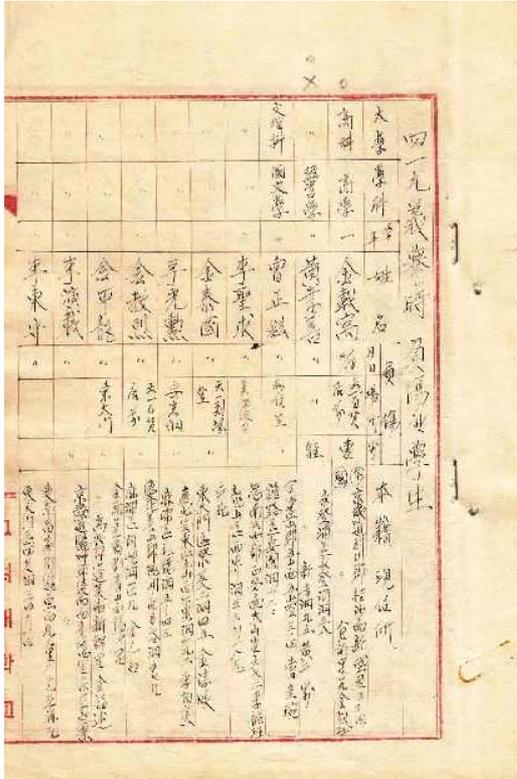
[초안2] 2쪽 2면

崔 孫嘉明 七三三
 在 咸浦區外外洞四五四 院 咸浦區外外洞三三八
 法一 本多早 七三三
 在 忠南瑞山郡瑞山邑南門生入念 院 西大門區大岬洞八可三
 法二 尹德鏡 七三三
 在 咸浦區河岬洞四九 院 西大門區中乙欲三行二
 法三 永福 七三三
 在 咸浦區外外洞四五四 院 咸浦區外外洞三三八
 法四 永福 七三三
 在 咸浦區外外洞四五四 院 咸浦區外外洞三三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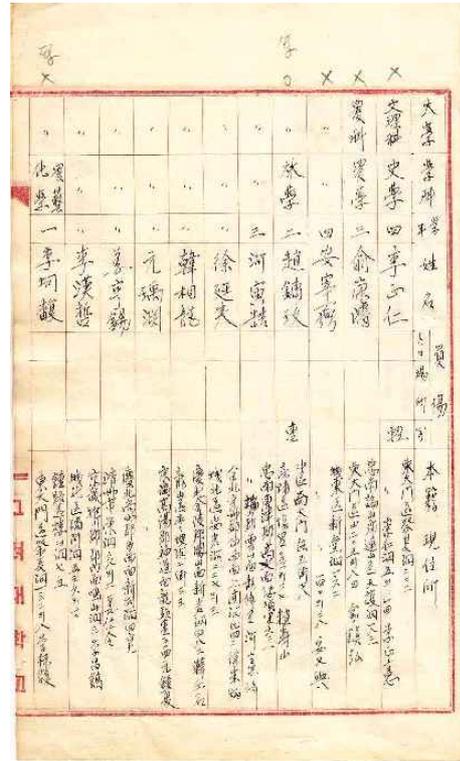
[초안2] 1쪽 1면

法 孫嘉明 七三三
 在 咸浦區外外洞四五四 院 咸浦區外外洞三三八
 法一 本多早 七三三
 在 忠南瑞山郡瑞山邑南門生入念 院 西大門區大岬洞八可三
 法二 尹德鏡 七三三
 在 咸浦區河岬洞四九 院 西大門區中乙欲三行二
 法三 永福 七三三
 在 咸浦區外外洞四五四 院 咸浦區外外洞三三八
 法四 永福 七三三
 在 咸浦區外外洞四五四 院 咸浦區外外洞三三八

[초안1] 1쪽 2면



[정서본 1면]



[정서본 2]

3) 문헌자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4월 혁명 사료총집』

4) 기타

- 「4.19혁명 참여 고려대학교 학생 부상자 명단」은 '4·18고려대 학생 의거'에 참가 고려대학교 학생(당시 기준)이 고려대학교에 기증하여 박물관에 보관중임. 「4.19혁명 참여 고려대학교 학생 부상자 명단」은 본 사료의 구체성·단일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등록문화재 명칭으로 적절함. 4월 혁명기 부상자 및 사상자 명단 전수조사 자료는 있으나 시위 참가학교가 주체가 되어 부상자 명단을 작성한 사례는 본 건 외에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음.

5)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한국사회 민주주의 이행에서 최초의 민주·시민혁명인 1960년 4월혁명의 부상자 명단 문서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료적 가치가 있음. 1960년 4월 혁명기 부상자 및 사상자 명단은 대한적십자사 또는 보건사회부 주도로 전수조사하여 작성된 사례가 남아 있으나 이 경우 부상자들이 입원했거나 치료했던 각 병원들에서 작성된 기록이 근거가 되었음. 본 「4.19혁명 참여 고려대학교 학생 부상자

명단」은 1960년 4·19 혁명 중 기폭제가 된 ‘4·18 고대학생 의거’에 참여했던 고려대학교 학생들 중 부상자들을 조사한 것으로 시위 참가 학교 주체로 작성된 문서로는 현재까지 유일한 것으로 사료됨. 특히 초안 1은 부상 당사자들이 날짜와 장소, 부상 부위 등을 직접 작성하여 역사적 구체성을 명징하게 제시할 수 있음. 따라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34조에 의거하여 본 「4.19혁명 참여 고려대학교 학생 부상자 명단」은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① 현재 고려대 박물관에 소장된 ‘머릿수건(4·18고려대 시위 참가학생들의 착용)’의 경우 1960년 신입생활영 기념물로 제작되어 불특정 다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고려대 박물관 소장 3건을 등록문화재 지정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않음.
- ② 1960년 4월 28일 재일학생 조선인(홍성정 군)의 성명서의 경우 등사본으로 총 매수현황이 파악되지 않아 등록문화재로 특정하는데 부적합 요소가 있음.

<○○○○ ○○ ○○○>

1) 현상

- 4·19혁명 참여 고려대학교 학생 부상자 명단 : 기록물 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함. 낱장별로 보관 처리를 한 상태로 글자 판독에 이상이 없으며 잘 관리되어 있음.

2) 내용 및 특징

가) 4·19혁명 참여 고려대학교 학생 부상자 명단

- 이 명단은 1960년 4.19혁명에 참여한 고려대학교 학생들 가운데 부상당한 학생들에 대한 대학측의 자체 조사기록물로 파악됨. 부상 학생들의 구체적 신상을 비롯해 부상 정도, 시점, 장소, 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 4.19혁명 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시위 주체의 일차적 진술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음.

○ 초안1

- ‘초안1’의 경우, 학교, 학년, 번호(성격 미상), 이름(해당이름 옆에 작은 글씨로 한자 성명을 표기), 부상당한 장소, 맞은 정도 등이 기록되어 있음(그림1 참조).
- 대체적으로 공통된 내용은 4월 18일 서울 청계천 4가에 위치한 천일극장 또는 천일백화점 앞에서 발생한 정치강파들에 의한 고려대 데모대 피습사건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임. 또는 4월 19일 상황에 대한 진술이 대다수임.
- 부상당한 부위를 등, 목 등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과 칼, 벽돌 등으로 맞았다는 진술, 강파에 의해 어깨 타박상, 머리 타박상, 다리 부상 등으로 가해 주체와 부상 범위 및 정도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음(그림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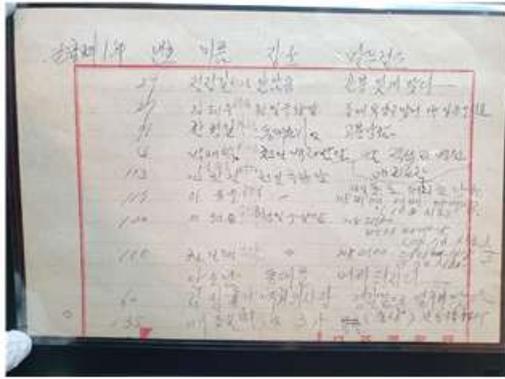


그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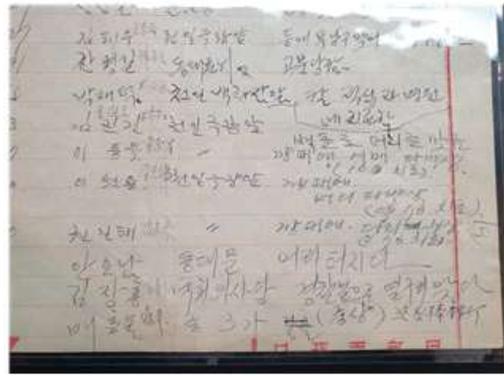


그림2

- 기록지의 필체는 한 사람의 것으로 추정됨. 부상자들에 대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볼 때, 부상자들이 병원에 있으므로 그들의 진술을 토대로 특정인이 대신 작성한 것으로 추정됨. 기록지는 ‘고려대학교’라고 인쇄된 서류용 종이를 사용한 점에서 당대 1차 사료로서의 가치가 확인되는 반면 학생들 스스로의 기록이 아닌 학교 당국(담당 직원)에 의한 기록일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함. 또한 이 기록물이 학교 당국에 의해 보관된 것으로 볼 때, 이승만 하야 후 부상학생들에 대한 당시 문교부의 조사 의뢰에 따른 학교측 문서 작성의 일환으로 기록된 초안이라고 볼 수도 있음. 이와 관련하여 초안1의 4쪽 1면의 경우, 세로로 작성된 필체가 정갈하고 흘림체 또한 격조 있는 서체라는 점에서 많은 문서 기록의 경험이 있는 사무원(직원?)의 필체라고 판단됨. 6쪽 1면의 경우 역시 임학과 3학년 6명에 대한 기록인데 이 필체 또한 한 사람의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전반적으로 볼 때, 당시 시위에 참여했다가 부상당한 학생들에 의한 직접 기록이라기보다 학교측 직원에 의해 또는 학교측의 의뢰를 받은 학생들에 의해 대리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음(그림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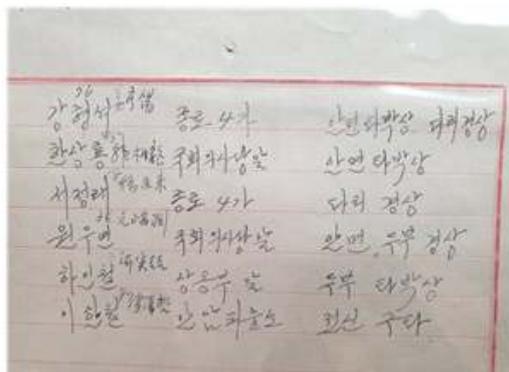


그림3

- 위와 관련, 7쪽 1면의 경우, 정갈한 한문 위주의 세로 서체 역시 교직원의 달필로 보임. 같은 면 ‘4월 혁명 부상자’라는 제목의 괄호 속에 ‘신고자는 정4 대의원’이라고 기재됨. 따라서 정외과 4학년 대의원 학생을 통해 학교측이 관련 사항을 일괄 파악하여 공식 서류로 작성하기 전에 기록한 초안일 가능성이 높아 보임(그림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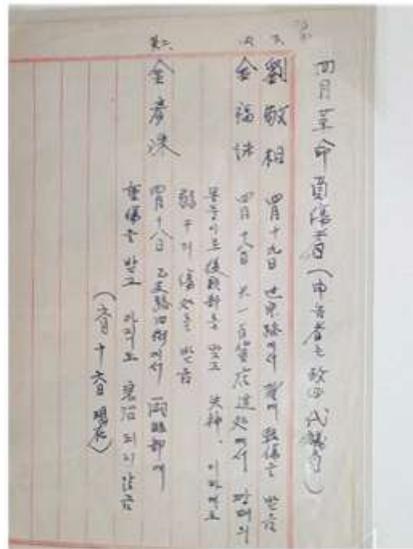


그림4

- 위의 같은 페이지 맨 끝 괄호 속에 '6월 16일 현재'라고 기재됨. 즉 기록물의 작성 시점은 1960년 6월 16일로 특정됨.

○ 초안2

- '초안2' 2쪽의 세로 서체 역시 달필이라는 점에서 교직원이 작성 주체일 가능성이 있음. 전체적으로 한 사람의 필체임. '초안2'에 해당하는 문서의 제목은 '4.18 부상자 명단'이며 학과, 학년, 이름, 생년월일, 주소, 출신고교명, 호주 성명(괄호안 직업 기재) 등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음(그림5, 그림6 참조). 농업, 회사원 등 호주의 직업까지 상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부상학생들에 대한 보상 문제와 연관 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음.

그림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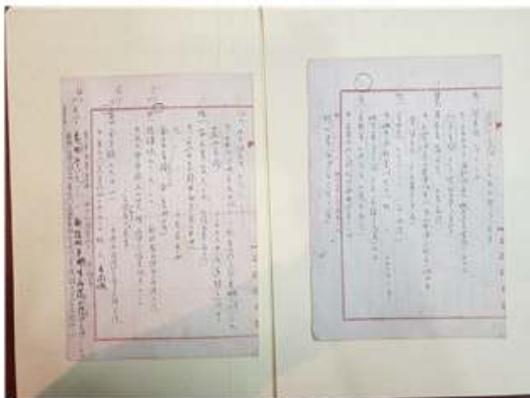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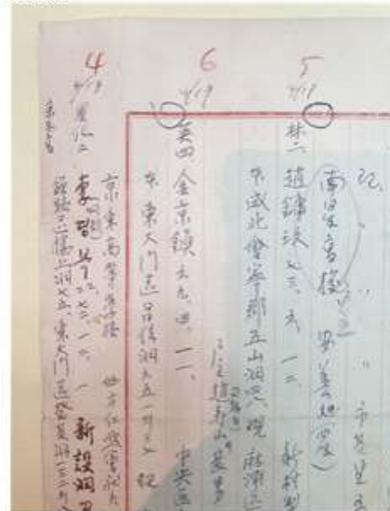


그림5



○ 정서본

- '4.19 의거시 부상한 학생'이라는 제목의 기록물은 정서본에 해당하며, 소속 대학, 학과, 학년, 성명, 부상 월일, 부상 장소, 부상 정도(輕, 重으로 구분), 본적, 현주소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였음(그림7, 그림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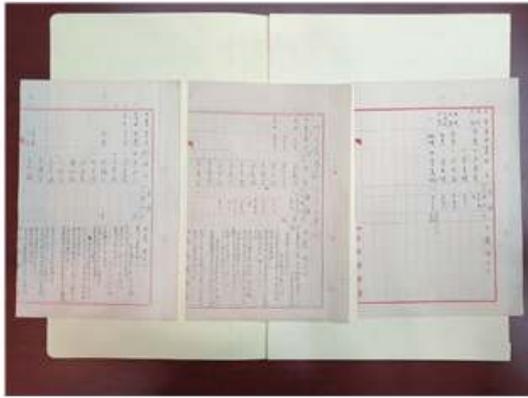


그림7



그림8

- 위 정서본을 여타 초안과 비교할 때, 대부분이 동일 인물로 확인됨으로써 두 문서의 상관관계가 초안과 이를 바탕으로 수정, 보완한 정서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구체적으로 초안1과 초안2에 나오는 42명의 이름과 정서본 50명의 명단이 대부분 중복됨. 같은 이름이 41명(오차 있을 수 있음)으로 확인되므로 이 문서군의 관련성은 비교적 명확함.

- 4.19혁명 부상자 명단은 당시 단속적인 신문 기사를 통해 보도되었으며, 정부(보건사회부)에서도 4.19 직후 서울 각 병원별로 조사해 사망자와 부상자 명단을 작성한 바 있음. 관련 기록은 현재 대한민국의사박물관에서 소장.
- 또한 4.19혁명 유공자 심사과정에서 국가보훈처가 작성한 관련 명단이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밖에 부상자관련 단체, 4.19 관련 단체 등에서도 명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고려대 4.19 참여 부상자들의 명단 또한 역사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위 자료들에 못지않으며 당대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향후 체계적, 전문적으로 관리, 보존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4.19혁명 참여 고려대학교 학생 부상자 명단
 - 이 기록물은 4.19혁명 직후 고려대학교가 주로 4월 18~19일 시위에 참여했던 학생들 가운데 부상자 명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임. 비록 부상자들이 직접 작성한 기록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부상당하게 된 상황을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4.19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귀중한 1차 자료의 성격을 띠고 있음. 다소 혼란스러워 보이는 문서 구성의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초본들과 정서본의 성격을 띠는 문서기록물의 완성과정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사료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이 기록물의 경우,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8. 「이준열사 유묵」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부산광역시 소재 「이준열사 유묵」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이준열사 유묵」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18.7.27.)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9.11.28.)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동아대학교 총장
- (2) 대상문화재

문화재명	수량	규격	제작년대	소유자	소재지
이준열사 유묵	1건 2점	110 × 18cm	미상	동아대학교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

-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4) 추진경과

- ('18.7.27.) : 「이준열사 유묵」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
- ('19.11.28.)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문화재위원 ○○○ ('19.11.28.)

- 이준 열사는 1907년에 헤이그만국평화회의에 특사단으로 파견되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순국한 인물로,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위해 헌신한 분으로 충분히 그 행적을 기릴만한 인물임.
- 그러나, 해당 유목의 내용은 송나라 학자 소강절의 <인자음(仁者吟)>에서 나온 것으로(지나친 것을 경계하는 내용), 이준의 독립운동 활동과는 크게 연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그의 글씨가 전쟁기념관, 예술의전당 서예 박물관 등에도 소장되어 있어 희소성이 떨어지므로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 ○○○ ('19.11.28.)

- 이준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국권회복과 독립을 위한 외교활동을 펼치다가 타국에서 순절한 애국열사임. 이 유목은 공평무사하게 일을 처리해야 하는 검사로서 자신의 쾌락에 탐닉하지 않고, 늘 조심하며 삼가는 이준열사의 생활 자세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해당 유목은 순국한 애국열사의 휘호라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높으나, 향후 다른 곳에 소장되어 있는 이준열사의 유목과 비교하여 등록문화재로서 등록할지 여부를 판단되어야만 함

○ 문화재전문위원 ○○○ ('19.11.28.)

- 본 유물은 1907년 고종의 밀명을 받고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갔다가 타국에서 순국한 이준 열사의 유목임.
- 현재 이준 열사의 유목은 다수의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으며, 본 유물은 독립운동과 연관성이 없는 일상의 교훈적 가치를 써 놓은 것으로 역사적 자료가치는 그다지 높지 않다고 판단됨. 또한 인용된 시구가 원래의 시구와 순서가 뒤바뀌어 있으므로 유목 필자의 진위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보류

- 이준열사 유목에 대한 진위 여부와 타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준열사 유목을 조사하여 희소성 등 검토

○ 출석 11명 / 보류 11명

<붙임>

「이준열사 유묵」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이준열사 유묵
2. 소재지 :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
3. 소유자 : 동아대학교
4. 조사자 의견('19.11.28.)

<문화재위원 ○○○>

1) 현상

- 19세기말~20세기 초 정치가, 독립운동가인 이준(李儁, 1859-1907)의 글씨 대련임.
- 110x18cm 크기에 세로 “快心事過必爲殃(쾌심사과필위양) 爽口物多終作疾(상구물다종작질)”으로 행서로 14자가 쓰여 있고, “爽口物多終作疾” 옆에 작은 글씨로 “一醒(일성) 李儁(이준)”이라는 묵서명이 있음.
- 각각 축으로 장황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는 양호함.

2) 내용 및 특징

- “快心事過必爲殃(쾌심사과필위양) 爽口物多終作疾(상구물다종작질)”이 7자씩 행서로 쓰여 있는 글씨 대련으로 “爽口物多終作疾” 옆에 작은 글씨로 “一醒(일성) 李儁(이준)”이라는 묵서명이 있어 이준의 글씨임을 알 수 있음. 이준의 호는 일성(一醒)·해사(海史)·청하(靑霞)·해옥(海玉) 등을 씀.
- 이준은 대한제국기 애국계몽운동가로, 1907년에 고종이 헤이그만국평화회의에 특사단으로 파견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자결함.
- 그는 1895년 법관양성소를 졸업하고 1896년 한성재판소 검사보가 되었으나 이해 아관파천이 일어나자 사임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 법과를 졸업하고 귀국해 애국계몽운동에 투신함. 1898년 독립협회에 가입해 11월의 만민공동회에서 가두연설을 하는 등 활동했으며, 1902년 이상재(李商在)·민영환(閔泳煥)·이상설(李相高)·이동휘(李東輝)·양기탁(梁起鐸) 등과 비밀결사인 개혁당(改革黨) 운동을 추진함. 1904년 12월 일제가 친일인사들로 일진회(一進會)를 조직하자, 이에 대항해 윤하영(尹夏榮)·양한묵(梁漢默) 등과 공진회(共進會)를 조직하고 회장이 되어, 반일진회 투쟁을 전개하다가 일제의 강압으로 황해도 철도(鐵島)에 6개월간 유배당하기도 함. 1905년 5월 윤효정(尹孝定)·양한묵 등과 헌정연구회(憲政研究會)를 조직해 다시 항일국민운동을 벌였으며, 이 해에 평리원 검사를 거쳐 특별법원 검사로 임명됨. 이해 11월 을사늑약으로 국권이 박탈되자, 정순만(鄭淳萬)·

이동녕(李東寧) 등 동지들과 을사조약폐기 상소운동을 전개하여, 이준이 상소문을 짓고 대한문(大漢門) 앞과 서울 시내에서 일본경찰과 투석전을 벌이며 격렬한 시위운동을 전개함. 1906년 국권회복을 위한 실력양성을 목적으로 전덕기·유성준(兪星濬)과 함께 국민교육회(國民教育會)를 조직하여 교육구국운동을 시작하고 보광학교(普光學校)를 설립함. 1907년 국채보상운동에 앞장섰으며, 같은 해 4월 양기탁·안창호(安昌浩)·전덕기 등이 비밀결사로 신민회(新民會)를 창립하자 이에 가입해 활동함.

- 1907년 6, 7월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세계평화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전덕기·이회영(李會榮)·박상궁(朴尙宮) 등의 도움으로 고종을 만나 이 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해, 을사조약이 고종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본의 강압으로 체결된 조약이므로 무효라는 것을 세계 만방에 선언하고, 한국독립에 관한 열국의 지원을 요청할 것을 제의해 고종의 동의를 받음. 이준은 헤이그특사단의 부사가 되어 1907년 4월 22일 서울을 출발해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서 정사 이상설과 합류하고, 다시 러시아의 수도 페테르스부르크로 가서 이위중(李瑋鍾)과 합류하여 6월 25일 헤이그에 도착함. 세계평화회의 의장에게 고종의 친서와 신임장을 전하고 평화회의장에 한국대표로서 공식적으로 참석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으나, 일본 대표와 영국대표의 방해로 성공하지 못함. 이에 세 특사는 일제의 한국침략을 폭로, 규탄하고 을사조약이 무효임을 선언하는 선언문을 평화회의 의장과 각국 대표에게 보내고 신문에 이를 공표해 국제여론을 환기시켰으나, 열강의 대표들이 이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자 이에 격분한 이준은 통분을 누르지 못해 헤이그에서 순국함.
- 이준에게는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고, 1963년 헤이그에서 유해를 옮겨와 국민장으로 서울 수유리에 안장했으며, 1964년 장충단공원에 동상이 건립됨.
- 동아대학교에서는 이준의 글씨를 구입에 의해 소장하게 되었다고 함. 등록신청서의 첨부 문서에 따르면, 이 글씨는 1979년 일본 도쿄의 한 소장자에게서 발견되었고, 서울신문 1979년 12월 14일자에 그 내용이 소개된 바 있음,
- “快心事過必爲殃 爽口物多終作疾”은 원문이 중국 송나라 때 문인 소강절(邵康節, 1011~1077)이 쓴 <인자음(仁者吟)> 곧 “인자를 노래함”이라는 뜻의 시구에서 나온 것임. <인자음>의 전문은 다음과 같음.

<인자음(仁者吟)>

仁者難逢思有常(인자난봉사유상) 어진이도 생각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려워
 平生愼勿恃無傷(평생신물시무상) 평생 조심하니 해가 없으리라 믿지 말라
 爭先路徑機關惡(쟁선노경기관악) 앞 다투어 먼저 가려는 길에 수레 상하기 쉽고
 近後語言滋味長(근후어언자미장) 가까워진 뒤 하는 말 재미 있다
 爽口物多終作疾(상구물다종작질) 맛있다고 많이 먹으면 병 생기고
 快心事過必爲殃(쾌심사과필위양) 기쁜 일 지나치면 반드시 재앙 생긴다
 與其病後能求樂(여기병후능구낙) 병든 뒤 약 구하기보다
 孰若病前能自防(숙약병전능자방) 병들기 전 스스로 막는 것 좋지 않은가

- 특히 이 중에서 “爽口物多終作疾 快心事過必爲殃” 이 구절은 고려시대 문신 추적(秋適, 생몰년 미상, 14세기 초 활동)이 중국 고전에 나온 선현들의 금언(金言)·명구를 편집하여 만들어 조선시대까지 어린 아이들의 학습용으로 널리 활용된 『명심보감(明心寶鑑)』에 실려, 많은 사람들이 아는 보편적인 문구임. 즉, “입에 맞는 음식이라고 해서 많이 먹게 되면 결국 병이 생길 것이고, 마음에 즐거운 일도 지나치면 반드시 재앙이 될 것이다”는 점을 깨우쳐, 과욕을 부리지 말 것을 당부하는 내용임.
- 이준이 쓴 글씨 대련은 이 구절을 서로 순서를 바꾸어 “快心事過必爲殃 爽口物多終作疾”의 순서로 쓴 것임.





이준 글씨 대련

- ‘쾌(快)’자 옆에 ‘長相思’라는 수인(首印)이, ‘종작질(終作疾) 옆에는 “一醒(일성) 李儁(이준)”이라는 서명이 있고, 그 아래의 낙관은 “李儁(이준)”, “一醒(일성)”이어서, 이 글씨가 이준의 글씨임을 알 수 있음.
- 이준의 글씨는 현재, 전쟁기념관,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문화유산국민신탁, 독립기념관, (사)일성이준열사기념사업회 등지에도 소장되어 있음.

3) 문헌자료

- 이준열사기념관 편, 『(한국혼의 부활) 이준열사기념관』, Netherlands : 이준열사기념관, 2010
- 이선준, 『일성 이준 열사』, 서울 : 세운문화사, 1973.
- 유자후, 『이준선생전』, 東邦文化社, 1947;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편, 1998.

4) 등록가치 및 근거 기준

-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소장 글씨 대련은 독립운동가 이준의 글씨로 여겨짐. 이준은 1907년 헤이그 특사로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위해 헌신하신 분으로 충분히 그 행적을 기릴 만한 인물임.
- 그러나 글의 내용은 원래 중국 송나라 학자 소강절의 <인자음(仁者吟)>에서 나온 것으로, 조선시대에는 어린 아이들이 배우는 『명심보감(明心寶鑑)』에 수록되어, 지나친 것을 경계하는 내용임. 따라서 이 내용이 이준의 독립운동 활동과는 크게 연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이준의 글씨는 전쟁기념관,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문화유산국민신탁, 독립기념관, (사)일성이준열사기념사업회 등에도 소장되어 있어 희소성이 떨어지므로 등록 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문화재전문위원 ○○○>

1) 현상

- 이준열사의 유묵 2폭이 양호하게 보존됨

2) 내용 및 특징 :

- 이준열사는 일제가 을사늑약을 불법적으로 강요하여 외교권을 빼앗는 등 국권을 침탈하자, 광무황제는 이준을 비롯한 이상설·이위종 3명을 한국특사로 임명하여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게 하였다. 이준 등 한국특사 일행은 1907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 도착하여,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서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각국 대표들에게 호소하는 외교활동을 전개하였음.
- 이준 등 한국특사들은 일본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 들을 상대로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알리고 한국을 도와 줄 것을 선전하였음.

그렇지만 만국평화회의 참석이 거부당하였고, 한국특사들의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못하자, 이준은 이에 대한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1907년 7월 14일 돌연 순국하였음. 이준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국권회복과 독립을 위한 외교활동을 펼치다가 타국에서 순절한 애국열사로서 역사적으로 매우 높은 평가를 받는 인물임.

- 이준열사가 소옹(邵雍, 諡號는 康節, 1011~1077)의 「인자음(仁者吟)」 가운데 두 구절을 휘호한 것임. 이 유묵의 첫 번째 폭의 상단에 ‘장상사(長相思)’라는 인장이 찍혀 있고, 두 번째 폭에 ‘일성(一醒) 이준(李儁)’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어 ‘이준 열사’의 유묵임을 알 수 있음.
- 유묵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快心事過必爲殃 爽口物多終作疾
마음을 유쾌하게 하는 일도 지나치면 반드시 재앙이 되고
입맛에 맞는 음식도 많이 먹으면 결국은 병을 얻게 된다.
- 이 유묵은 중국 송대(宋代)의 유학자인 소옹이 ‘인자음’이라고 하여 ‘어진 사람에 대해 읊은’ 것으로, 어진 사람이 경계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 시로 읊었음.
- 그런데, 이 유묵은 ‘인자음’의 순서를 바꾸어 휘호를 하였음. 원래는 현재 유묵의 앞부분이 뒤로 가고, 뒷부분이 앞으로 와야만 함. 이준열사가 의도적으로 순서를 바꾸어 썼는지, 아니면 착각하여 순서를 바꾸어 썼는지는 알 수 없음.
- 이 휘호는 평리원 검사로서 이준열사의 청렴하고 담백한 성품을 잘 보여주고 있음. 공평무사하게 일을 처리해야 하는 검사로서, 자신의 쾌락에 탐닉하지 않고, 늘 조심하며 삼가는 이준열사의 생활 자세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사진>



3) 문헌자료

-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동아대학교 개교 72주년기념 특별전 : 근대, 그 새로운 시대』, 2018, 18-19쪽.

4) 기타

- 이준열사의 유묵은 1979년 12월 13일 『월간 문화재』 사장 이원기(李元基)씨가 일본 도쿄의 한 소장자 집에서 발견하였음(『서울신문』 1979년 12월 14일자).
- 1980년 3월 13일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에서 구입 수장함.

5)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소장 이준열사의 유묵(2폭)은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일제의 불법적 한국 침략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다가 현지에서 분사한 이준열사의 휘호로서 역사적으로 매우 가치가 높음
- 하지만, 향후 다른 곳에 소장되어 있는 이준열사의 유묵과 비교하여 등록문화재로서 지정할지 여부를 판단되어야만 함
- 현재 이준열사의 유묵 소장처는 다음과 같음
 - 전쟁기념관 1점
 -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2점
 - 문화유산국민신탁 1점
 - 독립기념관 1점
 - (사)일성이준열사기념사업회 1점

6)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이준열사의 유묵은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에 보존 양태가 매우 양호하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음.

<문화재전문위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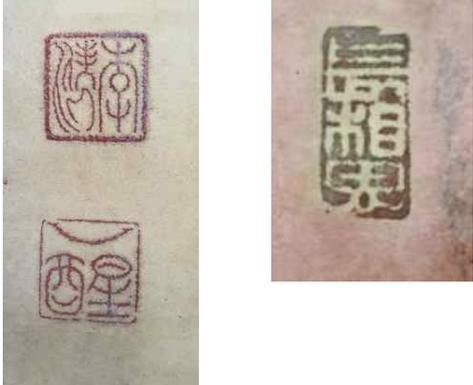
1) 현상

- 본 유물은 1907년에 고종의 밀명을 받고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갔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그곳에서 울분을 못이기고 자결한 이준(李儁, 1859~1907) 열사의 유묵(遺墨)임.
- 이준 열사의 초명은 성재(性在)·여천(汝天)·선재(璿在)이고, 자는 순칠(舜七), 호는 일성(一醒)·해사(海史)·청하(靑霞)·해옥(海玉)임. 함경남도 북청 출신으로 1894년 갑오개혁 이전에는 한학(漢學)을 수학하여 최익현 등 당대의 명사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으며, 갑오개혁 이후에는 개화파로 활동하며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보안회, 대한협동회, 공진회, 국민교육회, 신민회 등을 조직 또는 운영하면서 다양한 구국 활동을 하였음.

- 본 유물은 2폭의 권자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내용은 “快心事過必爲殃” 1구와 “爽口物多終作疾” 1구로 구성되어 있음.
- “快心事過必爲殃”의 우측 상단에는 “長相思”라는 인장이 찍혀 있고, “爽口物多終作疾”의 좌측 하단에는 “一醒 李儁”이라는 필자 이름을 쓰고 그 아래에 “李儁”과 “一醒”이라는 인장이 차례로 찍혀 있음 (사진자료 참조)

2) 내용 및 특징

- 본 유물에 쓴 2개의 문구는 송나라 학자인 소옹(邵雍, 1011~1077)의 <인자음(仁者吟)>이란 칠언율시 가운데 5,6구를 쓴 것으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끝내 병이 생기고, 기쁜 일이 지나치면 반드시 재앙이 생긴다. [爽口物多終作疾, 快心事過必爲殃]”는 내용임.
- 그런데 우측 폭 상단의 인장인 “長相思”와 좌측 폭 하단의 인장인 “李儁”·“一醒”의 내용과 위치로 볼 때 이 글씨의 필자는 이 시구(詩句)의 순서를 원래 시와는 반대인 “快心事過必爲殃, 爽口物多終作疾.”로 인식하고 쓴 것으로 보임.
- 송나라의 대표적 성리학자 중의 한 사람인 소옹의 시이자 《명심보감(明心寶鑑)》에도 수록될 정도로 널리 알려진 시를 당시 한학(漢學)에 정통한 지식인인 이준 열사가 순서를 바꾸어 썼다는 것은 다소 의외라 할 수 있음.

	
<p>사진 1 전체 모습</p>	<p>사진 2 우측상단 인장 위치</p>
	
<p>사진 3 좌측하단 인장 위치</p>	<p>사진 4 인장 내용</p>

3)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이준 열사의 유물은 현재 전쟁기념관, 독립기념관, 예술의전당, 이준열사기념사업회, 문화유산국민신탁 등 다수의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음.
- 또한 본 유물은 수록된 내용이 독립운동과 연관성이 없는 일상의 교훈적 명구를 써 놓은 것으로 유물의 역사적 자료가치는 그다지 높지 않음.
- 이상에서 볼 때, 본 유물은 등록문화재로 등재하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됨.
- 아울러 인용된 시구(詩句)가 원래의 시구와 순서를 뒤바꾸어 써 놓은 점을 고려할 때, 추후 서예분야 전문가를 통해 유물 필자의 진위여부에 대한 정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9. 「군산 둔율동 성당 성전신축기·신축공사설계도」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전라북도 군산시 소재 「군산 둔율동 성당 성전신축기·신축공사설계도」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군산 둔율동 성당 성전신축기·신축공사 설계도」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18.9.12.)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9.11.19.)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재단법인 천주교 전주교구 유지재단
- (2) 대상문화재

문화재명	수량	규격	제작년대	소유자	소재지
군산 둔율동 성당 성전 신축기	1건 1점	23.5 × 17.6cm	1955년 ~ 1957년	재단법인 천주교 전주교구 유지재단	전라북도 군산시 둔배미길 24, 군산 둔율동 성당
군산 둔율동 성당 신축 공사설계도	1건 4점	25.7 × 18cm	1955년		

-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4) 추진경과

- ('18.9.12.) : 「군산 둔율동 성당 성전신축기·신축공사설계도」 문화재 등록 신청
- ('19.11.19.)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문화재위원 ○○○('19.11.19.)

- 군산 둔율동 성당 '성당신축기'는 성당 건축공사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서, 계획수립·건축크기 및 배치도·건축기간·건축기금 등 전체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자료이며, '신축공사설계도'는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 등 4점의 건축도면의 청사진본임
- 해당 유물들은 둔율동 성당의 신축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자료로 역사적 가치는 있으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됨. 다만, 둔율동 성당 역사의 기록물이고 진정성이 있는 유물이기 때문에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것을 권고함

○ 문화재전문위원 ○○○('19.11.19.)

- 해당 유물은 등록문화재 제677호 '군산 둔율동 성당'의 건축공사와 관련된 기록 및 설계도서로서, 둔율동 성당의 진정성 확보와 건축적 가치 제고 등을 위해서는 중요한 자료임
- 다만, '신축공사설계도'는 원도가 아닌 청사진본이므로 보존가치는 크지 않다고 판단되며, '성전신축기'는 동산문화재적 가치는 다소 미흡하나, 둔율동 성당과 공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축사적 가치는 미미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시도등록 문화재로 등록을 권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 ○○○('19.11.19.)

- 군산 둔율동 성당의 '성전신축기'는 해당 성당의 인허가 관련 사항·착공 및 완공 기록·신축 관계자 명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유물이며, '도면(청사진)'은 성당의 평면도·우측면도 및 정면도·제단실 및 제의실 상세도 등을 담고 있는 유물임.
- 이 중 성전신축기는 1950년대 당시 건축 공사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상세히 담고 있으며, 동시대에 이와 같은 수준의 상세한 기록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근대 건축기록물로 가치는 있음. 그러나 기 등록된 국가등록문화재와 비교할 경우 그 가치가 다소 미흡하여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 추진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보류

- 군산 둔율동 성당 공사설계도 보존상태 등 추가조사 후 재검토

○ 출석 11명 / 보류 11명

〈붙임〉

「군산 둔율동 성당 성전신축기·신축공사설계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군산 둔율동 성당 성전신축기·신축공사설계도
2. 소재지 : 전라북도 군산시 둔배미길 24, 군산 둔율동 성당
3. 소유자 : 재단법인 천주교 전주교구 유지재단
4. 조사자 의견('19.11.19.)

〈문화재위원 ○○○〉

1) 현상

-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질이 다소 떨어지는 종이이기 때문에 향은 향습 시설을 갖춘 수장고 보관이 필요함.

2) 내용 및 특징

- 군산 둔율동 성당은 1915년에 군산 공소로 시작하였고 교세가 확장되어 1931년에 본당으로 승격되어 '군산 천주 교회(군산 성당)'로 불렸고 1944년에 현재 성당 부지를 마련하여 이전하였음. 현재 성당은 한국전쟁 이후, 1955-57년에 신축한 건물이며 국가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음(등록문화재 제677호). 교세가 확장되고 군산 시내에 제2성당 설립의 요구로 1961년에 '군산 월명동 성당'을 분리 신설하면서 '군산성당'은 '군산 둔율동 성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음.
- <성전신축기>는 낱장의 기록물을 한 권으로 첩해놓았으며 표지에는 “一九五五年度, 聖殿新築記, 群山教會”라는 목서가 있음. 내용은 1955년에서 1957년까지의 성당 건축공사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자료임. 작성자의 이름은 알 수 없으나, 계획 수립, 건축 크기 및 배치도, 건축 기간, 건축기금, 건축기술자 명단 및 인부, 건축인허가, 지출액, 낙성식 등, 준공에 이르는 전체 과정이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있음. 건축물의 배치, 성당 파사드, 제대 부분 등의 기본 스케치가 포함되어 있음.
- <신축공사설계도>는 4점 건축도면(평면도, 정면도, 측면도, 종탑 상세도)의 청사진본임. 제7대 서정수 신부가 성당 신축을 위해 당시 군산시 소재 '허만건축사무소'에 의뢰하여 작성한 것임.

3)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군산 둔율동 성당 성전건축기 및 신축공사설계도는 둔율동 성당의 신축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자료로 역사적 가치가 있음. 특히 군산 둔율동 성당은 일제강점기에 공소로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성당이며, <성당건축기>는 6.25전쟁 직후에 신축한 성당의 건축과정을 비교적 소상히 기록했다는 점에서 종교사 및 건축사에서 가치가 있음. <신축공사설계도>는 청사진본이고 현재 건축물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다소 발견되나 성당의 기본 도면이기 때문에 보존 가치는 있음. 그러나 둔율동 성당 자체를 국가 등록문화재로 등록 시에 이미 <성당건축기>의 가치가 인정되었던 점, 그리고 <신축공사설계도>는 원본이 아닌 청사진본인 점에서 보면, 국가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됨. 다만, 둔율동 성당 역사의 기록물이고 진정성이 있는 유물이기 때문에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것을 권고함.

4)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항온 항습 시설이 있고 햇빛이 차단된 수장고에 보관할 것을 권함.

<문화재전문위원 ○○○>

1) 조성연대

- 성전신축기 : 1955년~1957년(11월)
- 신축공사설계도 : 195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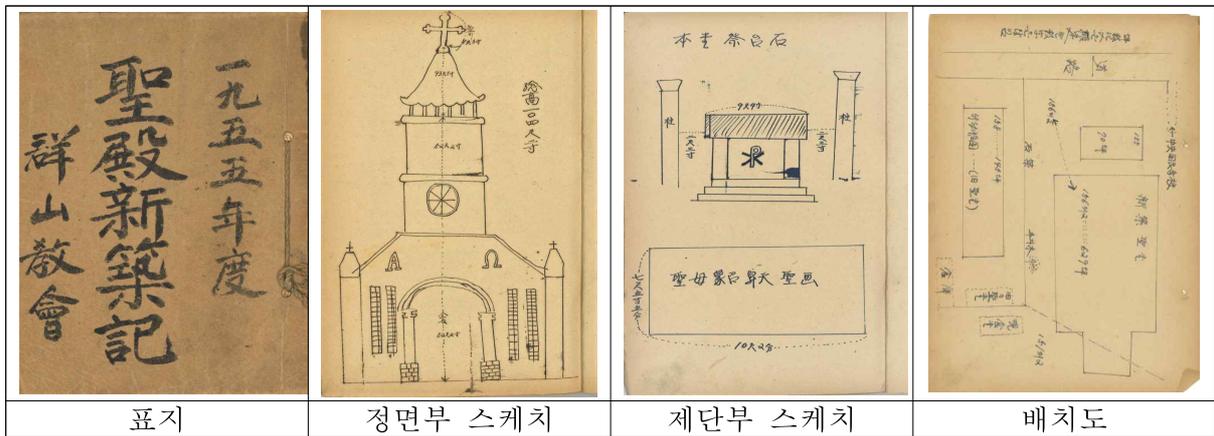
2) 현상

- 현재의 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보이나, 향후 보다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수장시설을 갖춘 박물관 등에 위탁 보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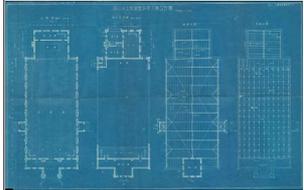
3) 내용 및 특징

- 동 ‘성전신축기(聖殿新築記)’ 및 ‘신축공사설계도’는 등록문화재 제677호로 등록된 ‘군산 둔율동 성당’ 건축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록 및 설계도서로 현재 성당측에서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음.
- 둔율동 성당은 1915년경 군산 공소로 시작하여, 1931년 1월 본당으로 승격된 이후 1944년에 현재의 부지로 옮겨 오게 되었으며, 한국전쟁 기간 중에도 교세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1954년 7월 17일 새로운 성당 신축 계획을 세운 후, 1955년 3월 24일 공사를 착공하여 1955년 8월 17일 준공되었음.
- 또한, 성당이 준공된 이후에도 교세가 날로 확장하여 1961년 ‘군산 월명동 성당’이 분가됨에 따라 성당 명칭을 최초 ‘군산성당’에서 ‘군산 둔율동 성당’으로 변경하였음.
- 성당 신축과 관련하여, 계획수립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은 당시 주임신부이었던 서정수 신부에 의해 주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번 등록 신청한 ‘성전신축기’ 및 ‘신축공사설계도’ 작성에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먼저, ‘성전신축기’는 성당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계획 및 시공 등 전반적인 공사 과정에 걸쳐 여러 자료들을 정리한 것으로 1955년부터 1957년(11월)까지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 다만, 작성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록이 없어 확인 할 수 없음.
- 23.5cm(가로)×18cm(세로)의 규격에 표지를 포함하여 총 112쪽(단면 혹은 양면)의 분량으로 건축인허가에서부터 지출액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사항으로는 내용 중에 스케치(배치, 성당 정면, 제대석 등) 자료가 수록되어 있음.
- 다만, 스케치 자료가 실시설계 과정에서 그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또한 당시 주임신부이었던 서정수 신부가 직접 프리핸드로 적성한 것으로 전해 지고 있으나,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음.
- 성전신축기를 통해 둔율동 성당은 1955년 3월 24일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착공 인가는 1955년 3월 29일 득하였고, 공사는 1955년 3월 11일 착공하여 8월 16일 준공 후 8월 17일 낙성식을 거행하였음을 알 수 있음.



- ‘신축공사설계도’는 제7대 서정수 신부가 성당 신축을 위해 당시 군산시 소재 건축 설사무소인 ‘허만건축사무소’에 의뢰를 하여 작성한 것으로, ‘건축허가신청서 (시방서 포함)’와 함께 ‘군산 천주교회 성당 신축공사 설계도’서 4장이 전하고 있음.
- 당시 허만건축사무소의 대표건축가인 허만은 광복 이전에는 일본 건설회사에 근무하였으며, 1962년 당시 전라북도 최초 건축사로서 지부장을 역임. 이후, 회사명을 호남건축설계사무소로 바꾸었으며, 1975년 당시 작성된 호남건축설계사무소 건축공사설계감리업무경력서에서 군산천주교당을 설계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음.
- 건축허가통지서 및 시방서는 원본으로 보이나, 건축도면은 직접 드로잉한 원도가 아닌 청사진본이며, 이 중 ‘종각평면도 및 단면도’의 경우에는 도면 작성 체계가 다른 도면과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어 작성 시기 등 그 내력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용상의 요구로 성당 내외에서 마감재 등의 크고 작은 변형이 있어, 최초 건립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없어 설계도면과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첩탐의 경우에는 확실히 다른 모습으로 시공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종탑 상세도	입면도(정면도, 측면도)	평면도

4)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둔율동 성당의 등록문화재적 가치를 제고 시키는 것은 성당 신축을 위한 계획 단계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기록하여 현재까지 전해져 오고 있다는 사실임.
- 따라서, 이 번 등록 신청한 ‘성전신축기’ 및 ‘신축공사설계도’는 둔율동 성당 건물의 진정성 확보와 건축적 가치 제고 등을 위해 중요한 자료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임.
- 다만, ‘신축공사설계도’의 경우 원도가 아닌 청사진본이라는 점에서 보존 가치는 크지 않다고 보여짐. 이에 반해 성전신축기는 동산 문화재적 측면에서 가치는 다소 미흡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현존 건축물(둔율동 성당)과 공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건축사적 가치는 미미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을 권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 ○○○ >

1) 현상

- 성전신축기는 붉은색 세로쓰기 형식의 용지에 청색 잉크로 작성되었고, 대략 112쪽 분량임. 전체적인 보존 상태는 양호함.
- 도면은 청사진 형식으로 4장의 낱장으로 구성됨.

2) 내용 및 특징

- 성전신축기는 군산 둔율동 성당이 신축되던 1955년을 전후한 시기에 작성된 몇 가지의 서로 다른 자료가 합쳐져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음. 표지에 1955년으로 기록되어 있어 최초 작성 시기는 건축물이 준공되던 당시였던 것으로 판단됨.
- 제대석이나 종탑 관련 스케치 등은 성당에 대한 설계 과정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1956년과 1957년에 진행된 방수공사와 관련된 기록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1955년 준공 이후의 기록도 추가되어 구성됨.

- 성전신축기를 구성하고 있는 자료들은 그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음.
 - 성당 신축 관련 스케치, 성당 신축 대지
 - 인허가 관련 사항, 착공 및 완공 기록
 - 성당 신축 공사비 모금 관련 기록(각종 기금, 기성금 포함)
 - 성당 신축 관계자 명단(성당 측 관계자 및 기술자 명단)
 - 공사부별 세부 지출 내역
 - 일부 세부 공사별 기록(공사 기간, 인력, 공사비 등)
 - 방수공사 기록(1956년, 1957년)



- 성전신축기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는 부분이 공사비와 관련된 부분으로 총 16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기록함. 연와(煉瓦), 목재(木材) 등과 같은 재료에 의한 구분, 목수공임(木手工賃)과 같은 기술자에 의한 구분, 미장공사(美裝工事)와 같은 공중에 의한 구분 등으로 구분함.
- 16개 항목으로 구분하였을 때 가장 많은 공사비가 지출된 것은 건축물의 주된 자재인 벽돌 자재 구입 비용 및 벽돌공 인건비지만 목재 구입 비용과 목수 인건비를 합하면 목공사 관련 공사비 지출이 가장 많음.
- 이상의 항목별 공사비 지출은 다시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음. 날짜별로 공사비 지출이 기록된 항목은 煉瓦部, 境治石部, 木材部, 洋灰(세멘트)部, 砂利(모래)部, 飮食物代, 塗料 및 染料部, 電氣部, 鐵物部, 수사部, 海草部, 白灰(石灰)部, 鉞錫部の 순으로 총 12개 부(部)로 구분함.

- 각 부별 상세 내역은 지출 일자와 지출 내역, 지출 금액으로 구성됨. 지출 내역에는 해당 지출의 내용과 수량, 단위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성전건축기에 수록된 성당 신축 과정과 관련된 각종 인물에 대한 기록은 당시 공식적인 건축주였던 서정수 신부를 비롯하여 구역장, 성당 신축 기금에 기여했던 신도 관련 기록이 남아있음.
- 또한, 성당 신축에 참여했던 기술자에 대한 기록으로 기술자 명단은 목수, 연와, 미장, 석공 등의 순으로 7개 부분으로 나누어 기록함. 각각의 기술자에 대해서는 주소와 이름을 기록하였고, 세례명이 있는 경우 이름 뒤쪽의 괄호에 세례명을 병기함. 총 22명의 기술자 이름이 기록됨.
- 목수기술자에서는 도목수와 부도목수, 목수를 구분하여 기술하였고, 연와기술자에서는 지휘기술자와 기술자로 구분함. 세례명이 기록된 기술자는 총 6명이고 그 중 목수가 5명임. 주소가 기록된 기술자는 총 17명이고 주소가 군산시로 기록된 기술자가 12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익산군 3명, 옥구군 2명임. 주로 군산에 거주하는 지역 기술자에 의해 공사가 이루어졌음.
- 청사진은 군산 둔율동 성당의 평면도, 우측면도 및 정면도, 제단실 및 제의실 상세도, 종각 평면도 및 단면도의 4장으로 구성됨.
- 청사진의 정면도와 성전신축기의 정면 스케치, 현존 성당의 정면을 비교해 보면 청사진이 성전신축기보다 먼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됨. 건축사무소에서 건축 허가를 위한 목적에서 청사진을 작성하였고, 성당 측에서 종탑 정면에 대한 수정 요청안을 스케치 형식으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됨. 성전신축기의 스케치에 따라 실제 공사 과정에서 성당 측의 생각이 반영되어 현재와 같은 성당의 정면이 완성된 것으로 추정됨.

3)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군산 둔율동 성당 성전신축기는 1950년대 당시의 건축 공사에 대한 세부적인 공사 내역과 관련 기술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으로 동시대에 이와 같은 수준의 상세한 기록을 우리 근대 건축물 관련 기록에서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 성전신축기의 일별 상세 내역을 통해 당시에 사용되었던 다양한 자재를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는 사용하지 않거나 드물게 사용하는 자재 용어나 공사 관련 용어들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도 역사적 기록물로서 성전신축기가 갖는 의의임.
- 또한, 성전신축기에 수록된 기록 및 청사진, 신축허가신청서 등 기타 관련 기록 등을 통해 군산 둔율동 성당의 배치 및 입면 등에서 초기 설계안과 현재의 성당이 신축되기까지의 변화과정을 추적할 수 있음.
- 근대 기록 유산으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다만, 기 등록된 국가등록문화재 중 기록 유산과 비교할 때 국가등록문화재로서는 그 가치가 다소 미흡하여 시도등록문화재로의 등록 추진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10.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제3차 소위원회 결과보고

국가등록 제707호 「조선내화주식회사 구 목포공장」 현상변경(보수정비)

가. 보고사항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 제3항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제3차 소위원회 처리안건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소위원회 개요

- 일시/장소 : '20. 5. 13.(수) 13:30 / 국립고궁박물관 강당
- 참석 위원 : ○○○, ○○○, ○○○, ○○○, ○○○
- 회의 안건 : 국가등록 제707호 「조선내화주식회사」 현상변경(보수정비)
- 회의 결과 : 보류

다. 보고내용

○ 추진경과

- 2020.2.25. '20년 제2차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 보류

-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 소위원회 위원 : ○○○, ○○○, ○○○, ○○○, ○○○, ○○○

- 2020.3.24. '20년 제1차 근대문화재분과 소위원회 심의

→ 보류

- 기 수립된 종합정비계획과의 연계성, 원형과 역사성을 고려한 보수계획 수립, 보수 기법의 계획 배경 및 타당성 제시 등이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함
- 소위원회 위원 : ○○○, ○○○, ○○○, ○○○, ○○○

○ 주요내용

내 용	검토의견
(1) 신청인 : 조선내화주식회사 대표이사 (2) 대상문화재명 : 조선내화주식회사 구 목포공장(국가등록 제707호) ○ 소재지 : 전라남도 목포시 온금동 122-6번지 외 19필지 (3) 신청내용 ○ 대상위치 : 전라남도 목포시 온금동 122-6번지 외 19필지 ○ 신청내용 : 공장 A·B·C동, 사택, 사무실, 굴뚝 3기 보수·정비 등	

내 용				검토의견
구분	현황	보수·정비 (안)	비고	
공장 A동	지붕 : 목조트러스 벽체 : 강파이프 및 조적벽체 *지붕마감재는 임시로 PE소재 사용(우장막)	지붕 : 목조트러스(철골보강) 위 아연도강판 벽체 : 철근콘크리트(강파이프) 위 종석미장 굽어내기	조선내화 역사관으로 활용	<p>*보류</p> <p>○ 제시된 공장 보수 정비 계획안은 기존구조물에 덧집 방식 등으로 보강하는 것과 외벽을 콘크리트 등으로 마감하는 것으로 이는 규모가 크게 되어 위압감을 느낄 수가 있으므로 문화재와 어울리지 않음</p> <p>이에 기존 외관을 고려한 경량화 및 단순화 방법 등으로 보수 방법 변경이 필요함</p> <p>○ 사택 및 사무동은 해체과정 중에서 원형을 찾아 보수하는 것이 필요함</p> <p>○ 굴뚝3기에 대한 구조보강 방법은 구조별(조적조, 철근콘크리트)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미흡하므로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적절한 보수·보강 방법이 필요함</p>
공장 B동	지붕 : 철골+목조트러스 벽체 : 철근콘크리트+조적조 위 페인트 마감 *지붕마감재는 임시로 PE소재 사용(우장막)	지붕 : 철골(보강)+목조(철골보강) 트러스 위 우레탄 판넬 벽체 : 철근콘크리트+조적조 위 미장보수	체험용 복합 용도로 활용	
공장 C동	지붕 : 철골트러스 벽체 : 철골조+조적조 위 페인트 마감	지붕 : 철골트러스(경간 보강) 위 우레탄 판넬 벽체 : 철골조(SRC보강)+철근콘크리트 노출	미술관으로 활용	
사택	지붕 : 목조 벽체 : 목조 외 *지붕마감재는 임시로 PE소재 사용(우장막)	지붕 : 목조 위 알루미늄 징크 벽체 : 목조 및 종석미장 굽어내기	증축부 일부 철거 (5281㎡)	
사무실	지붕 : 목조 벽체 : 철근콘크리트 외 *지붕마감재는 임시로 PE소재 사용(우장막)	지붕 : 목조 위 알루미늄 징크 벽체 : 철근콘크리트 외(보수 후 도장)		
굴뚝 (3기)	조적조(1기) - 일부탈락, 줄눈 열화, 이격, 탈락	(상단구간) 벽돌 해체 후 재시공 (하단구간) 탄소봉 매입보강 및 에폭시 실링보수재 마감 (공통사항) 조적줄눈 보수 및 외부 중간발판·사다리전면 교체		
	철근콘크리트조(2기) - 단면 결손, 철근부식, 박리·박락, 균열	(상단구간) 콘크리트 부분 철거 후 재시공 (중·하단 구간) 열화부 콘크리트 제거 및 표면 처리 보수 몰탈 단면복구(필요시 철근보강) 에폭시 주입 보수 (공통사항) 콘크리트 중성화 보수 외부 중간발판·사다리 전면 교체		
※ 보수·정비에 소요되는 사업비 약 75억 원은 자체부담(조선내화주식회사)으로 추진				

라.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출석 11명 / 원안접수 11명

11.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제4차 소위원회 결과보고

국가등록 제292호 「경주 우안 양수장」 현상변경(양수장 이전)

가. 보고사항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 제3항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제4차 소위원회 처리안건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소위원회 개요

- 일시/장소 : '20. 5. 13.(수) 15:00 / 국립고궁박물관 강당
- 참석 위원 : ○○○, ○○○, ○○○, ○○○
- 회의 안건 : 국가등록 제292호 「경주 우안양수장」 현상변경(양수장 이전)
- 회의 결과 : 보류

다. 보고내용

○ 추진경과

- 2020. 4. 21. '20년 제3차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 보류
-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심의
- 소위원회 위원 : ○○○, ○○○, ○○○, ○○○, ○○○, ○○○

○ 주요내용

내 용	검토의견
(1) 신청인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우안양수장(국가등록 제292호) ○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 2 (3) 신청내용 ○ 대상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 2 ○ 신청내용 : 경주 우안양수장 이전 - 양수장 해체 및 재설치 · 우안 양수장 전체(바닥 및 기초 포함) 해체 ※ 바닥 및 기초 철거 시 콘크리트 성분 분석 및 철근 배근 확인 · 해체 부재(콘크리트 부재 제외) 자재적치장 설치 보관(컨테이너 창고) · 이전대상지 부지 조성 · 우안 양수장 전체(바닥 및 기초 포함) 재설치	*보류 ○해체, 이전, 설치 전 과정에 대한 기록화 필요 ○설비 제조업체 협의, 과거사진 분석 등을 통해 양수 시스템을 확인하여 과거 모습을 재현할 수 있는 계획 필요

내 용	검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부대시설 (시설 설비 등) 이전방안 · 수문 재현 : 유수지 재현(깊이=6.5m, Ø4.2m) / 권양기 이진 · 수로 재현 : W=2.6m, H=1.3m, L=14m / 견치석 석축(H=0.8m) ※ 기존 취수관과 유출관은 이진공사 해체 시 원형 확인(관계전문가 현장자문회의 개최) 후 원형대로 설치 - 활용방안 · 관람객용 주차장 설치(2대), 관람객 휴게공간 설치(벤치, 조경식재) · 외부 안내판 설치 · 내부 판넬(양수시설 양정도) 제작 설치 · 기존 양수장 사진 및 기계장비 사진 내부에 전시 ※ 유지관리 및 활용계획은 농어촌공사에서 양수장 인수 시 수립 관리(경주시에서 문화재 유지보수 예산 지급) 	

라.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출석 11명 / 원안접수 11명

12. 국가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처리보고

가. 보고사항

전라남도 영암군 소재 국가등록문화재 제368호 「영암 죽정마을 옛 담장」 보수정비를 위한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1건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국가등록 제368호 영암 죽정마을 옛 담장	전남 영암	영암 군수	(1) 보조사업자 : 영암군수 (2) 사업내용 ○ 대상위치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 죽정마을 일원 ○ 사업비 : 95,000천원 (국비 47,500, 지방비 47,500) ○ 사업내용 : 등록구역 내 담장정비 - 보수구간 : 61m(H 1.1m~1.5m) ※보수완료 구간 : 571.21m('11~'19년) (3) 선형변경 ○ 변경구간 : 27m (4) 관계전문가 자문의견 <문화재위원 ○○○('20.4.23.)> ○ 영암죽정마을 옛 담장 중 군서면 도갑리 189-1번지 도로부지(국토부 소유) 189-2번지에 걸쳐 위치한 구간에서 일부 담장이 붕괴되고, 배부름 현상이 발생되어 급회 보수하고자 해체 후 다시 쌓은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함 ○ 189-2번지 토지소유자가 기존 담장 일부가 본인 토지 일부를 침범하고 있었으니 재산권행사를 위해 측량 후 189-2번지와 도로부지의 경계선에 쌓을 것을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함 ○ 경계측량 후 189-2번지와 도로부지의 경계선에 담장을 쌓을 경우 현재 위치에서 약간의 선형변경이 발생되지만, 향후 담장유지 및 관리, 도로개설, 재산권 관련 민원해소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 합리적 방안으로 판단됨	선형 변경 승인	'20.5.11.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출석 11명 / 원안접수 11명